

간행물등록번호

11-1550000-000890-14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

기록화조사보고서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

기록화 조사 보고서



CONTENES



목 차

● 원색화보	9
제1장. 실측조사 개요	33
1. 문화재 현황	35
2. 조사목적 및 방법	36
3. 사업비	39
4. 조사일정 및 조사단 구성	40
제2장. 목포사범학교의 설립과 석조건축	43
1. 우리나라 사범학교의 연원	45
2. 목포 사범학교의 연혁	46
3.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 건축내역	52
4. 목포의 석조건축과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	58
제3장. 건축 및 실측조사	63
1. 입지환경 및 건물배치	65
2. 평면구성 및 면적	69
3. 입면구성	74
4. 건축구조	79
5. 건축재료	83
제4장. 종합고찰	89
1. 역사 및 건축적 의미	91
2. 보존 및 활용방안	92
제5장. 도면	93
1. 실측야장	97
2. 실측도면	106
● 단색화보	125
● 부록	151
- 참고문헌	153
- 요약문	154

사진 목차

<사진1-1>	중형카메라 촬영	39
<사진1-2>	광파기를 통한 측량실시	39
<사진1-3>	지붕틀 조사	39
<사진1-4>	지붕 목조트러스 실측	39
<hr/>		
<사진2-1>	전교생 소풍기념(1949)	48
<사진2-2>	밴드부	49
<사진2-3>	운동장에서 전체조회	49
<사진2-4>	교무실 내부	49
<사진2-5>	학급단체사진(1957), 뒤편에 본관 건물이 보임	49
<사진2-6>	본관 석조공사를 한 손양동(우측)	53
<사진2-7>	본관 신축에 사용된 석재를 채굴한 석산	53
<사진2-8>	1950년에 신축된 목포사범학교 교사.	54
<사진2-9>	우측 까지 모두 완성된 목포사범학교 교사 전경.	55
<사진2-10>	목포사범학교 본관과 뒤편의 별관을 연결하는 건물.	55
<사진2-11>	본관 내부복도	56
<사진2-12>	목포사범학교 교문	56
<사진2-13>	우측 중축부 상량문	56
<사진2-14>	일반주택 석조 담장.	58
<사진2-15>	정명여학교 구 선교사 사택	59
<사진2-16>	목포 보광동 상가	59
<사진2-17>	목포 양동교회	59
<사진2-18>	목포 문태고등학교 본관	59
<사진2-19>	구 동본원사 목포별원	60
<사진2-20>	목포 북교동 천주교회	60
<사진2-21>	목포 구 청년회관	60
<사진2-22>	무안군청 서고	60
<사진2-23>	목포 남교 파출소	60
<사진2-24>	목포 부청서고	60



CONTENES



<사진2-25> 목포 경동천주교회.	61
<사진2-26> 경동천주교회 준공식 기념사진	61
<사진2-27> 완도 수산고등학교 본관 신축현장 모습	62
<사진2-28> 석축공사 모습	62
<사진3-1> 구 목포사범대학 본관 주변 시가지	65
<사진3-2> 목포대 목포캠퍼스 전경 및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	67
<사진3-3> 캠퍼스 정문	68
<사진3-4> 운동장에서 본 본관건물	68
<사진3-5> 본관 뒤편 부속건물	68
<사진3-6> 본관 뒤편 주차공간	68
<사진3-7> 중앙 현관 캐노피(측면)	70
<사진3-8> 중앙 현관 캐노피(정면)	70
<사진3-9> 1층 중앙 출입홀(후면방향)	71
<사진3-10> 1층 중앙 출입홀(정면방향)	71
<사진3-11> 1층 강의실	71
<사진3-12> 2층 대강의실	71
<사진3-13> 좌측 계단실	72
<사진3-14> 우측 계단실	72
<사진3-15> 외부 계단	72
<사진3-16> 본관 우측 증축부	72
<사진3-17> 1층 복도(증축부)	72
<사진3-18> 2층 복도(증축부)	72
<사진3-19> 정면	74
<사진3-20> 배면	74
<사진3-21> 정면 1층 상세	75
<사진3-22> 정면 중앙 박공	75
<사진3-23> 지붕 상부로 돌출된 굴뚝	76
<사진3-24> 후면 출입구 캐노피를 받치는 2개의 기둥	77
<사진3-25> 기둥에 설치된 조각 작품 2	77
<사진3-26> 오작교와 연결부였던 본관2층 흔적	77
<사진3-27> 증축부 정면	78
<사진3-28> 증축부 배면	78
<사진3-29> 외벽 돌쌓기	79
<사진3-30> 창대	79
<사진3-31> 현치를 둔 복도상부 보	81
<사진3-32> 강의실 내부의 보와 슬라브	81
<사진3-33> 왕대공 트러스 전경	82
<사진3-34> 지붕널과 중도리	82
<사진3-35> 왕대공	83

<사진3-36>	왕대공과 평보	83
<사진3-37>	왕대공과 허자보	83
<사진3-38>	평보와 감접이쇠	83
<사진3-39>	현장조사시 확인된 건축재료	84
<사진3-40>	목포 정명여자중학교 구 선교사 사택 벽체	85
<사진3-41>	복도에서 본 내부 목재창	86
<사진3-42>	아스팔트 싱글 지붕(외부)	86
<사진3-43>	지붕틀 내부 판재	86
<사진3-44>	2층 내벽 합판위 벽지마감	86
<사진3-45>	인조석 물갈기 마감	86
<hr/>		
<사진4-1>	목포 산정동 정병조 가옥	92
<사진4-2>	목포 죽교동 공생원사무실	92
<사진4-3>	초창기 정명여학교 교장 사택이었던 유애나관	93
<사진4-4>	죽동교회	93
<사진4-5>	구 동양척식 목포지점 지점장 관사	93
<사진4-6>	외부 담쟁이넝쿨	94

그림목차

<그림1-1>	광파기를 이용한 건물 주요점	37
<hr/>		
<그림2-1>	졸업증서(1947)	47
<그림2-2>	수료증서(1948)	47
<그림2-3>	성적통지서	50
<그림2-4>	임명장	50
<그림2-5>	삼년개근상장(1956)	51
<그림2-6>	초등학교 2급 공교사 자격증(1958)	51
<그림2-7>	목포사범학교 본관 건립 추이	53
<그림2-8>	단기 4287년(1954) 3월 준공머릿돌	54
<hr/>		
<그림3-1>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 위치도	66
<그림3-2>	배치도	68



CONTENES



<그림3-3>	1층 평면도	69
<그림3-4>	2층 평면도	69
<그림3-5>	정면도	75
<그림3-6>	배면도	75
<그림3-7>	좌측면도와 우측면도	75
<그림3-8>	굴뚝 입면 상세도	76
<그림3-9>	기둥에 설치된 조각 작품 1	76
<그림3-10>	후면 중앙 출입구 캐노피 기둥	77
<그림3-11>	우측 중축부 정면	78
<그림3-12>	우측 중축부 배면	78
<그림3-13>	창대 크기	79
<그림3-14>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과 목포 경동 천주교회벽체단면	80
<그림3-15>	철근 콘크리트 보 크기	81
<그림3-16>	철근콘크리트 보 위치	81
<그림3-17>	지붕 왕대공 트러스 상세도	82
<그림3-18>	석재 기본 크기(외벽)	84

표 목차

<표1-1>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 기록화 사업 내용	36
<표1-2>	실측조사에 활용한 도구 및 장비 현황	38
<표1-3>	주요 디지털 실측장비 사진	38
<표1-4>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 기록화 사업 지출내역	39
<표1-5>	실측조사 추진 일정 및 내용	40
<표2-1>	목포사범학교의 주요연혁	51
<표2-2>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 사용내역	57
<표2-3>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 최근 보수내역	57
<표2-4>	목포의 주요 석조건축	58
<표3-1>	좌우측의 계단실 비교	71
<표3-2>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 평면구성 및 면적	73
<표3-3>	목포 주요 석조건물의 석재 크기 및 표면상태	85
<표3-4>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 재료마감	87



원색화보



목포캠퍼스 및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 원경



남측 전경



동측면 및 배면 전경





정면 전경



정면 중앙 출입부



좌측부 전경



우측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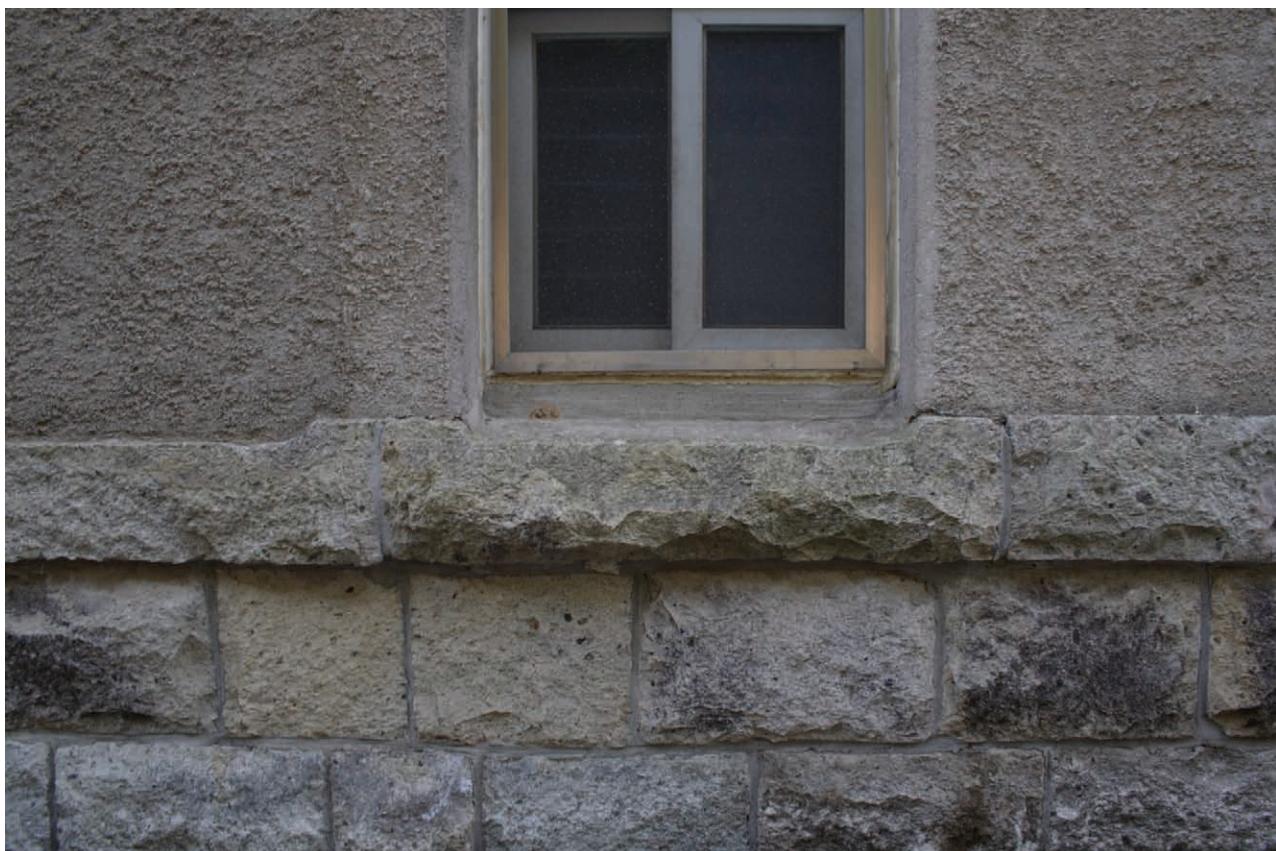
우측 증축부 정면



우측 증축부 정면 상세



우측 증축부 배면



우측 증축부 배면 상세



좌측면 지붕 전경



우측면



배면 증축부와 기존 본관



배면 중앙부



정면 중앙 박공부



정면 중앙 출입구



배면 중앙 출입구



배면 중앙 출입구 측면



정면 좌측 부출입구



정면 우측 부출입구



배면 좌측 부출입구



배면 우측 부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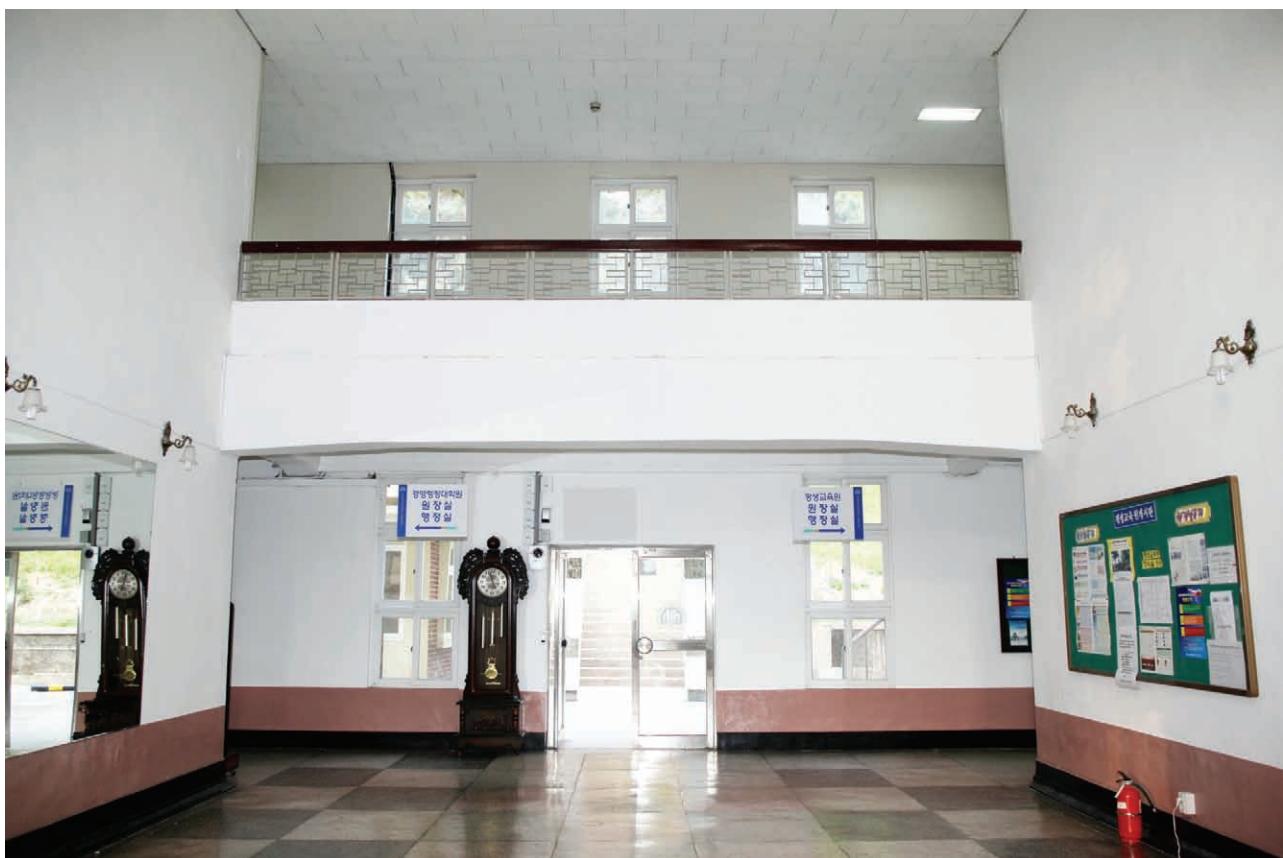
굴뚝 상단부



굴뚝 하단부



1층 중앙홀 (남측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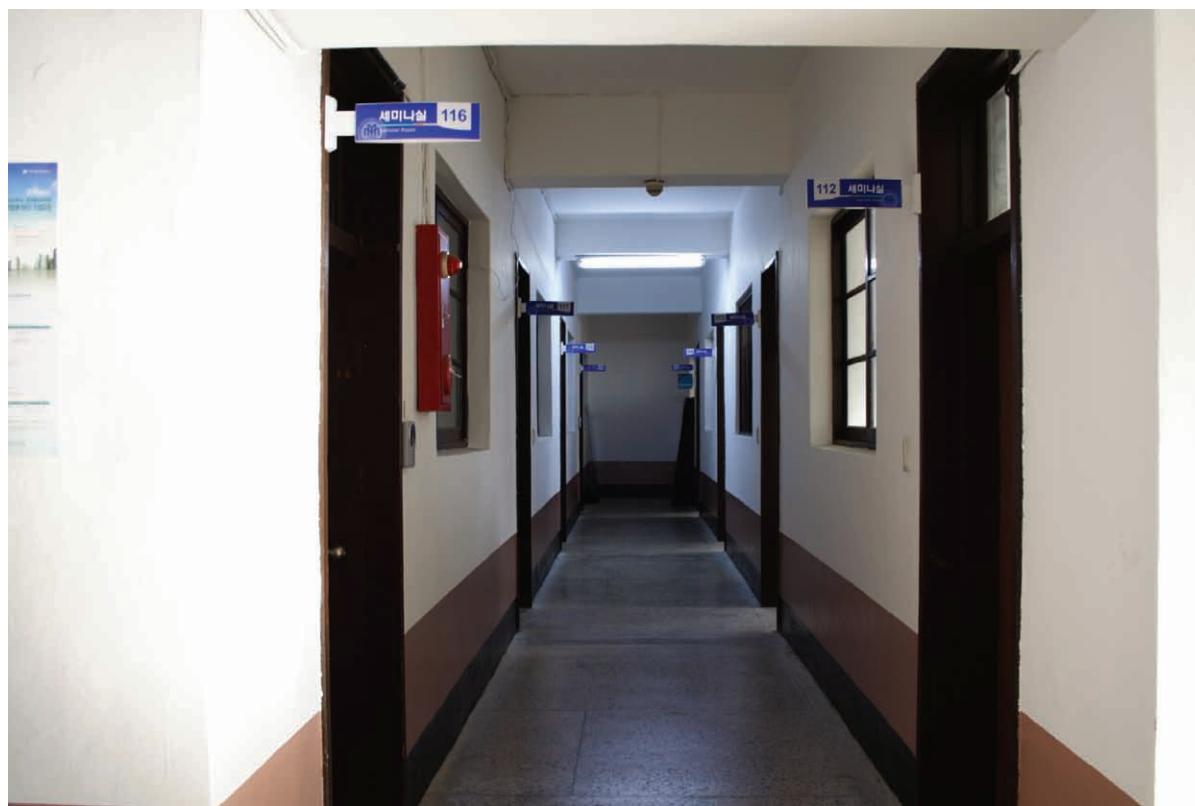
1층 중앙홀 (북측방향)



1층 복도 (동측방향)



2층 복도 (서측방향)



우측 증축부 복도



우측 계단실





1층 강의실(103호)



2층 대강의실



왕대공 트러스 전경(위치 : 2층 대강의실 서측 끝)



왕대공 트러스 하단부



왕대공



왕대공 상부 보강철물



∧자보와 빗대공 결구부



트러스-벽체 결구부



동측 증축부 왕대공 트러스



준공머릿돌 (위치 : 배면 외부계단 하단부)



동측 증축부 상량문 (위치 : 증축부 2층 복도 상단)



제1장 실측조사 개요

1. 문화재 현황
2. 조사목적 및 방법
3. 사업비
4. 조사일정 및 조사단

1

문화재 현황

등록문화재 개요		등록번호	제 239호
		등록일	2006.3.2
현명칭	한글 : 국립 목포대학교 목포캠퍼스 본관 한자 : 國立 木浦大學校 木浦캠퍼스 本館		
구명칭	한글 : 목포사범학교 본관 한자 : 木浦師範學校 本館		
현소재지	한글 :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산 43번지 한자 : 全羅南道 木浦市 龍海洞 山 四三番地		
소유자명	한글 : 교육과학기술부 한자 : 教育科學技術部		
용도	현재용도 :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평생교육원 원용도 : 목포사범학교 본관		
소유자	한글 : 교육과학기술부 한자 : 教育科學技術部	관리자	한글 : 국립목포대학교 한자 : 國立木浦大學校
설계자	이기만	시공자 (석공사)	손양동
준공	년도	1차 1950년	2차 1954년
	근거	목포대학교 소장 연혁지	미릿돌
주요 연역	년도	내용	
	1946.10	목포사범학교 설립 인가	
	1950	목포사범학교 본관 건립(좌측)	
	1954	목포사범학교 본관 건립(우측)	
	1961	목포사범학교 본관 우측 증축	
	1979~현	목포대학 교사	
건축 규모	건축형식	근대 절충양식	
	건축구조	석조+목조트러스(지붕)	
	건축외장	외벽 : 석재(퇴적암)	
	마감재	지붕 : 아스팔트 쟁글	
	층수	2층(건물최고높이 : 12.28m, 중앙 현관 박공부분)	
	대지면적	169.613m ²	
	건축면적	1,089.86m ² (현관 캐노피 제외)	
	부대시설	화장실1동, 창고1동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학교시설지구		

2

조사목적 및 방법

1) 조사목적 및 의의

본 과제는 등록문화재 제239호로 지정된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을 실측조사하여 기록화하는 것이다. 건축 문화재는 외부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스스로의 변형과 노후화로 인해 건립당시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가급적 빨리 정밀 실측하여 기록화 하는 것은 건축적 연구, 천재지변과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한 파손시 복원 및 중수 등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다.

이 건물은 1950년도에 우선 반쯤지은 후에 계속 2차례에 걸쳐 증축이 되어 현재의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다.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은 해방이후에 건립된 목포 교육시설의 현장으로서 의미가 있고 또한 목포대학교의 모태로서도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

한편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은 건축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건축적 완성도가 비교적 높은 이 건물은 이 지역 석조건축의 발생과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당시 석재공사를 맡은 기술자가 생존하고 있어 신뢰성 있는 건축적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2009년도 문화재청의 지원으로 실측조사를 하게 된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은 현재 창호와 지붕 재료의 교체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건립당시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내부는 학교의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 되어 있으나 구조 등이 손상된 곳은 거의 없다. 본 실측조사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1.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 기록화 사업 내용

발주처 과업내용	기록화 실행 내용
역사적 관련 문헌 자료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 건축내력 확인(상량문, 시공년도, 시공자 등) 목포 석조건축의 역사적 고찰 석조건축기술자 '손양동' 발굴

건축현황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입지 환경 및 배치 건축평면 구조 건축입면 구조 건축 구조 및 재료 창호구성
기록 보존용 실측 도면 및 복원도면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치안내도 및 배치도 1,2층 평면도 정면, 배면, 좌우측면도 횡·종 단면도 각부 상세도 창호도 등
기록보존용 및 조사용 사진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록 보존용 사진 6"×7", SLIDE 54매 조사용 디지털 사진 약 520매
기록화 조사 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A4 사이즈 156쪽

실측조사는 크게 예비실측과 정밀실측 방법을 채택했다. 예비실측을 통해 건축물의 입지환경 분석, 건축물의 규모파악 등을 하였다. 예비실측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가지고 수작업과 광파기 등 각종기기를 이용하여 정밀실측을 하였으며 정밀실측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촬영 등으로 보완을 하였다. 실측은 가능한 현상 그대로 하였다.

건물의 전체 기본구조부는 수평, 수직 기준선을 이용하여 좌표를 설정하였고, 각각의 부재는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세부실측을 실시하였다. 실측단위는 1/1,000m로 하였다. 실측된 자료는 가능한 현지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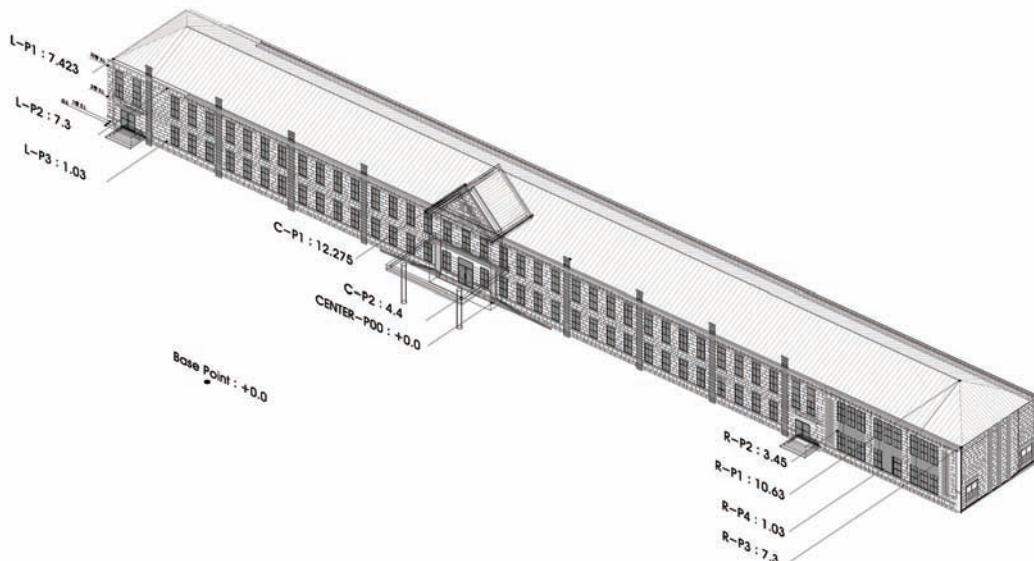


그림 1-1. 광파기를 이용한 건물 주요점

본 설측조사에 활용한 도구 및 장비는 다음과 같다.

표 1-2. 실측조사에 활용한 도구 및 장비 현황

구 분	내 용
측량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eica TC-1010 광파기 레이저 거리측정기(SOKKIA MiNimeter MM30) 휴대용 레이저 거리측정기(Leica Disto A6)
사진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형카메라 : Mamiya RB67 디지털 카메라 : Canon MARK 5D Digital Camara Canon 350D Digital Camara
기타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5m, 7m 스틸자, 100m 줄자 간이 접이식 사다리
컴퓨터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utodesk Auto CAD 2008 Adobe Photoshop CS3 Digital Photo Professional (Ver. 3.7.2.0) Adobe Acrobat Professional 한글과 컴퓨터 한글 2007

표 1-3. 주요 디지털 실측장비 사진

leica TC-1010 광파기	SOKKIA MiNimeter MM30	Leica Disto A6
		
Mamiya RB67	Canon MARK 5D	Canon 350D
		



사진 1-1. 중형카메라 촬영



사진 1-2. 광파기를 통한 측량실시



사진 1-3. 지붕틀 조사



사진 1-4. 지붕 목조트러스 실측

3

사업비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 기록화 사업의 지출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4.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 기록화 사업 지출내역

항	목	금액	비고
인건비	인건비	14,500,000	총 7명
	소계	14,500,000	

직접비	여비	2,900,000	관내, 관외
	기술정보 활동비	3,060,000	회의비, 자문비, 문현구입 등
	수용비	6,800,000	보고서 간행 (200쪽, 400부) 자료집 복사 및 검수자료 준비
	재료비	3,790,000	토너, 실측용품, CD, 인쇄용지, 사진필름 등
	소계	16,550,000	
간접비	일반관리비	3,450,000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총사업비의 10%)
	소계	3,450,000	
합계		34,500,000	

4

조사일정 및 조사

1) 조사일정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 기록화 조사하는 제1팀과 2팀으로 나누어 각 팀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하였다. 제 1팀은 건축 연혁 및 특성고찰 등 원고작성을, 제 2팀은 실측과 도면 작업을 위주로 진행하였다. 제1팀은 김지민, 제2팀은 나병국이 책임을 맡았다.

다음 <표2>는 본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일정이다.

표 1-5. 실측조사 추진 일정 및 내용

구 분	일 정	내 용	비 고
기록화사업 정식 계약 및 착수계약체결	2009.4.21	-	문화재청
조사단 구성	4.21 ~ 30	실측조사팀, 도면작성팀, 보고서 작성, 지 도위원 구성	
예비조사	2009.5	실측조사 작업준비 및 관련 문헌자료 수 집	
예비실측	5.11 ~ 15	간략사진촬영, 주변현황조사 (배치 및 입 지조사)	

1차 현장실측	5.15 ~ 29	평면, 입면 실측	
2차 현장실측	6.1 ~ 26	입면 및 단면, 외벽 돌 쌓기 및 줄눈 정밀실측	
실측내용 점검	5.29, 6.5, 6.26	누락부분 검토 및 보완방안 수립	
추가 현장 실측	7.13 ~ 7.28	누락부분 실측	
사진촬영	1차	8.11 ~ 18	외부 및 내부, 천장 트러스 촬영
	2차	10.26 ~ 30	누락부분 및 일부 재촬영, 기록용 정밀 촬영
실측도면 작성	1차	8.17 ~ 26	본도면 작성(주변현황도, 배치, 평면, 입면)
	2차	9.2 ~ 9.11	단면, 각종상세도 및 외부 줄눈도면 작성
실측도면검토	9.2 ~ 9.18	실측도와 완성도면 비교 검토	
보고서 초안 작성	9.14 ~ 25	문헌고찰, 실측에 대한 부문별 원고작성	
보고서 작성	10.7 ~ 23	보고서 편집 및 원고 추가보안	
1차 검수	11.17	보고서와 실측도면 등 검수	문화재청
2차 검수	11.26	"	"
최종 보고서 인쇄	11.4 ~ 11.13	-	
최종 성과물 납품	11.30	보고서, CD, 도면, 사진자료 등	문화재청

2) 조사단 구성

본 실측조사의 조사진과 협조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실측조사 참여자

(2) 자문 및 고증위원

- 실측 및 도면작성 : 이봉수(삼진건축사 사무소 대표)
- 건축내력 : 이정심(가인건축사 사무소 대표)
- 건축내력 : 손양동(1916년생, 목포시 석현동 569-5)

(3) 문화재청 관계자

- 문화재청장 : 이건무
- 차장 : 김찬
- 문화재활용국 국장 : 서영애
- 근대문화재과 과장 : 김원기
- 근대문화재과 사무관 : 김성도
- 근대문화재과 전문위원 : 황보영희

(4) 협조기관

- 목포대학교 박물관
- 목포대학교 시설과
- 목포시청 문화관광과
- (주)삼진건축사 사무소



제2장 목포사범학교의 설립과 석조건축

1. 우리나라 사범학교의 연원
2. 목포사범학교의 연혁
3.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 건축내력
4. 목포의 석조건축과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

1

우리나라 사범학교의 연원¹⁾

1) 한말의 사범학교

우리나라 초등학교 양성기관인 사범학교의 역사는 18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895년 4월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학교법규인 <한성사범학교관제>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설립된 한성사범학교가 우리나라 최초의 사범학교이다. 이는 갑오개혁 이후의 신학제 실시에 따라 당시 초등교육기관인 소학교를 널리 보급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된 것이다.

그 후 1900년대에 들어 사범학교는 질적·양적으로 발전을 거듭하였다. 먼저 1906년에는 <사범학교령>이 반포되어 국·공립 사범학교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였고, 대구사범학교·서우사범학교·국민사범학교·평북관찰부사범학교·강서군사립개천사범학교·진주사범학교·원산사범학교·광주사범학교·진위군사범양성학교 등 사립 사범학교들도 잇따라 설립되었다.

2) 일제시기의 사범학교

국권상실 이후에 일제는 1911년에 <조선교육령>을 반포하여 사범학교를 폐지하고, 그 대신 관립고등보통학교나 여자고등보통학교에 1년제 사범과 또는 1년 이내의 교원속성과를 부설하는 것으로 격하시켰다. 조선인 초등교원의 학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대다수를 일본인 교원으로 충당시킴으로써 초등교육을 일제의 식민지배정책에 충실히 따르도록 유도해 가려는 불순한 교육정책의 마각을 드러낸 것이었다. 이른바 조선인의 일본인화 교육이 사범학교 폐지의 본질적 목적이었다.

그렇지만 3·1운동 이후에 조선 지배정책은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지 않으면 안되었으니, 소위 문화정책이 그것이었다. 이에 따라 교육정책에서도 비록 가식적으로나마 융화교육을 실천하려는 성의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되었으니, 그 결과는 1922년에 제2차 <조선교육령> 공포로 나타났다.

1) 「목포대학교 60년사」에서 발췌

이에 따라 경성제국대학교와 공립중등학교 등이 신설되었고, 보통학교 교원 양성기관으로서 관립사범학교가 다시 부활되었다. 이 때 각 도에 특과(3년제)와 강습과(1년제)로 편제된 도립사범학교가 신설되었고, 특히 경성사범학교·평양사범학교·대구사범학교의 3개교는 보통과와 강습과와 연습과로 편제되었다. 그 후 취학아동의 증가에 따라 1935년에 경성여자사범학교가, 1936년에는 전주사범학교가 새로 설립되었고, 1937년부터 연차적으로 사범학교를 증설하여 1943년까지 각도에 1개 사범학교를 세우기 위한 계획이 추진되었다.

일제는 다시 1938년에 제3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였다. 이는 일본황국신민화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중일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학도 지원병체제의 마련 등을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사범학교에 5년제 심상과(尋常科)가 설치되었고, 관립광주사범학교와 공주여자사범학교 등이 신설되었다. 이후에도 사범학교의 증설이 뒤따라, 전국에 사범학교가 15개교에 달하였다.(남한10개, 북한5개교)

1940년대에 들어 대학·전문학교·사범학교는 모두 전시체제로 개편되었다. 1941년 3월에 <국민학교령>이 공포되어 심상소학교가 초등학교로 개편된 것도 그 일환이었다. 그리하여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그날까지 사실상 교육부재의 상태가 이어져 갔다고 할 수 있다.

해방 이후에 미군정청에서 초등교육의 확대 보급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사범학교 증설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어 갔다. 이런 분위기에서 목포사범학교도 신설되었다.

2

목포사범학교의 연혁²⁾

1) 태동기의 목포 사범학교

해방 이후 미군정청은 학무국의 주도하에 1945년 11월 23일 「조선교육심의회」를 구성하여, 일본인 교원의 철수로 급감한 교원의 절대부족 현상을 타개하고, 일제시기 열악했던 국민교육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하였다. 1946년 3월 7일의 조선교육심의회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가장 시급하게 착수해야 할 것으로 결의된 사안은 역사 사범학교의 증설 사업이었다. 이에 따라 목포 사범학교는 1946년 10월 31일에 설립

2) 「목포대학교 50년사」에서 발췌(사진, 그림포함)

인가 되었으며, 이로써 전남 서남권 초등교원 양성기관으로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이처럼 목포사범학교가 국가 차원의 필요성과 지역사회의 열의가 모아져서 설립되긴 하였지만, 해방 직후 국가 재정 형편이 여의치 않아 시내 중동에 방치되어 있던 조선면화회사 창고를 개조하여 첫 등지를 틀수밖에 없었다. 학제는 중학과 3년 과정과 사범과 3년 과정을 합해서 6년제로 출범하여, 첫 해에 1학년에서 6학년까지를 모두 한꺼번에 모집하는 우여곡절을 겼었다. 이는 교사 수급이 절박했던 당시 상황에서 취할 수밖에 없었던 비상 조치였을 것이다.

초창기 목포사범학교의 교사는 세 군데에 분산되어 있었다. 주교사는 시내 목포여중 앞에 있던 긴 일자(一字)로 된 구 조선면화 창고를 개조한 것이었다. 먼저 크게 3칸으로 막고, 다시 각 칸을 3칸씩으로 막아 총 9칸을 마련하여 8칸은 교실로 사용하고, 1칸은 다시 구분하여 서무실과 교무실로 사용하였다. 부속 건물로는 숙직실 한칸, 목조 변소 건물 1동(6칸), 세면장 1칸 정도가 고작이었으며, 운동장은 시커먼 연탄재로 뒤범벅된 황량한 곳이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조차 교실이 턱없이 부족하여 일부 학급은 우체국 건너편에 있던 일본식 2층 건물을 개조하여 사용하였으며(일제시대 고급 요정이나 여관집으로 썼던 건물), 그래도 부족한 교실은 현 온금동 선창가 부근에 위치한 허름한 건물을 개조하여 충당하였다.(일본인이 선원 양성소로 사용한 적이 있고 해방 후에는 해양경비원의 초소로도 썼으며, 현 서산초등학교 자리에 위치했던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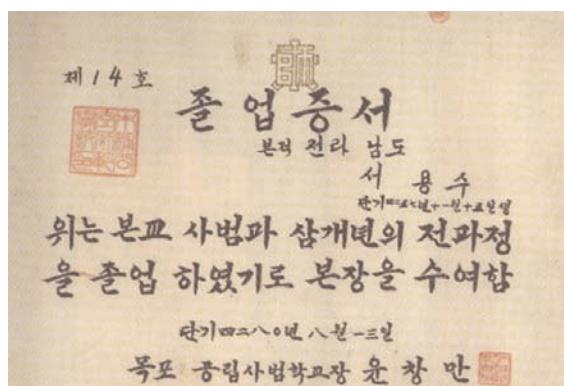


그림 2-1. 졸업증서(19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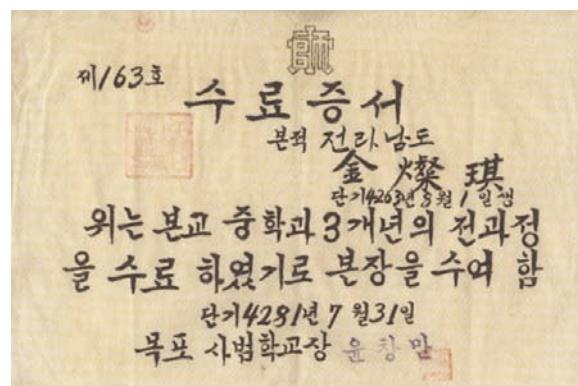


그림 2-2. 수료증서(1948)

이처럼 초창기에는 면화창고, 요정건물, 해양경비초소 등을 전전하면서 겨우 교실 숫자를 채우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실습실이나 교육 기자재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시절이었다. 이렇듯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면화창고를 개조한 구교사는 1950년에 신교사로 이전할 때까지 3년 동안 목포사범학교의 배움터가 되었다.

당시 사범학교의 학제는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6년제를 채택하였는데, 이를 다시 중학과 3년(1~3년)과 사범과 3년(4~6학년)으로 구분하였다. 목포사범학교의 모집 인원은 1~2학년 학년 당 100여명에 달했고, 3~6학년은 학년 당 60여명 정도였는데, 이후에 타 중학교 재학생들을 수시로 태개하기 위해 많은 교원 양성이 시급한 상황이었으므로 불가피한 일이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 이듬해부터는 서남해권의 우수한 학생들이 대거 몰려와 일약 명문학교로 부상하였다.



사진 2-1. 전교생 소풍기념(1949), 군산 저수지 둑에서.

2) 발전기의 목포사범학교

발전기는 정부수립후 1949년에 제정된 교육법에 따라 사범학교가 3년제로 개편되면서 초등교사 양성의 명실상부한 축을 이루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목포사범학교는 용해동에 신교사를 마련하여 제2의 출발을 시작한다.

1948년 8월 15일에 정식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교육 분야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제도 정비가 추진되었다. 1949년 12월 31일을 기해 제정 · 공포된 <교육법>이 그 결과물이었다. 이 교육법에서는 6년제 중학교를 3년제 중학교와 3년제 고등학교로 나눌 것을 규정하였는데, 이에 의거하여 6년제 사범학교는 3년제 병설중학교와 3년제 사범학교로 분리되는 변화를 겪었다. 이와 함께 사범학교에 대한 국가의 투자도 본격화되어 50년대에 들어서는 사범학교는 꾸준히 증설되어 1953년경에는 서울, 인천, 춘천, 강릉,

청주, 충주, 대전, 공주, 전주, 군산, 광주, 목포, 순천, 대구, 안동, 부산, 진주, 제주 등 18개교에 달하게 되었다. 이들 사범학교는 1950년대 우리나라 초등교원양성의 주축을 이루게 되었다.

3년제 사범학교가 출범함과 함께 사범학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본격화 되었다. 목포 사범학교도 1949년부터 목포시 용해동 산 43번지 양을산(일명 비녀산) 아래에 신교사 건축사업을 시작하여 1950년도에 아담한 2층 석조건물이 완성되면서 입주하게 되었다. 이 건물이 바로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이다.

목포사범학교가 신교사를 갖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신교사 신축을 둘러싼 학교측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도 일조했다. 당시 4대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오효근 교장을 필두로 하여 전교직원 및 학생들의 신교사에 대한 관심과 열의는 대단했다. 당시 기성회 상무들은 서무과에 상주하면서 교사 신축을 독려하였고, 기성회 회원권을 발행하여 목포의 유지급 인사들에게 배당하여 판매함으로써 모자라는 공사비에 보태려는 노력도 기울였다.



사진 2-2. 밴드부



사진 2-3. 운동장에서 전체조회



사진 2-4. 교무실 내부



사진 2-5. 학급단체사진(1957), 뒤편에 본관 건물이 보임

3) 쇠퇴기의 목포사범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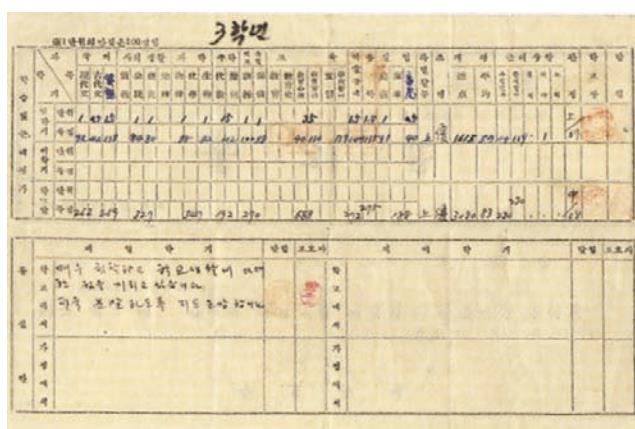
쇠퇴기는 1950년대 후반부터 초등교원의 공급 과잉사태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와 맞물려 사범학교를 초급대학 수준으로 격상시키자는 논의가 일어나면서, 사범학교가 폐교의 길로 접어드는 시기이다.

해방과 더불어 부족한 초등교원 양성을 위해 사범학교가 크게 증설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단기과정을 개설하여 초등교원을 양성한 결과, 50년대 후반부터 차츰 공급 과잉 현상이 새로운 문제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초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문제도 교육계의 절실한 사안으로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초등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2년제 대학으로 승격·개편하고자는 논의가 점차 구체화되어갔다.

1961년도에 들어서 사범학교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고 폐지방침이 기정사실화되자 사범학교 학생 모집이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1959년 · 1960년도에 입학한 사범학교 학생들의 분위기는 극도의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사범학교생으로서의 자부심은 이미 상실되어 있었다.

목포사범학교도 1961년도부터 학생 모집을 중단하고 그 대신 임시적으로 목포실업고등학교로 개편하여 학생을 모집하게 되었다. 결국 1961년도와 1962년도에는 사범학교 교사에 목포사범학교생과 목포실업고등학생이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목포사범학교가 폐교된 후 1년여 만인 1964년 3월 18일을 기해 목포교대가 출범하여 사범학교의 교사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초등교원 양성기구로서의 사범학교의 학맥은 다시 부활하였다. 이와 함께 1년여 동안 사범학교의 교사를 지켜오던 목포실업고등학교는 3년만에 폐교되고, 그 학생들은 목포시내의 각급 고등학교에 분산 배치되었다.



3학년 성적통지서입니다. 표지에는 '3학년'이라는 제목이 있고, 내용에는 학년, 학기, 성적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년은 3학년, 학기는 1학기, 성적은 1학기 성적입니다. 표지에는 학생의 성적과 함께 학교장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림 2-3. 성적통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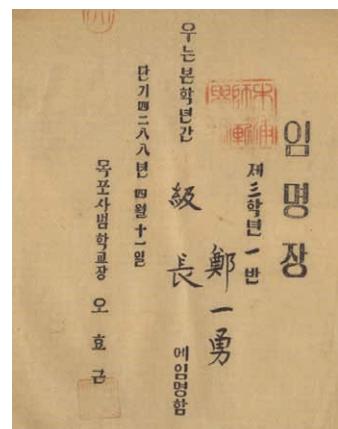


그림 2-4. 임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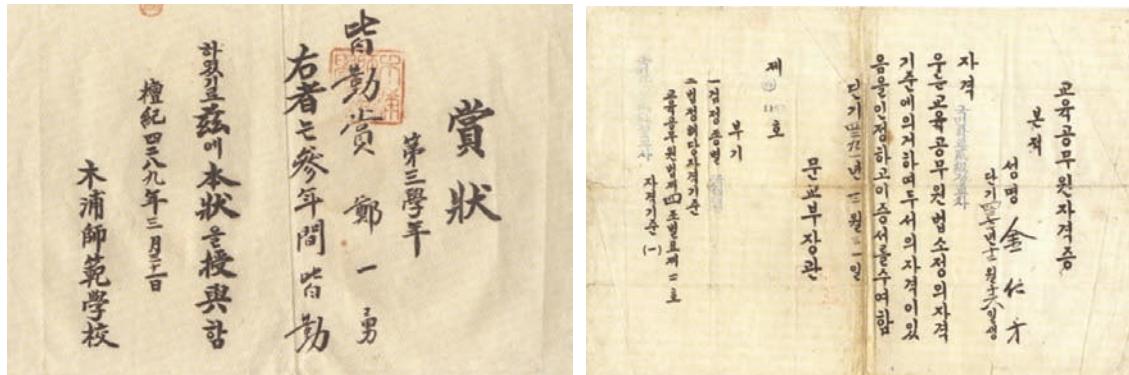


그림 2-5. 삼년개근상장(19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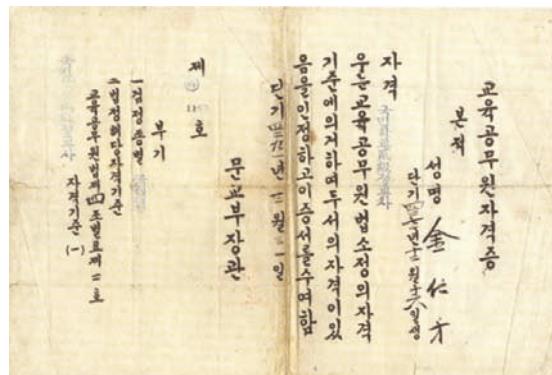


그림 2-6. 초등학교 2급 공교사 자격증(1958)

표 2-1. 목포사범학교의 주요연혁(자료 : 목포대학교 50년사)

년도	주요 내용	기타사항
1945.11	해방 후 미군정청 '조선교육심의회' 구성	
1946.3	'조선교육심의회'-연차적 사범학교 증설 의결	
1946.11	목포사범학교 설립 인가	
1946.12	1학년에서 6학년까지 학생을 일시 모집	
1947.4	첫 입학식(장소: 유달초등학교 강당)	
1947.7	제1회 졸업식(4개월만에 졸업생 배출)	
1947.9	입학식 : 신입생(7회 졸업예정자)	
1948.8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교육분야 제도 정비추진	
1949.12	<교육법> 제정·공포, 이에 의거하여 6년제 목포 사범학교를 3년제 병설중학교와 3년제 사범학교로 나눔	
1950	용해동 산 43번지에 신교사 건축사업 시작, 현 본관의 1/2 부분만 완성됨	
1954	목포사범학교 본관건물 전체완성	
1955.12	정부 '교육특별심의위원회' 구성,	
1957.4	목포사범학교 부속초등학교 개교(현 목포 동초등학교, 산정3동 270-1)	
1957.6	'교육특별심의위원회' 제 11차 전체회의에서 2년제 교육대학을 각 도에 하나씩 설립하여 초등교원을 양성한다는 개선안 결의	
1961	본관 우측 끝으로 교사 증축	
1962.2	목포사범학교와 병설중학교 교사들은 최소의 인원만을 남겨둔채 대거 전라남도로 전보 조치됨	

1962.3	1도 1교 원칙에 따라 전국에서 일제히 2년제 교육대학이 설립되어 사범학교를 대신하게 됨	
1963.2	전국의 사범학교 일괄적 폐지 실시, 목포사범학교 마지막 17회 졸업식 거행(17년만에 2,418명 졸업생 배출하고 폐교조치됨)	
1962.3	목포사범학교의 폐교가 확정되면서 부속초등학교는 '목포 동국민학교'로 개칭되는 형식을 밟아 폐교 조치됨	
1963.2	목포사범학교가 폐교됨에 따라 병설중학교도 폐교됨	
1964.3	목포교대 출범, 구 목포사범학교 교사 이용	

3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 건축내력³⁾

현재의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은 모두 3단계에 걸쳐 완공된 건물이다.

1단계는 목포사범학교 초창기의 간이교사를 마감하고 현재의 위치에 새로운 캠퍼스를 마련하여 1950년에 지은 2층 석조건물이다. 처음 신축당시 이 건물은 현재와 달리 중앙의 홀을 포함하여 서쪽편 1/2만 지어졌다. 즉 반만 지은 셈이다. 당시 반만 지은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경제적 이유 또는 그 정도의 공간이면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었기 때문인지 모른다. 한편 당시에는 현재 앞쪽 아래에 있는 운동장도 조성이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건물 동편 빈공간에서 아침조회 정도를 하였다.

이 신축건물을 당시 학생들은 '백야의 전당'이라고 불렀다. 즉 외부는 비록 돌이지만 내부는 복도 및 강의실 모두가 천장까지 하얀 회로 마감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학생들은 신설 교사의 정비작업을 위한 노역 동원에도 기꺼이 참여했다. 황량한 양을 산에 소나무를 심는 일에서부터, 운동장 축대를 쌓는데 소요되는 흙과 돌을 나르는 일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당시 학생들은 주당 거의 2~3회 정도 동원되었던 노력봉사활동을 스스로 '노작교육'이라고 일컬어 교육의 일환으로 감내하였다.

본 건물의 설계는 송정리 공업학교 출신인 이기만⁴⁾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더 이상 그에 대한 구체적 행적은 알 수 없다.

3) 사진12~16 출처 : 「목포대학교 50년사」, 목포대학교, 2000.

4) **이기만**, 이기만은 손양동과 같은 나이로 둘은 매우 절친한 사이였다. 그는 해방후 현 목포시 창평동 우체국 근처에서 설계사무소를 운영하였다.(손양동 고증) 이기만이 졸업한 송정리 공업학교는 현 광주 송정리 역 근처에 있었던 일제강점기 학교로 현재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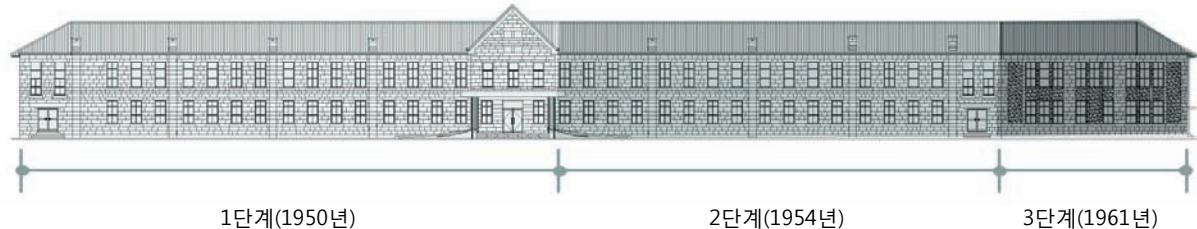


그림 2-7.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 건립 추이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 1단계 신축공사를 맡은 회사는 목포가 아닌 광주소재 건설회사로만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석조공사를 하청받은 기술자는 현재 목포에 거주하고 있는 손양동⁵⁾이다. 본 건물이 석재를 사용한 2층 조적조 구조이기 때문에 석공사는 전체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우 비중이 큰 공사였다. 이 공사는 1949년 봄부터 시작하여 약 1년 정도 걸렸다. 이 건물에 사용된 석재는 현 목포시 산정동 석산에서 채굴한 것으로 이 석산과 본 건물과의 거리는 약 3.5km이다. 당시 말이 끄는 마차를 이용하여 비교적 큰 원석을 현장으로 옮겨와 가공하여 사용하였고 하루 투입된 인원은 기술자를 포함하여 15명 정도였다.(손양동 고증)



사진 2-6. 본관 석조공사를 한 손양동(우측).
그 옆은 대를 이어 석공업을 하고 있는 손창식



사진 2-7. 본관 신축에 사용된 석재를 채굴한 석산
(현 목포 산정동 소재)

5) 孫良銅(1916~). 손양동은 신안 비금에서 출생한 후 바로 목포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목포에 거주하고 있다. 젊어서부터 토건업을 하였고 주로 석공사를 많이 했다. 그는 일본인 坂本吉三郎에게서 기술을 배웠으며 해방후에는 大東土建을 운영하기도 했다. 그는 목포 뿐만아니라 인근 무안, 완도에 까지 많은 석조건물을 지은 이 지역 석조건축의 산 중인이며 현재에도 직접 돌을 다루고 있다. 해방후 그가 지은 대표적 건물로는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1950)을 비롯하여 목포경동천주교회(1954), 완도 수산고등학교 본관(1954), 일로 천주교회(1956), 무안 천주교회(1957), 목포 북교동 천주교회(1958), 목포 산정동 천주교회 및 성콜롬방 병원 부지 석축공사(1961)등 많은 건물이 있다. 손양동의 뒤를 이어 아들 孫昌植도 현재 석공일(환경미술협회 전남지회장, 목포 조각협회장)을 하고 있다. 한편 본 건물 신축공사에 손양동과 함께 일했던 쌍기 석공2인(김성부:82세, 김태일:85세)도 함께 목포시 용해동에 거주하고 있다.



사진 2-8. 1950년에 신축된 목포사범학교 교사. (서쪽편 1/2만 지어졌다.)

2단계는 동편 우측으로 좌측과 같은 규모와 모습으로 완성된 단계이다. 즉 1단계 공사 후 4년후인 1954년에 우측부가 완성되어 좌우 대칭건물이 되었다. 당시 학생수 증가와 함께 다양한 교육공간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1954년 준공 머릿돌이 현재 건물 후면에 있다.

또한 본관 뒤로는 별관까지 지어져 무용실, 미술실, 오르간실, 탁구실 등 다양한 교육 시설로 갖추게 되었다. 이 별관과 본관을 연결하는 ‘오작교’라는 건물도 있었다.



그림 2-8. 단기 4287년(1954) 3월 준공머릿돌. (위치 : 후면 중앙 외부계단 하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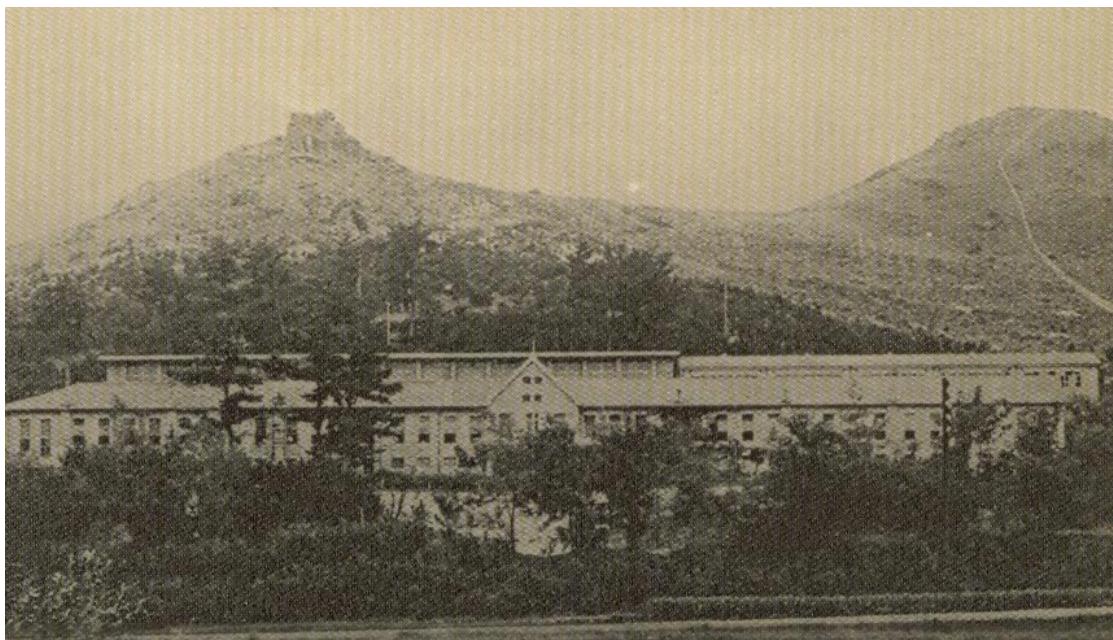


사진 2-9. 우측 까지 모두 완성된 목포사범학교 교사 전경.
(본관건물 뒤로 별관 건물이 있다. 현재 별관 건물은 철거되고 없다.)



사진 2-10. 목포사범학교 본관과 뒤편의 별관을 연결하는 건물.
(‘오작교’라고 부름. 현재는 철거되고 본관에 연결부 흔적만 남아있음)



사진 2-11. 본관 내부복도



사진 2-12. 목포사범학교 교문

3단계는 계속되는 공간수요로 동편으로 새로 교사가 증축된 단계이다. 이 증축부분은 전면은 돌로 되어 있으나 입면 패턴도 기존 부분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정대칭의 균형 있는 기존 입면구성에 다소 어색함이 드러난다. 이 부분은 1960년 12월 27일에 상량하였으므로 완공은 그 다음해 초쯤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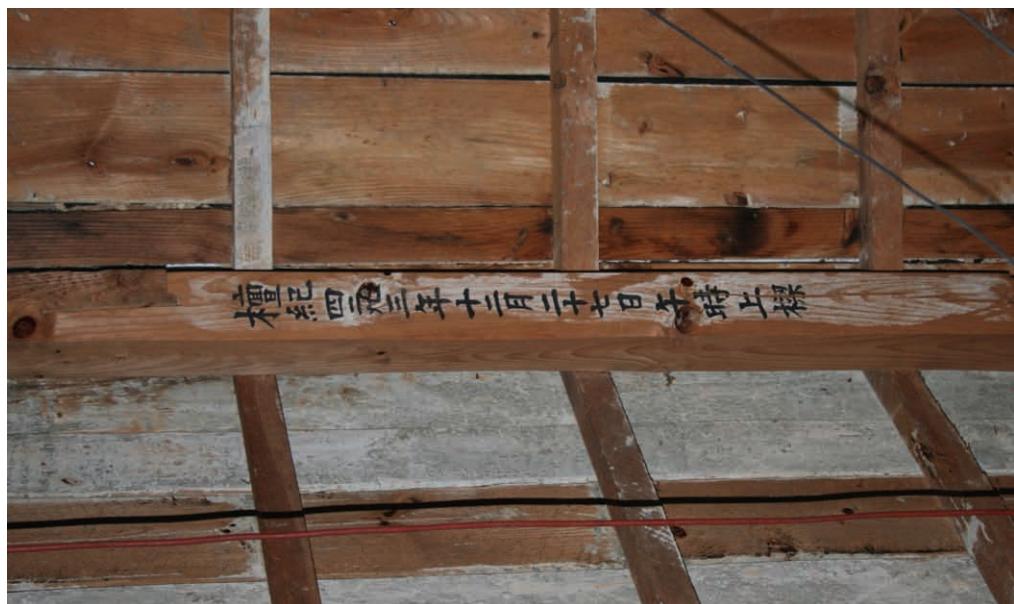


사진 2-13. 우측 증축부 상량문(1960년 12월 27일, 檀紀 四二九年十二月二十七日 午時上樑)

1950년도에 처음 짓기 시작하여 1961년에 마지막으로 전체가 완공된 이 건물은 목포사범학교 제4회 졸업생부터 17회 졸업생까지 총 14기수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이어 목포교육대학에 이어 오늘날 목포대학교 목포캠퍼스(경영·행정대학원, 평생교육원)로 활용되고 있다. 즉 이 건물은 목포대 60여년의 산증인으로 자리하고 있다.

표 2-2.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 사용내역

년도	용 도
1950 ~ 1963	목포사범학교 교사
1964 ~ 1977	목포교육대학 교사
1978	목포초급대학 교사
1979 ~ 1989	목포대학 교사
1990 ~ 현재	목포대학교 교사 (현재 경영·행정 대학원 및 평생교육원으로 사용)

표 2-3.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 최근 보수내역

년도	내 역
1995	외부창호 교체공사 (목재→플라스틱) 내부벽체 마감공사(1층:수성페인트, 2층:합판위 벽지)
1996	지붕재료 교체공사 (기와→아스팔트 싱글)

4

목포의 석조건축과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

목포는 개항(1897)을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진 전형적인 근대도시다. 작은 어촌이었던 이곳에 외국인들이 오면서 큰 변화를 갖게 됐는데 그중 하나가 새로운 건축의 유입이었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석조건축이다.

개항이후 미국 선교사⁶⁾들이 목포에 정착하면서 그들은 사택과 학교, 교회 등을 돌로 지었고 이어서 일제강점기에도 석조건축이 많이 등장했다. 한편 해방후에도 석조건축이 학교, 교회 등 대형건물 위주로 건립됐고 일반인들도 주택의 축대나 담장에 석재를 보편적으로 사용했다. 현재 목포에는 7건의 등록문화재가 있는데 그중 5건이 석조건축이다. 그 만큼 석조건축의 비중이 크고 건축사적 가치도 있다. 아직 문화재로 지정이 안되었지만 목포 문태고등학교 본관과 구도심의 근린상가 등도 주목이 가는 석조건축이다.



사진 2-14. 일반주택 석조 담장. (현재 목포 북교동, 산정동, 남교동 일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표 2-4. 목포의 주요 석조건축

구분	건물명	소재지	건립년도	비고
주택	정병조 가옥	목포시 산정동	1937년	현존
주택	목포 정명여자중학교 구 선교사 사택	목포시 양동	1905년경	현존 (등록문화재 62호)
교육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	목포시 용해동	1950년	현존 (등록문화재 239호)
"	목포 문태고등학교 본관	목포시 용당동	1958년	현존
금융	조선은행 목포지점	목포시 수강동	1924년	1988년 훼철
종교	목포 양동교회	목포시 양동	1910년	현존 (등록문화재 115호)

6) 미국 남장로교회 소속 Bell 목사(1868.4.1~1925.9) 등의 일행은 1898년경에 목포에 정착하면서 선교활동을 시작했다. 그들은 1900년대 초에 살림집 2채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현 정명여학교 100주년 기념관과(등록문화재 62호)과 정명여중 도서관이다. 이 건물은 목포 최초의 석조건물로 의미가 있다.

종교	구 동본원사 목포별원	목포시 무안동	1930년경	현존 (등록문화재 114호)
"	목포 죽동교회	목포시 북교동	1935년	2003년 훼철
"	목포 경동 천주교회	목포시 경동	1954년	현존
"	목포 북교동 천주교회	목포시 북교동	1958년	현존
"	목포 산정동 교회	목포시 산정동	1963년	현존 (일부 보수)
공공	목포 구 청년회관	목포시 남교동	1925년	현존 (등록문화재 43호)
"	남교 · 대성 · 산정 파출소	목포시 남교 · 대성 · 산정동	1930년대	훼철
"	목포형무소	목포시 산정동	일제강점기	훼철
"	목포공생원 본관	목포시 죽교동	일제강점기	현존
"	목포부청 서고	목포시 대의동	일제강점기	현존
"	무안군청 서고	목포시 북교동	일제강점기	현존



사진 2-15. 목포 정명여자중학교 구 선교사 사택



사진 2-16. 목포 보광동 상가



사진 2-17. 목포 양동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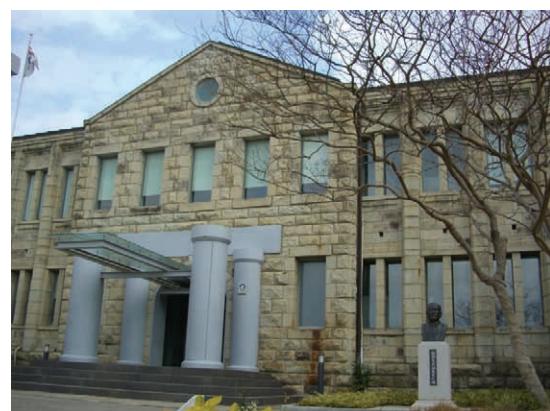


사진 2-18. 목포 문태고등학교 본관



사진 2-19. 구 동본원사 목포별원



사진 2-20. 목포 북교동 천주교회



사진 2-21. 목포 구 청년회관



사진 2-22. 무안군청 서고



사진 2-23. 목포 남교파출소



사진 2-24. 목포부청 서고

개항 이후부터 바로 목포에 다양한 유형의 석조건축이 들어선 이유는 무엇보다도 목포가까이에 있는 풍부한 퇴적암 석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퇴적암은 화강암보다 강도는 떨어지나 우선 가공하기가 쉽고 불에도 강한 편이다. 따라서 일정한 규격으로 가공하여 건축구조재로 사용하는데는 매우 이상적이다. 즉 학교나 교회 등 큰 규모의 건물에는 당시 매우 적합한 건축재료였다.

한편 목포 일대는 내륙과 달리 지리적으로 큰 산이 없기 때문에 석조건축이 쉽게 유행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목포에는 채석장이 크게 2곳이 있었다. 하나는 ‘유달산돌’이라고 하는 유달산 주변의 채석장(뒷개 화장터 부근, 대반동 부근, 현 이훈동 주택 뒤쪽 등)이고, 다른 하나는 ‘형무소돌’이라고 하는 산정동 뒤쪽의 야산이다.(현 중앙 하이츠 아파트 후면) 일반적으로 유달산돌이 형무소돌 보다 2배정도 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900년대초에 지은 선교사 사택과 양동교회가 이 돌로 지은 대표적 건물이다.

산정동 채석장은 일제강점기 초기부터 일본인이 개발한 매우 규모가 큰 석산이다. 이 석산은 초기부터 목포형무소 죄수들이 노역으로 개발한 것으로서 현 산정동 일신아파트 자리에 있었던 일제강점기 목포형무소 건물도 바로 이 석산에서 채석한 석재로 지은 건물이었다. 이곳에서 채석한 돌은 일제 강점기에 매우 광범위하게 쓰여졌고 이는 해방후 까지도 이어져 결국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도 이 돌을 쓰게 된 것이다.

해방후 석조기술자 손양동(주석 5 참조)의 활약도 주목이 간다. 그는 당시 목포지역에서 학교와 교회 등 큼직한 공사를 주도했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본 기록화사업을 하게 된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이다. 그의 이 지역 석조건축에 대한 다양한 고증은 자칫 잊혀질뻔 했던 목포 건축역사를 새롭게 들려주고 있다.



사진 2-25. 목포 경동천주교회.

(손양동 시공, 1954)



사진 2-26. 경동천주교회 준공식 기념사진.

(오른쪽 끝이 손양동, 사진제공 : 손양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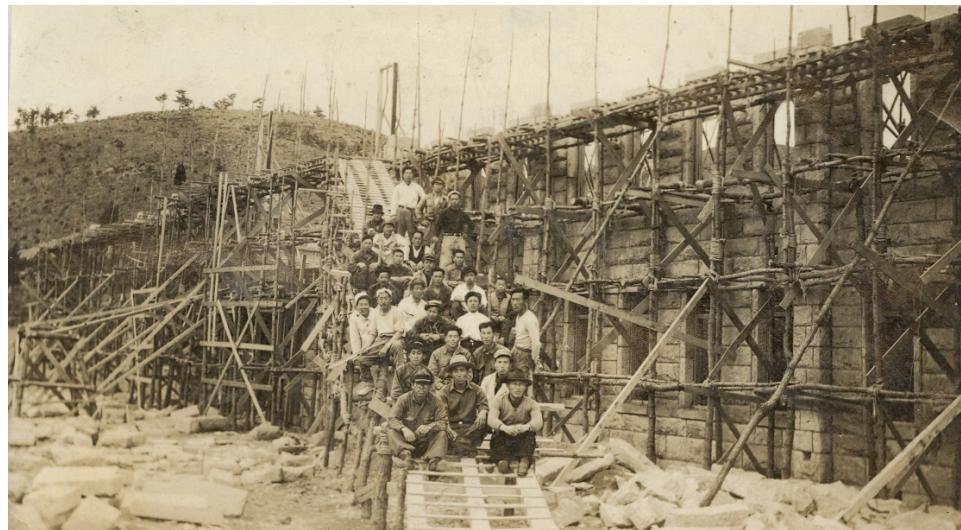


사진 2-27. 완도 수산고등학교 본관 신축현장모습. (손양동 시공, 1954, 이 건물은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과 같은 시공방법으로 지어졌다고 한다. 사진속의 몇몇 기술자는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 신축공사에도 참여하였음. 현재 없음. 사진제공 : 손양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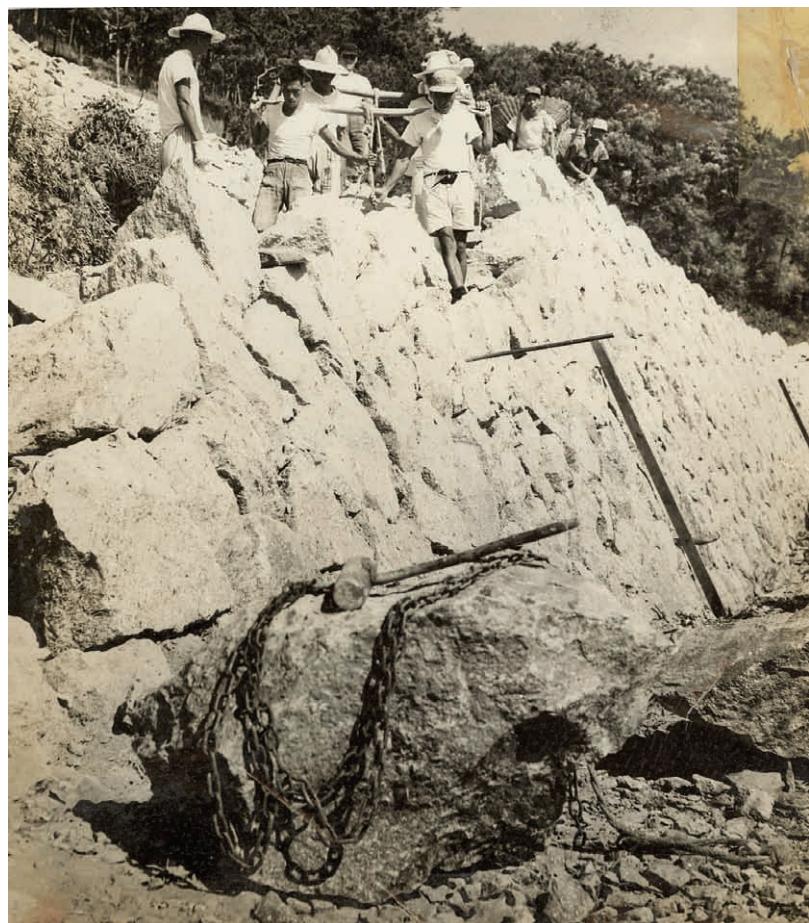


사진 2-28. 석축공사 모습 (목도로 석재를 옮기고 있다. 사진제공 : 손양동)



제3장 건축 및 실측조사

1. 입지환경 및 건물배치
2. 평면구성 및 면적
3. 입면구성
4. 건축구조
5. 건축재료

1

입지환경 및 건물배치

1) 입지환경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은 전남 목포시 용해동 산 43번지에 자리하고 있다. 이 번지는 현재 목포대학교 목포캠퍼스 전체번지이다. 목포시외버스터미널에서 자동차로 약 5분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문 바로 우측에는 광주교대 목포부설초교가 자리하고 있다. 또한 남쪽 건너편에는 1번국도(왕복3차선)가 지나가고 있고, 주변에는 목포MBC와 용해동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다.

목포사범학교가 현 용해동에 신 캠퍼스를 조성한 1950년대 초의 이곳은 도심(현 목포역 부근)과 아주 먼 외딴 곳이었다. 즉, 용해동 일대는 바닷물이 들어오는 벼려진 빨땅이었고 이곳이 매립과정을 거쳐 주거지로 개발되고 시가화가 된 것은 1970년대이다. 이후 목포의 시가화는 국도 1호선을 따라 무안방향으로 이어졌고 현 시외버스 터미널 앞쪽의 '하당'이라는 신도심도 1990년대부터 빨땅을 매립하여 조성한 것이다.



사진 3-1. 구 목포사범대학 본관 주변 시가지(위쪽 산록 부분이 목포캠퍼스)

현재 교문 앞으로는 1~2층의 균린상가와 주택들이 들어서 있다. 지형은 주변 시가지보다 높은 양을산 남측 경사면으로서 전망과 통풍이 양호하여 주변 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본 건물이 있는 이곳에는 큰 노송들이 많이 있어 송림(松林)캠퍼스라고도 부르며 현재 음악과, 미술과 및 경영행정대학원, 평생교육원이 있다.



그림 3-1.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 위치도

2) 건물배치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이하 본관)은 교정 후면 끝에 동·서방향으로 길게 위치하고 있다. 학교 교문을 통해 진입 시 운동장을 좌측에 두고 폭5m정도의 경사로를 따라 진입하게 되어 있다. 이 도로는 본관 바로 앞을 지나 주차장 및 음악관 교사까지 연결된 후, 교정의 가장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는 미술관 A동 교사의 좌측으로 경사지어 연결되어 있다.

본관이 위치하고 있는 목포캠퍼스는 양을산 남측 경사면을 그대로 이용하여 건립된 점에 특히 주목이 간다. 즉, 운동장을 기준으로 10.7m높이에 본관과 음악관, 미술관 B동이 위치하고, 29.3m 높이에 미술관 A동이 위치하고 있다. 이는 1950년 목포사범학교가 이곳에 신 캠퍼스를 조성한 이후 여러번의 학제 개편과 4년제 국립대학으로 승격하면서 이에 필요한 건물을 협소한 대지에 수용하기 위한 대안으로 경사지를 깎아 터를 잡은 것이다.



사진 3-2. 목포대 목포캠퍼스 전경 및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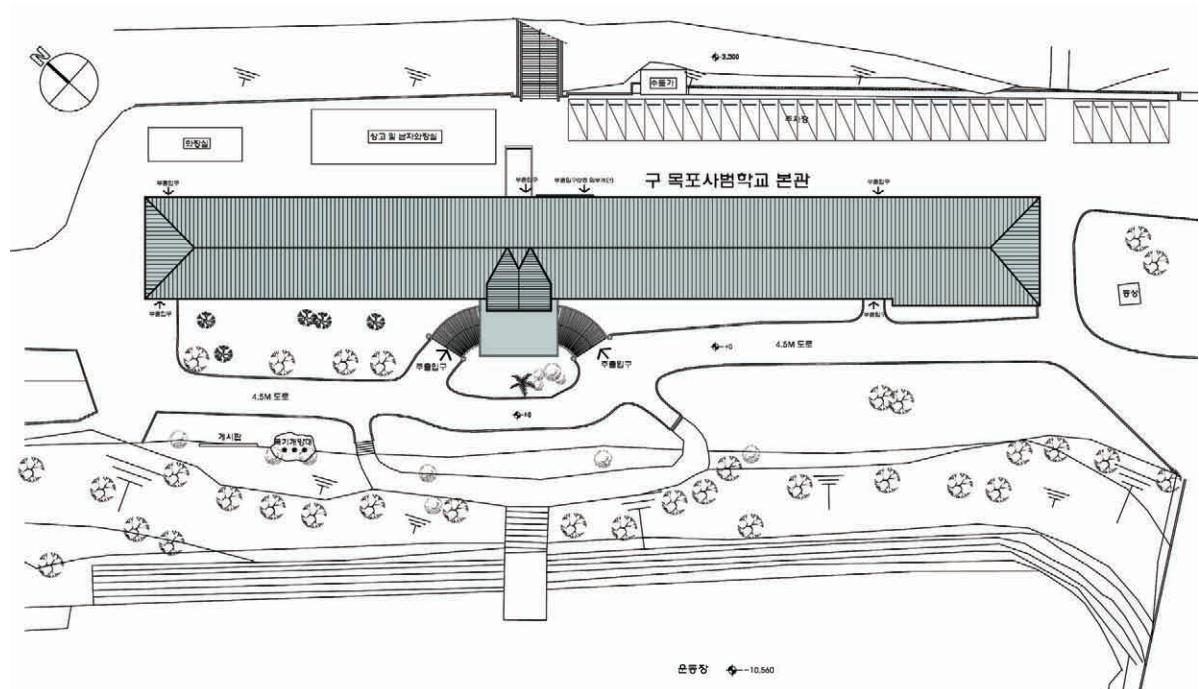


그림 3-2. 배치도



사진 3-3. 캠퍼스 정문



사진 3-4. 운동장에서 본 본관건물



사진 3-5. 본관 뒤편 부속건물



사진 3-6. 본관 뒤편 주차공간

본관 바로 뒤편에는 옥외 화장실과 창고로 사용되는 부속건물이 있고, 20대 정도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구획되어 있다. 그 뒤편으로는 마치 본관을 조심스럽게 감싸듯 울창한 송림이 주변에 형성되어 있다. 또한 본관 정면에는 소나무를 비롯한 각종 나무들이 군집을 이루고 있고 잔디밭과 벤치 등이 있어 학생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휴게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은 조망과 통풍, 향, 지형 등을 고려한 우수한 입지 및 배치환경을 갖고 있다.

2 평면구성 및 면적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은 지상2층의 석조건물로 중앙의 현관을 중심으로 1,2층 모두 같은 규모로 되어 있다. 평면형은 ‘一’자형의 긴 장방형으로 중앙의 홀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 인해 건물이 균형감이 있고 아울러 석조건물다운 중후감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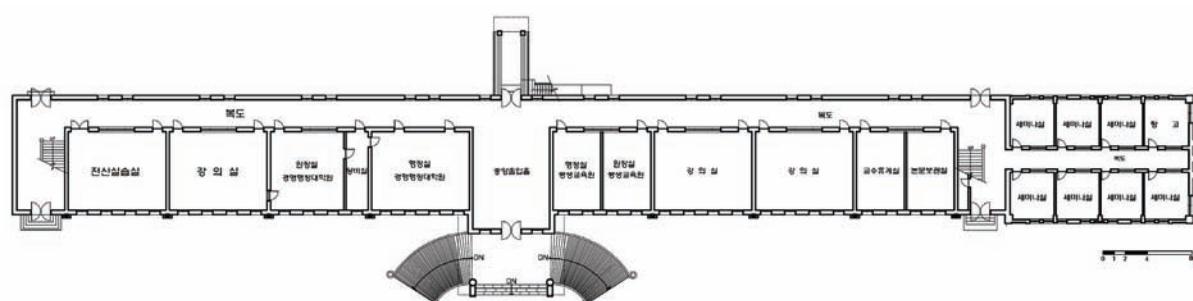


그림 3-3.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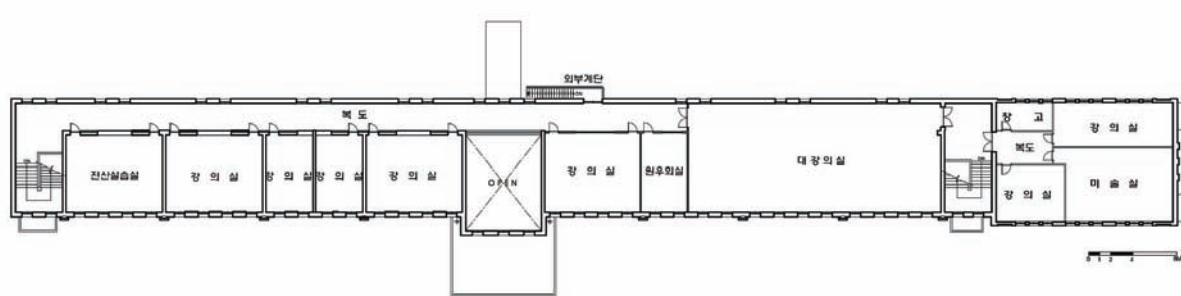


그림 3-4. 2층 평면도

세부적인 평면 모습을 보면 정 중앙에 출입홀이 있고 홀 끝에서 좌·우로 편복도를 두고 남쪽으로 교실을 두었다. 복도의 폭은 2.3m정도로 최근에 짓는 학교의 중복도 정도로 매우 넓다.

중앙의 출입 홀 좌·우로는 각각 4Bay 구조를 적용하여 1층에는 8개의 실, 2층 좌측으로 4개실, 우측으로 1개실(크기 8.7×6.9m)과 3개실을 합쳐놓은 크기의 대강의실이 1개가 있다.

건물 중앙에 있는 출입 홀(7m×8m)은 2층부분까지 오픈시켜 개방감이 있고, 홀 전면과 후면 벽체에 있는 창을 통해서 외부의 빛이 유입되어 밝은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전면 벽체에서부터 1.7m정도 앞쪽으로 더 돌출시켜 내부를 확장한 점에 주목이 간다. 이는 내부의 개방감을 확보하는 측면도 있지만 좌·우로 대칭형을 가진 건물의 중앙 부분의 실크기를 조금 더 확장하여 외부에서의 전체적인 균형감을 주기 위한 기법으로 보여진다.

전반적으로 본 건물의 평면형은 실 구성과 동선 등이 매우 단순하다. 이는 기능성을 우선으로 한 당시 근대 학교건축의 규범이었다.

출입현관 외벽과 그 앞쪽 4.3m 지점에 지름 약 600mm의 원형 기둥 2개를 세우고 평지붕처리를 한 출입 캐노피를 두고 있다. 이곳에는 앞쪽의 3단의 계단과 그 높이만큼의 양측면 경사로를 두어 출입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현재 앞쪽의 3단 (단 높이 : 165mm, 단 너비 : 290~330mm)의 계단부분에는 조경수를 심어 사용을 하지 않고, 양측면의 경사로만을 통해서 출입홀로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사진 3-7. 중앙 현관 캐노피(측면)



사진 3-8. 중앙 현관 캐노피(정면)



사진 3-9. 1층 중앙 출입홀(후면방향)



사진 3-10. 1층 중앙 출입홀(정면방향)



사진 3-111. 1층 강의실



사진 3-12. 2층 대강의실

본관 2층으로 오르는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건물 좌·우 맨 측면에 있는 2곳의 실내 계단실을 통한 방법과 건물 후면 중앙에 설치된 외부계단을 통한 방법이다.

실내 2곳의 계단실 폭은 약 4.18m(안목길이)로 넓은 편이다. 맨 좌측 계단실의 계단은 총 24단인데 비해 중축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우측의 계단실은 총 21개단으로 되어 있어 경사에서 조금씩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좌측의 계단실 평균 25.5도의 경사를 가지는 반면 우측의 계단실은 31도의 경사를 가지고 1층과 2층의 중간에 있는 계단참에 오르게 된다. 전반적으로 계단실 경사가 완만하여 오르내리기에 매우 편안하다. 좌·우측의 계단실의 단 너비, 단 높이, 계단참, 단수는 다음 <표10>과 같다.

표 3-1. 좌우측의 계단실 비교

구분	단 너비 (cm)	단 높이 (cm)	계단참 (cm)	1층에서 계단참까지의 단수	계단참에서 2층까지의 단수	총단수
좌측	27 ~ 31	11 ~ 13	220	16	8	24
우측	28 ~ 32	10 ~ 17	220	12	9	21

외부계단은 본관이 건축된 이후 철근콘크리트조로 추가하여 만든 것으로 보인다.

우측 계단실과 연결된 우측의 증축(1961년)부분은 당시 1,2층이 하나의 큰 교실(강당)이었던 것을 1980년경에 현재의 모습으로 다시 개수한 것이다. 즉, 1층은 중앙에 폭 1.7m의 중복도를 두고 앞뒤로 4개씩의 작은 실($4.0 \times 4.2m$)을 두었고, 2층은 조립식판넬로 내부를 구획하여 크기가 다른 4개의 실을 두었다. 이 증축된 부분은 평면상에서 본관 건물의 외벽 중심선에서 약 80cm 정면방향으로 돌출되어 있다.



사진 3-13. 좌측 계단실



사진 3-14. 우측 계단실



사진 3-15. 외부 계단



사진 3-16. 본관 우측 증축부분



사진 3-17. 1층 복도(증축부분)



사진 3-18. 2층 복도(증축부분)

표 3-2.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 평면구성 및 면적

구분 층별	실 명	면적		비고
		m ²	평	
지상 1층	본관	전산실습실(101호)	66.43	20.08
		강의실(103호)	66.43	20.08
		경영행정대학원 원장실	49.97	15.11
		탕 비 실	16.46	4.97
		경영행정대학원 행정실	66.43	20.08
		평생교육원 행정실	33.22	10.04
		평생교육원 원장실	33.22	10.04
		강의실(108호)	66.43	20.08
		강의실(109호)	66.43	20.08
		교수휴게실	33.22	10.04
		논문보관실	33.22	10.04
		계단실(좌측)	45.96	13.89
		계단실(우측)	45.96	13.89
		중앙 출입홀	82.80	25.04
		복 도	203.84	61.64
소 계		910.02	275.1	
지상 2층	증축부분 (우측)	세미나실(112호)	18.69	5.65
		세미나실(113호)	18.69	5.65
		세미나실(114호)	18.02	5.45
		세미나실(115호)	18.02	5.45
		세미나실(116호)	18.69	5.65
		세미나실(117호)	18.69	5.65
		세미나실(118호)	18.02	5.45
		창 고(119호)	18.02	5.45
		복 도	33.00	9.97
		소 계	179.84	54.37
합 계		1,089.86	329.47	
지상 2층	본관	전산실습실(201호)	66.43	20.08
		강의실(202호)	66.43	20.08
		강의실(204호)	66.43	20.08
		강의실(203호)	33.11	10.04
		강의실(205호)	33.22	10.04
		강의실(206호)	66.43	20.08
		경영행정대학원 원우회실	29.20	8.83

	대강의실(208호)	235.33	71.16	
	계단실(좌측)	45.96	13.89	
	계단실(우측)	45.96	13.89	
	복 도	56.70	17.15	
소 계		745.2	225.32	
증축부분 (우측)	강의실(209호)	34.32	10.38	
	미술실(210호)	67.32	20.36	
	강의실(211호)	45.10	13.64	
	창 고(212호)	14.85	4.49	
	복 도	158.76	48.01	
소 계		320.35	96.88	
합 계		1,065.55	322.2	
총 계		2,155.41	651.67	

3

입면구성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은 전체적으로 중앙부의 높은 박공지붕을 중심으로 균형감을 둔 좌·우 대칭 건물이다. 특히 일정하게 같은 간격으로 쌓은 석재열과 굴뚝이 입면 구성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석재의 거친 흐두기 마감도 건물의 중후감을 느끼게 한다. 또한 각 bay별로 1,2층에 설치한 세로수직창(95×232cm)도 중앙의 박공지붕, 8개의 굴뚝과 함께 건물 입면구성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즉 이 건물은 대칭이 주는 균형미와 함께 105.6M 길이의 장대한 규모도 파사드 구성의 한 특징이 되고 있다.



사진 3-19. 정면



사진 3-20. 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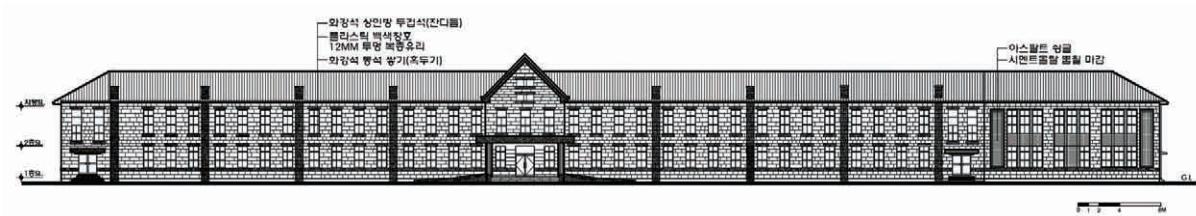


그림 3-5.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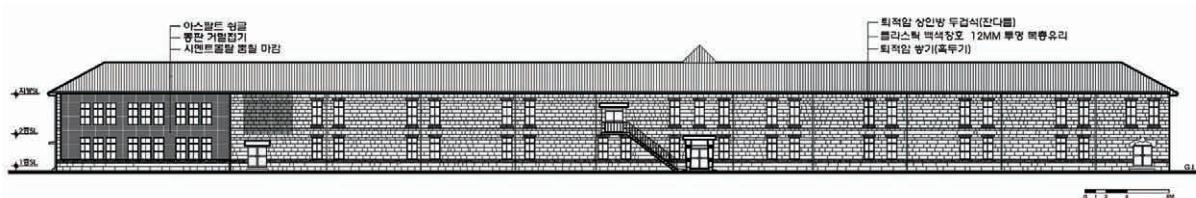


그림 3-6.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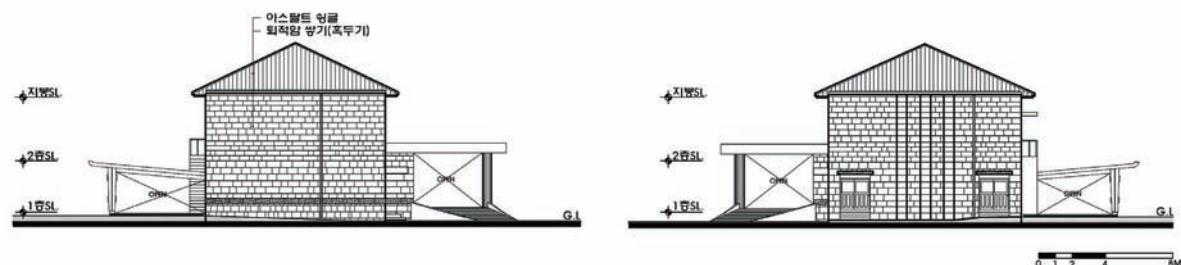


그림 3-7. 좌측면도와 우측면도

사진 3-21. 정면 1층 상세. (상인방과 하부
돌림띠는 잔다듬으로 되어있다)

사진 3-22. 정면 중앙 박공

지붕의 전체 형태는 중앙 출입홀 상부는 앞쪽으로 박공면을 둔 경사가 급한 맞배형으로 처리하고 그 외 양측면은 우진각형으로 되어 있다.

중앙부의 높은 박공지붕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균형감이 있는 입면구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전면 벽채 선에서 30cm정도 돌출되게 나와 있는 방형의 굴뚝을 좌·우로 각각 4개씩 설치하여 입면을 분절시키고 있다. 이 굴뚝은 지붕 위까지 돌출되어 있다. 당시 내부에 설치된 화로의 연통과 연결되어 외부로 연기를 내보내는데 사용됐다. 1층 하단부에는 굴뚝 청소 구가 남아있다. 굴뚝 내부에는 지름12cm의 콘크리트 관으로 추정되는 2개의 관이 지붕상부까지 이어져 연기 등이 이를 통해 배출되도록 되어 있다.



사진 3-23. 지붕 상부로 돌출된 굴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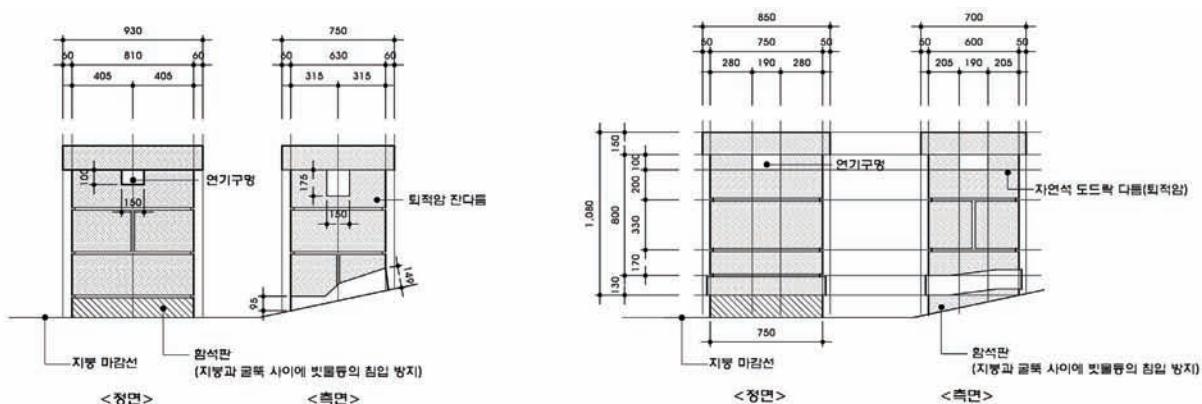


그림 3-8. 굴뚝 입면 상세도. (좌 : 중앙에서 좌측 2열, 우 : 중앙에서 우측 2열)

건물 정중앙 현관 앞쪽에 2개의 원형기둥을 세우고 평지붕 처리한 캐노피도 본 건물의 입면구성에 주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한편 후면 출입구에 설치된 역동적 형태의 콘크리트 캐노피가 눈에 띈다. 후면 벽체에서 약 7m정도로 길게 나와 있는 이 캐노피의 끝부분은 하늘로 자연스럽게 향하듯 치솟아 올라가 있어 자연스레 역동적인 느낌을 더해준다.

이 캐노피를 받치고 있는 2개의 기둥 앞, 뒷면에 2개씩 총 8개의 작가 미상의 조각 작품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기둥은 30cm × 30cm × 33cm의 육면체 위에 아랫면 36cm × 36cm, 윗면 52cm × 52cm의 사다리꼴형이 올라가 있어 심미한 조형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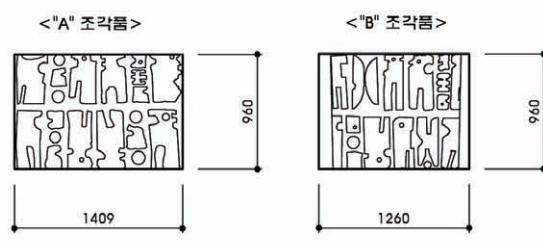


그림 3-9. 기둥에 설치된 조각 작품 1



사진 3-24. 후면 출입구 캐노피를 받치는 2개의 기둥



사진 3-25. 기둥에 설치된 조각 작품 2



그림 3-10. 후면 중앙 출입구 캐노피 기둥

건물 맨 우측의 증축된 부분은 정면과 배면, 측면이 서로 다른 건축재료를 사용하여 다양한 입면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정면의 1층 수직창 부분은 노출콘크리트와 같은 느낌의 모르타르 마감처리가 되어 있고 후면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거친 시멘트 뽐칠로 되어 있다. 한편 측면은 중앙으로 돌출기둥 모양의 세로띠를 두어 단조로운 입면에 변화를 주었다.

그리고 배면에는 과거 본관 뒤편의 별관과 연결하던 이동통로, 즉 오작교가 철거된 부분을 볼 수 있다. 이곳은 다시 벽체로 마감하였지만 주위의 석재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증축부분의 입면은 본관 전체의 입면구성에 이질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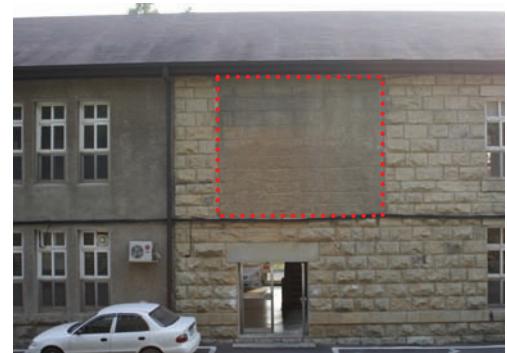


사진 3-26. 오작교와 연결부였던 본관2층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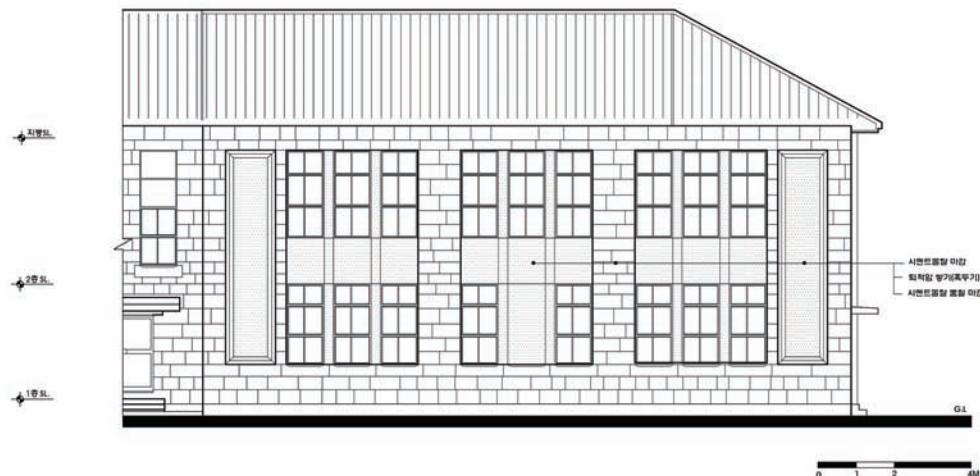


그림 3-11. 우측 증축부 정면



그림 3-12. 우측 증축부 배면



78

사진 3-27. 증축부분 정면



사진 3-28. 증축부분 배면

4

건축구조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의 건축구조는 내·외벽은 2층까지 석재를 사용한 조적식이며, 2층 바닥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이고 지붕들은 목조트러스 구조로 되어 있다. 석재를 사용한 조적식과 지붕의 트러스 구조는 1900년대 초부터 목포에 등장했고, 콘크리트 구조는 주로 해방 후에 정착이 됐다.

외벽의 돌쌓기는 처마 밑까지 모두 22켜로 되어 있고 수직 줄눈은 돌의 크기가 달라 일정치 않다. 벽체는 비교적 규격화된 대형석재를 사용하였고 문과 창 등 개구부에는 상·하로 잘 가공된 장대석을 두어 벽체 하중을 견디게 했다.

지면으로부터 900mm 지점(4번째 켜)에는 우측면만 제외하고 건물전체에 둘레석을 50mm로 돌출되게 시공하였고, 이것은 1층 창문의 창대 역할을 겸하고 있다. 둘레석의 크기는 높이 300mm, 두께 350mm, 길이는 940mm이다. 창대역할의 둘레석은 길이만 1,200mm로 길고 윗면에는 단부에 곡을 두어 물흐름을 좋게 했다. 표면 마감은 모두 잔다듬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우측(동측) 중축부의 표면마감은 흑두기로 되어있어서 차이가 난다.

벽체 내부(벽)는 처음 건립당시 전체를 미장으로 마감하였다. 즉 각기 다른 성분을 지는 물탈을 3중으로 시공하였다. 맨 밑으로는 황토층이고, 그 다음 층은 백회+모래+시멘트로 구성되었으며, 마무리는 순수 백회층으로 되어있다. 황토층의 두께는 대단히 편차가 큰데 이는 실내쪽으로 향한 석재의 표면이 정교하지 않은 것과 석재의 크기 차이에 따른 요철을 메우는 역할에서 파생된 듯하다. 즉 석재의 정교한 가공 대신 두꺼운 황토층으로 표면을 고르는 효과를 창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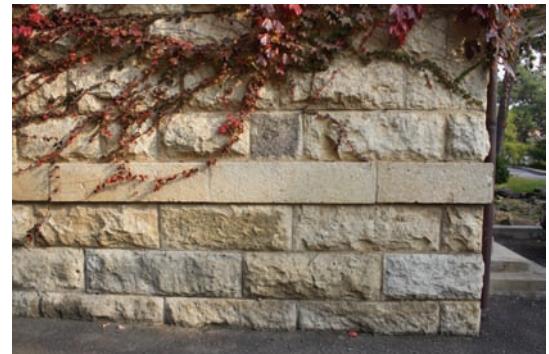


사진 3-29. 외벽 돌쌓기(하단부에 둘레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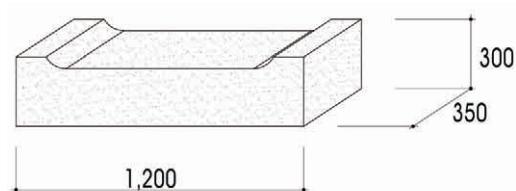


그림 3-13. 창대 크기



사진 3-30. 창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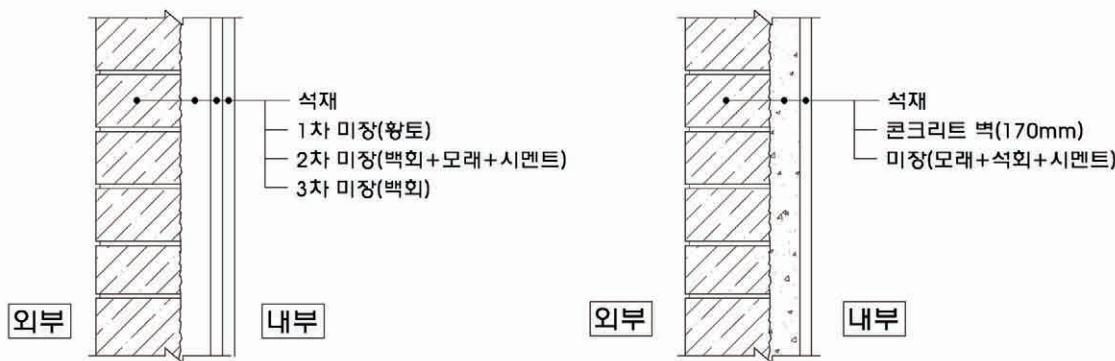
황토벽위에는 모래, 백회, 시멘트를 섞은 몰탈로 중간 미장을 하였다. 황토미장에 균열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황토가 어느 정도 말라 균열이 간 후에 중간미장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중간 미장위에는 고운 백회로 마무리 미장을 하였다.

이처럼 황토를 이용한 미장공사는 두가지 장점을 지닌다. 첫째는 석재 두께의 차이와 표면의 요철을 손쉽게 보완하고, 둘째는 뛰어난 단열효과를 보여준다. 전통적인 목조건축에서 응용한 황토미장은 방음효과와 실내 습도조절에도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1차 황토미장 시공은 석공사를 맡은 손양동이 본 건물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다. 당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공법을 개발한 것이다. 퇴적암은 흡수율이 좋기 때문에 황토와의 접착성이 매우 우수하다. 그리고 돌의 거친 면을 1차로 고르는 데도 황토는 아주 적합한 재료였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손양동이 시공한 목포 경동천주교회(1954년)는 본 건물과 다른 마감으로 주목이 간다. 즉 안쪽면에 지름 23mm 정도의 잔골재를 사용한 두께 170mm 정도의 콘크리트 벽을 시공하고 그 위에 모래+석회+시멘트 몰탈 미장을 하였다. 콘크리트 시공은 약 1m 정도 석조 벽체가 올라가면 거푸집을 대고 타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벽체를 완성시켰다. 이는 목포사범학교 본관 건물과는 전혀 다른 시공법으로 손양동은 계속하여 일로 천주교회(1956), 무안 천주교회(1957)도 같은 형식으로 시공했다.

현재 건물의 내·외벽체 두께는 건립당시보다 상당히 두꺼워졌다. 1995년의 보수과정에서 1층의 경우는 실내쪽으로 시멘트 벽돌을 쌓고 시멘트 몰탈 미장을 하여 현재 460mm(석재 두께 : 300mm) 정도가 되고 2층은 시멘트 벽돌을 쌓고 미장대신 합판으로 마감을 하여 총 400mm(석재두께 : 200mm) 정도가 된다. 내벽의 경우도 외벽과 상황이 비슷한데 1,2층 모두 교실과 교실사이에는 310mm($\pm 10mm$), 복도와 교실사이에는 450mm가 된다.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 벽체 단면>

<목포 경동 천주교회 벽체 단면>

2층 바닥은 철근콘크리트 보를 걸고 콘크리트 슬라브로 처리하였다. 보 간격은 2.27m로 매우 좁으며 복도 쪽은 중간에 하나씩 줄여 4.55m간격으로 하였다.

보는 별도의 콘크리트 기둥 없이 모두 돌 위에 올려져 있다. 보와 벽체와의 연결부위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돌을 쌓으면서 보가 놓여질 자리를 비워두고 보 설치가 끝나면 다시 그 위로 돌쌓기를 계속 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보의 종류는 모두 같으며 크기는 폭이 370mm이고 춤은 560mm이다. 한편 교실과 복도 보 모두에는 단부에 현치를 두어 구조적 안정성을 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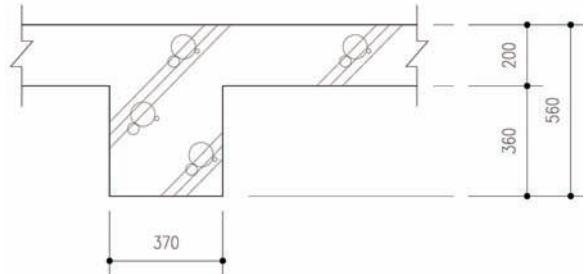


그림 3-15. 철근 콘크리트 보 크기
그림 3-15. 철근 콘크리트 보 크기



사진 3-31. 현치를 둔 복도상부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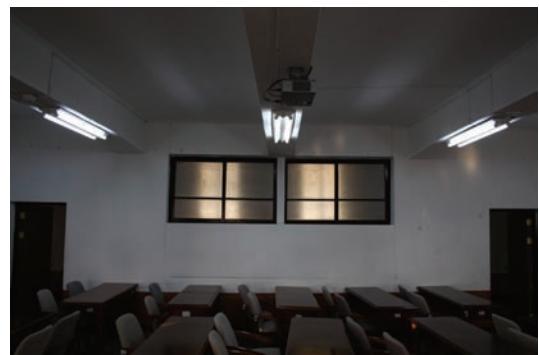


사진 3-32. 강의실 내부의 보와 슬라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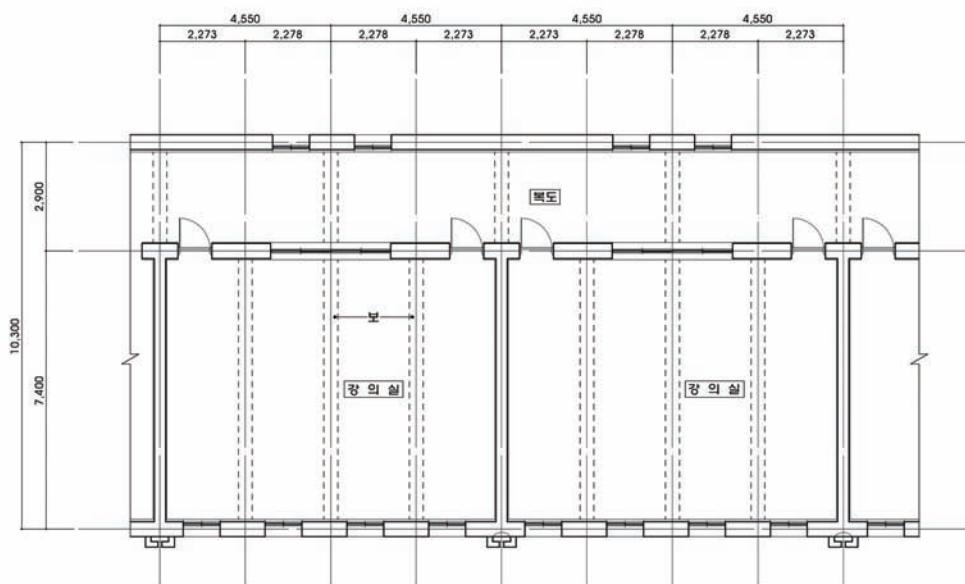


그림 3-16. 철근콘크리트 보 위치

지붕틀은 육송을 사용한 왕대공 트러스 구조로 되어 있다. 목조 왕대공 트러스는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됐던 구조로 그 대표적 사례로는 구 호남은행 목포지점(1929)을 들 수 있다.

트러스 전체크기는 가로(평보)가 10.900mm이며 높이(왕대공)는 3,070mm이다. 트러스는 1.7m 간격으로 모두 59개가 설치되어 있다. 주요부재의 크기는 왕대공 160×105mm, 人자보 100×60mm, 평보 100×60mm, 달대공 90×120mm, 빗대공 90×120mm, 도리 100×100mm, 마루대 140×100mm, 지붕널 300×15mm 이다. 부분적으로 Ø100mm의 통나무를 평보가새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평보에는 두 개의 덧판 (60×170×1,270)이 씌워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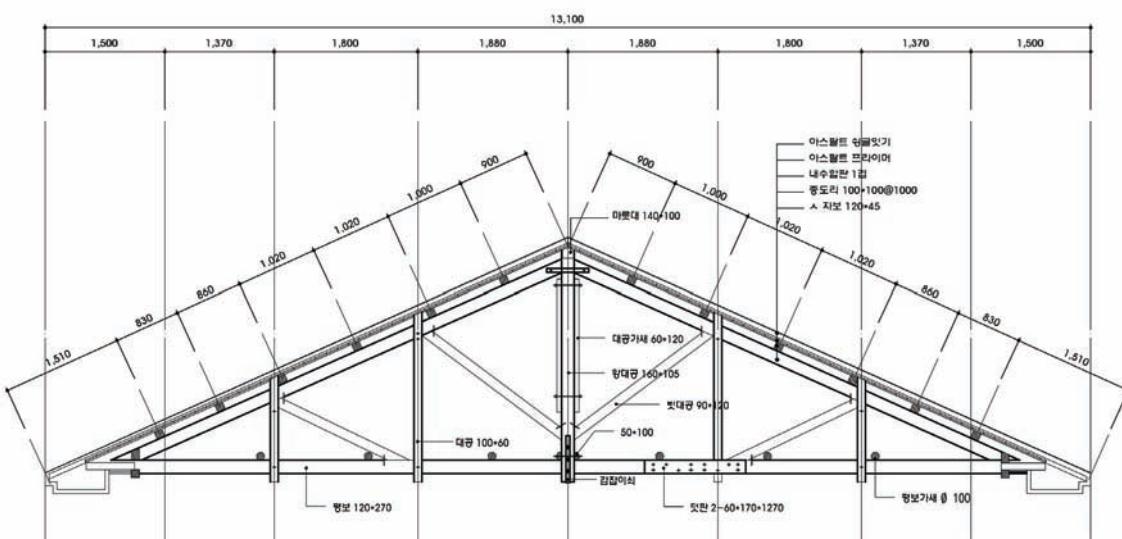


그림 3-17. 지붕 왕대공 트러스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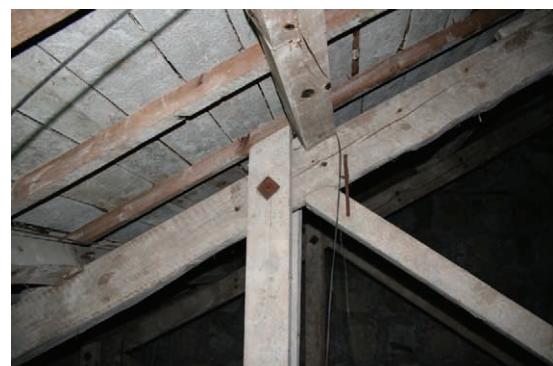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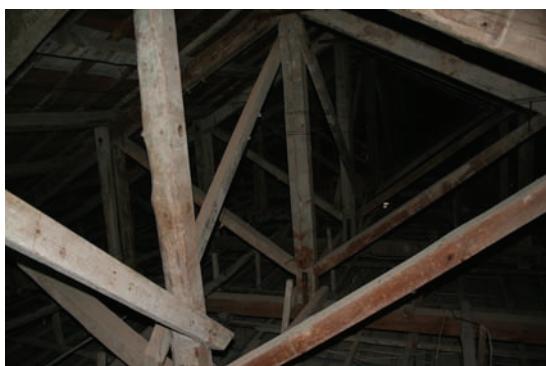


사진 3-33. 왕대공 트러스 전경

사진 3-34. 지붕널과 중도리



사진 3-35. 왕대공



사진 3-36. 왕대공과 평보



사진 3-37. 왕대공과 S자보



사진 3-38. 평보와 감잡이쇠

5

건축재료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은 석조건물로서 건축의 주재료 역시 석재이다. 본 건물에 사용된 석재는 이미 산지(목포시 산정동 석산)가 확인되어 있고 이 돌은 쳐트, 점토질암, 사암, 백

운암 등의 결정체가 모래 크기에서 작은 자갈크기로 섞여있는 퇴적암⁶⁾이다. 색깔은 담황색 계열로 비교적 밝다.

석재의 크기는 건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나 보통 대형과 소형, 그리고 특수형으로 분류된다. 목포 석조건축의 경우 대형은 학교의 외벽에, 소형은 학교 내벽(간막이벽)과 교회, 주택 등에 사용됐다. 특수형은 문과 창문틀에 사용되는 것으로 설계에 의해 특별히 제작되며 보통 가공정도가 정교하다. 본 건물 역시 창 상부 인방에 특수형이 사용됐다.

본 건물의 벽체에 사용된 석재는 대형이다. 건물 규모가 크고 2층이었기 때문에 큰 돌을 사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크기(혹두기 부분 제외)는 1층 외벽에 사용된 것은 높이 360mm(± 10 mm), 깊이(두께) 300mm이고, 2층은 높이는 1층과 같고 깊이만 100mm 줄어든 200mm이다.

2층 돌의 두께를 줄인 것은 시공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2층 작업은 운반, 축조 등에 있어 1층보다 무척 힘들기 때문이다. 구조적으로는 1층에 큰 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석재 길이는 위치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 (480mm, 710mm, 910mm, 1,040mm, 1,090mm, 1,200mm, 1,280mm 등) 보통 760mm 정도를 제일 많이 사용했다. 줄눈 폭은 가로 및 세로 모두 2cm정도다. 내벽의 석재크기는 일정치 않다.

석조건축에서 석재의 크기와 가공상태는 건축의 입면과 구조 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현존하는 목포 주요 석조건축의 석재크기를 보면 본 건물에 사용된 석재가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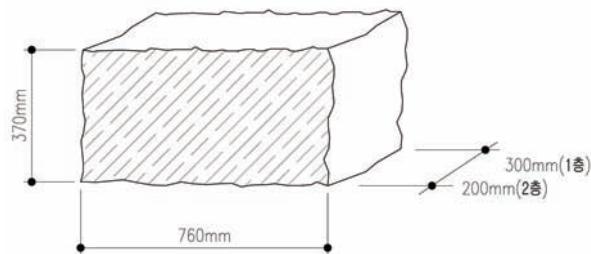


그림 3-18. 석재 기본 크기(외벽)



사진 3-39. 현장조사시 확인된 건축재료(석회 등)

6) **퇴적암(堆積巖)** : 부스러진 암석의 작은 덩어리나 생물의 유해 따위가 물속이나 육상에서 열과 압력을 받아 퇴적되어 만들어진 암석. 사암(沙巖), 이판암(泥板巖) 등이 있다. 물밑에 퇴적되어 굳어진 것은 수성암(水成巖)인데 퇴적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화성암(火成巖)에 대비되는 말이다. 화성암은 땅속의 마그마가 분출하여 굳어진 암석으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화강암도 화성암의 한 종류이다. 화강암은 최근에 현대건축의 외장재, 계단석 등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표 3-3. 목포 주요 석조건물의 석재 크기 및 표면상태

건물명	층수	건립년도	크기			표면상태	비고
			높이	두께	길이		
목포 정명여자중학교 구 선교사 사택	2층	1905년	300	240	400내외	혹두기	
목포 양동교회	2층	1910년	300	230	400내외	혹두기	
구 동본원사 목포별원	1층	1930년경	260	210	900내외	잔다듬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	2층	1950년	370	300(1층) 200(2층)	760 (480~1,280)	혹두기	길이는 매우 다양
목포 경동교회	2층	1954년	150, 250 300, 450	170~230	340~560	혹두기	매우 다양한 크기의 석재를 위치에 관계없이 사용, 높이 450mm 석재는 맨 하단부에만 사용
목포 문태고등학교 본관	2층	1958년	280, 370(하단3열)	400	440, 590 900	혹두기, 잔다듬 (정면 일부)	독특한 입면 구성에 맞추어 다양한 석재사용

석재의 표면은 혹두기(Rustication)가 있는 거친 마감으로 되어 있다. 혹두기 부분의 두께는 편차가 매우 심해 50mm부터 시작하여 아주 거친 부분은 150mm까지 된 것도 있다. 그러한 이유는 석재 가공시 큰 돌에서 자를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면을 그대로 겉(표면)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석재 가공에 있어 벽의 안쪽면 높이는 바깥쪽면 보다 보통 30mm정도 얕게 가공한다. 이는 시공시 수평을 잡기 위해 돌조각을 끼우는 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미장시 몰탈이 내부로 스며들게 하기 위함이다.

본 건물의 실내면은 본래 백회 몰탈로 매끈하게 마감되어 있었으나 탈락현상이 심하여 1995년에 2층은 벽체에 합판을 두르고 그 위에 벽지를 빌라 처리하였고, 1층 내부벽체는 수성페인트로 새롭게 마감하였다.



사진 3-40. 목포 정명여자중학교
구 선교사 사택 벽체

각 bay별로 1,2층 모두에 95×232cm 크기의 외부 목재 세로창(오르내림)을 4개씩 두었는데 목재의 뒤틀림과 썩은 부분이 많아져서 1995년경 전체적으로 같은 크기의 플라스틱 창호로 교체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복도쪽의 내부 창문은 건립 당시의 목재창호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다.

지붕은 본래 기와였으나 1996년 태풍피해로 인해 모두 파손되어 같은 해에 기와를 모두 철거하고 거기에 스티로폼과 합판을 대고 아스팔트 싱글로 마감하였다.

2층 천정은 현재 트러스 하부 평보에 철물을 달고 석고텍스로 마감되어 있다. 그러나 본래는 트러스 하단의 판재에 회반죽으로 마감한 천장이었다.

바닥은 현재 대부분 인조석 물갈기로 마감되어 있다.



사진 3-41. 복도에서 본 내부 목재창



사진 3-42. 아스팔트 싱글 지붕(외부)



사진 3-43. 지붕틀 내부 판재



사진 3-44. 2층 내벽 합판위 벽지마감



사진 3-45. 인조석 물갈기 마감

표 3-4.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 재료마감

구분 층별	실명	마감			
		벽	바닥	걸레받이	천정
지상1층	전산실습실(101호)	미장 위 수성페인트마감	인조석물갈기	미장 위 페인트	미장 위 페인트
	강의실(103호)	“	“	“	“
	경영행정대학원 원장실	“	“	“	“
	탕비실	“	“	“	“
	경영행정대학원 행정실	“	“	“	“
	평생교육원 행정실	“	“	“	“
	평생교육원 원장실	“	“	“	“
	강의실(108호)	“	“	“	“
	강의실(109호)	“	“	“	“
	교수휴게실	“	“	“	“
	논문보관실	“	“	“	“
	계단실(좌측)	“	“	“	“
증축 부분 (우측)	계단실(우측)	“	“	“	“
	복도	“	“	“	“
	세미나실(112호)	미장 위 수성페인트마감	인조석물갈기	미장 위 페인트	미장 위 페인트
	세미나실(113호)	“	“	“	“
	세미나실(114호)	“	“	“	“
	세미나실(115호)	“	“	“	“
	세미나실(116호)	“	“	“	“
	세미나실(117호)	“	“	“	“
	세미나실(118호)	“	“	“	“
	창고(119호)	“	“	“	“
	복도	“	“	“	“

지상2층	본관	전산실습실(201호)	미장 위 5mm 무늬합판, 합판 위 인테리어벽지 마감	인조석물갈기	미장 위 페인트	텍스
		강의실(202호)	”	”	”	”
		강의실(204호)	”	”	”	”
		강의실(203호)	”	”	”	”
		강의실(205호)	”	”	”	”
		강의실(206호)	”	”	”	”
		경영행정대학원 원우회실	”	”	”	”
		대강의실(208호)	”	”	”	”
		계단실(좌측)	”	”	”	”
		계단실(우측)	”	”	”	”
증축부분 (우측)		복 도	”	”	”	”
		강의실(209호)	미장 위 수성페인트 마감, 조립식판넬	인조석물갈기	미장 위 페인트	텍스
		미술실(210호)	”	”	”	”
		강의실(211호)	”	”	”	”
		창 고(212호)	”	”	”	”



제4장 종합고찰

1. 역사 및 건축적의미
2. 보존 및 활용방안

1

역사 및 건축적 의미

목포는 분명 1897년 10월 1일 개항을 통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진 도시다. 개항전 목포는 무안현 소속으로 해안가 어느 마을처럼 몇 집호가 모여 사는 한적한 어촌이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목포는 조선 초 군사적 요충지로 인정되어 1439년(세종21)에 木浦鎮이 설치되어 1895년(고종 32)까지 운영된 바 있다. 그 터는 유달산 남쪽 기슭과 연결되는 높은 구릉지로서 옛 일본 조계지와 바로 인접해 있다. 1987 12월 목포에 처음 온 초대 영사 久水三郎이 목포진에 있던 한옥에서 한 달 정도 영사업무를 보았다. 즉, 목포진은 전통에서 근대로 이어지는 운명의 공간이 되기도 했다.

건축물은 시대적 산물로 시간의 흔적을 기억하고 있다. 즉 건축에는 기능성, 장소성, 시대성이라는 요소가 있어 한 시대 또는 한 사회의 역사적 현장이 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목포의 근대건축은 목포역사의 발원으로 큰 의미가 있다.

근대 교통의 중요한 수단인 자동차와 기차 등이 목포에 나타나고 목포극장과 평화관에서는 대중들에게 영화 등 각종 공연을 보여주었다. 이난영의 레코드가 목포 거리에 울려 퍼졌다. 즉, 목포가 근대문명의 이기를 만난 것이다. 거기에는 건축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목포가 근대도시로 발돋움하는 과정에는 미국 선교사들의 역할이 컸다. 벨 목사 등은 당시 거의 버려져있던 공동묘지 근처의 언덕배기 땅을 아주 싸게 구입하여 학교와 교회, 그리고 그들의 사택을 지었다.(현재 정명여학교 근처) 이로 인해 도시의 영역이 쉽게 넓혀져갔고 시민들은 근대성을 빠르게 접했다.

목포에 나타난 건축의 근대성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한국의 전통한옥이 시대에 맞게 평면과 구조 등이 변한 것이고, 두번째는 석재나 벽돌, 타일의 건축재료 사용의 다양성에 있다. 세 번째는 준 르네상스 형식 등 다양한 서구건축 양식이 건축에 도입된 것이다. 이러한 모든 현상은 식민제국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사회현상 속에서 목포가 근대도시로 성장하는 필연적인 도시역사의 한 과정으로 나타난 것이다.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은 해방이후 우리기술자(손양동)에 의해 지어진 이 지역 최초의 대형 공공건물이었으며 아울러 목포 석조건축의 변천사를 엿 볼 수 있는 귀중한 유적이 되고 있다. 즉 목포는 1897년 개항과 더불어 외국인(미국, 일본)에 의해 석조건축(주택, 학교, 종교시설 등)이 유행하였고, 이는 해방 후에까지 이어졌다. 개항초기 한옥에 익숙했던 목포사람들에게는 돌로 집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무척 흥미롭고 신기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석조건축이 유행하게 된 이유는 가공하기 쉬운 퇴적암이 유달산을 비롯해 인근 산에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본 건물에 사용한 석재는 목포 형무소 죄수들이 산정동 석산에서 채굴한 돌이다. 당시 목포에서는 건물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의 축대와 담장에도 보편적으로 사용됐다.

현존하는 석조건축 중 건립 년대가 제일 빠른 것은 정명여자중학교 구 선교사 사택(등록문화재 제62호)이다. 이 건물은 1900년대 초에 활동했던 미국 선교사들의 사택으로 지은 것인데 현재 외형(지하1층, 지상2층)만큼은 건립당시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갖추고 있다. 사용된 석재는 목포 유달산 주변 석산에서 채석된 퇴적암이다.

목포에는 일제강점기에 지은 석조건물이 여러 채 있었으나 현재는 거의 사라지고 없다. 없어진 대표적인 건물로 조선은행 목포지점(1924년)과 죽동교회(1935년)이고 현존하는 것 중 중요한 것은 목포 구 청년회관(1925년)과 양동교회(1910), 동본원사 목포별원(1930년경), 산정동 정병조 가옥(1937년, 2층), 죽교동 공생원 사무실, 목포부청 서고, 무안군청 서고 등이다. 이상의 건물에 사용된 석재는 색깔이나 가공 정도 등이 선교사 사택 건물과 거의 같다. 해방 후에도 학교 건물로서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1954년), 문태고등학교 본관(1958년) 등이 건립되었고 도심지에 2층 규모의 상가도 건립됐다.



사진 4-1. 목포 산정동 정병조 가옥



사진 4-2. 목포 죽교동 공생원사무실

2

보존 및 활용방안

목포에는 개항도시답게 보존가치가 높은 근대건축물이 많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그 수가 줄었고 최근인 2003년도에만도 석조건물인 죽동교회(1935년 건립),

정명여학교의 초기 교장사택이었던 유애나관(1900년대 초, 붉은 벽돌집), 일본식 주택인 동양척식목포지점 지점장 관사(1920년대 초, 목조)등이 헐렸다. 이 모든 것이 관의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의지 결여, 시민의 개인 사유재산 보호 속에서 빚어진 결과이다.

지금까지 목포에서는 근대건축에 대한 별다른 보전대책이 없었으나 최근에 들어 동양척식 목포지점을 목포 근대 역사관으로, 동본원사 목포별원은 시민 예술문화공간으로 꾸몄으며, 2009년 현재 구 목포 일본영사관과 목포 구 청년회관 건물도 원형 보존과 함께 활용계획을 모색 중에 있다.



사진 4-3. 초창기 정명여학교 교장 사택이었던 유애나관



사진 4-4. 죽동교회



사진 4-5. 구 동양척식 목포지점 지점장 관사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이 지금까지 원형 보존이 되었던 이유는 목포대학교의 모태로서 지속적으로 공간 활용에 있었기 때문이다. 즉 1983년부터 목포대학교가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로 거의 모든 학과가 이전을 하였지만 이 건물은 평생교육원과 경영·행정대학원으로 사용하였다기 때문이다.

이 건물의 향후 보존 및 활용방안은 목포캠퍼스의 전체 활용계획과도 연관이 있다. 현재 이 건물 동편으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예정(평생교육원)이고 2~3년 후면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음악과와 미술과도 도림캠퍼스로 이전하게 된다. 텅 빈 캠퍼스에서 이 건물의 역할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대안으로서 목포의 교육역사를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목포교육사 박물관’으로 활용하면 좋을 듯하다. 도심지에 자리하여 우

선 접근하기가 쉽고 또한 노송이 많이 우거져 있어 건물과 함께 공원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건물 보존 차원에서 현재 담장이 넝쿨이 건물의 정면을 뒤덮고 있어 한층 고풍스러운 미를 느낄 수 있지만 담장이 넝쿨의 줄기와 뿌리가 석재에 너무 밀착되어 있어 석재파손 및 손실이 생길수도 있으니 적정수준의 넝쿨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외부의 오염 등으로 인해 석재의 색이 변하여 지저분한 곳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석조건축의 개·보수 유의할 점이 있다. 현존하는 목포의 문화재급 석조건축의 모두가 퇴적암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개·보수에도 이 돌이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방안으로 기존 주택의 담장이나 석축의 석재를 활용할 수도 있다. 최근에 진입 계단을 일부 교체한 구 목포시립도서관(사적 제289호)은 화강석으로 보수하여 퇴적암이었던 기존 계단과 전혀 조화가 안되고 있다.



사진 4-6. 외부 담쟁이넝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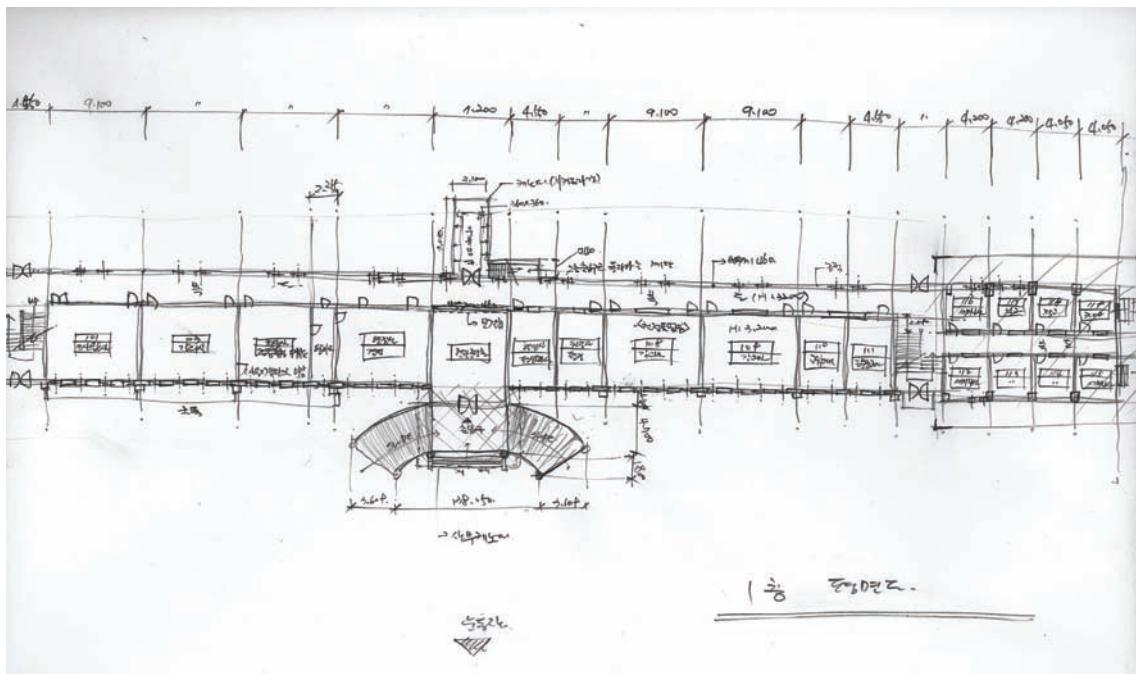


제5장 실측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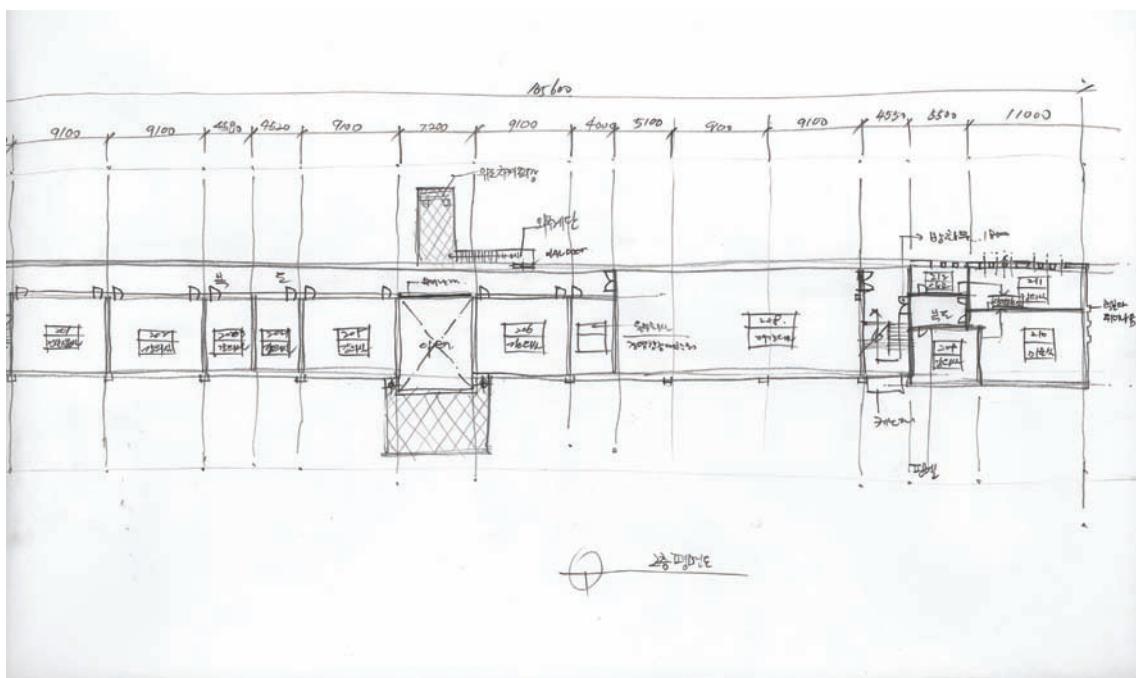
1. 실측야장
2. 실측도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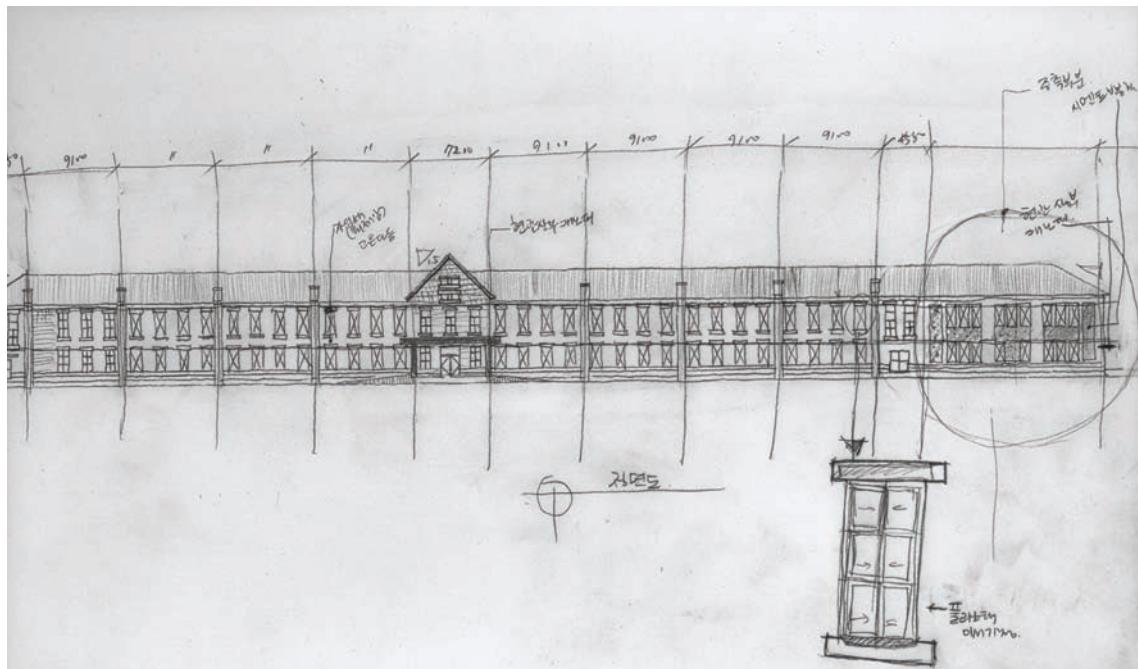
실측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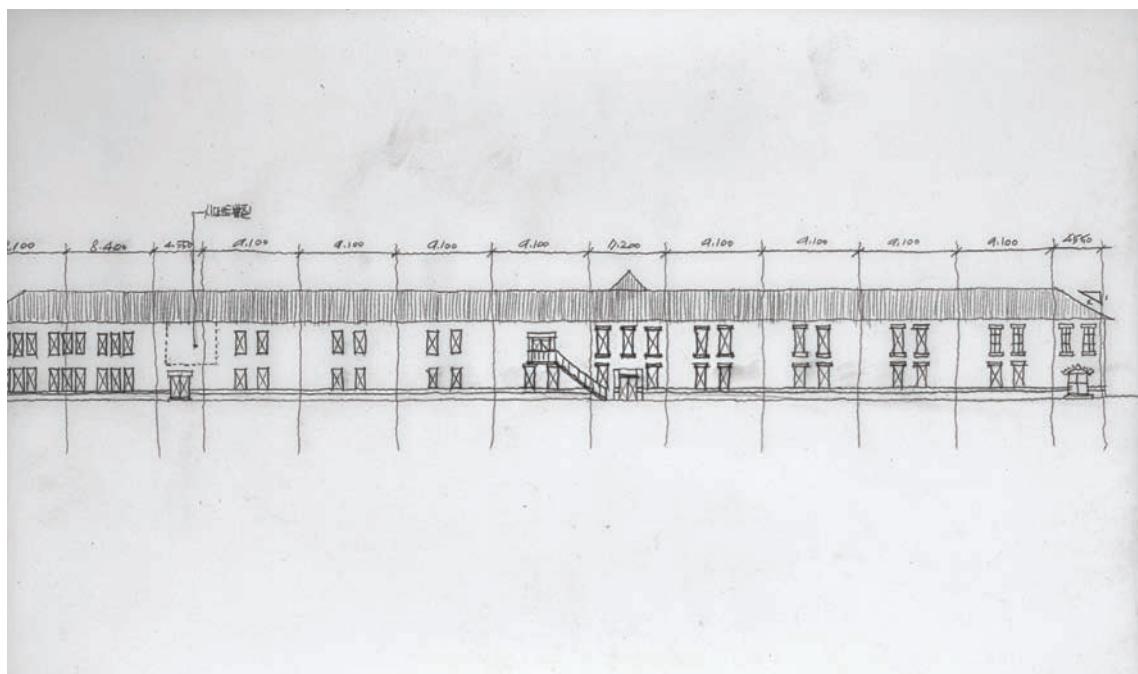
1층 평면도(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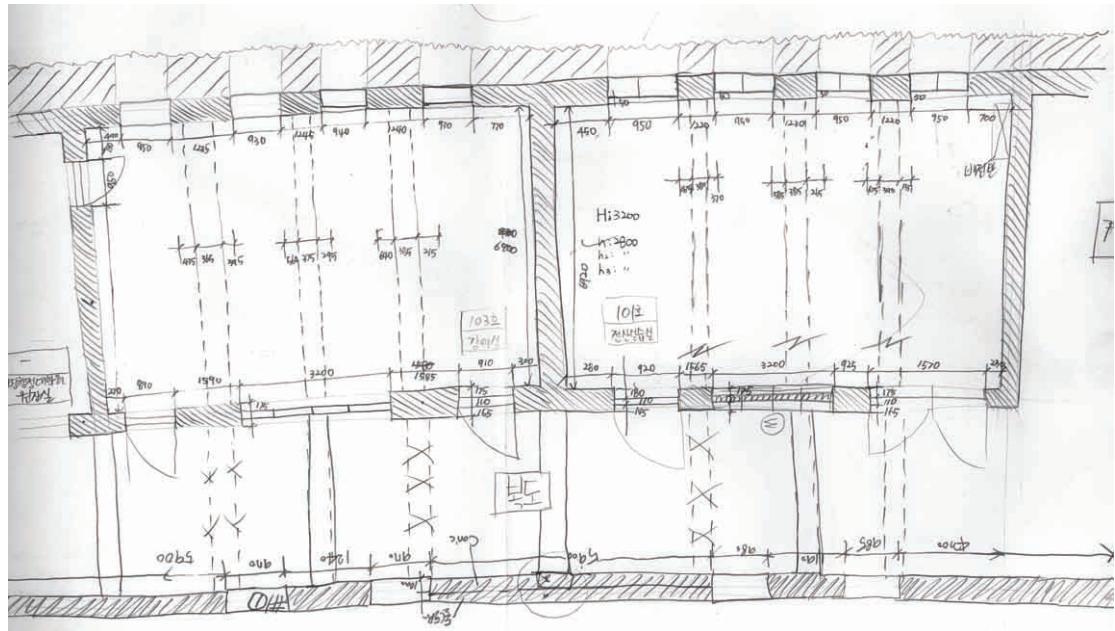
2층 평면도(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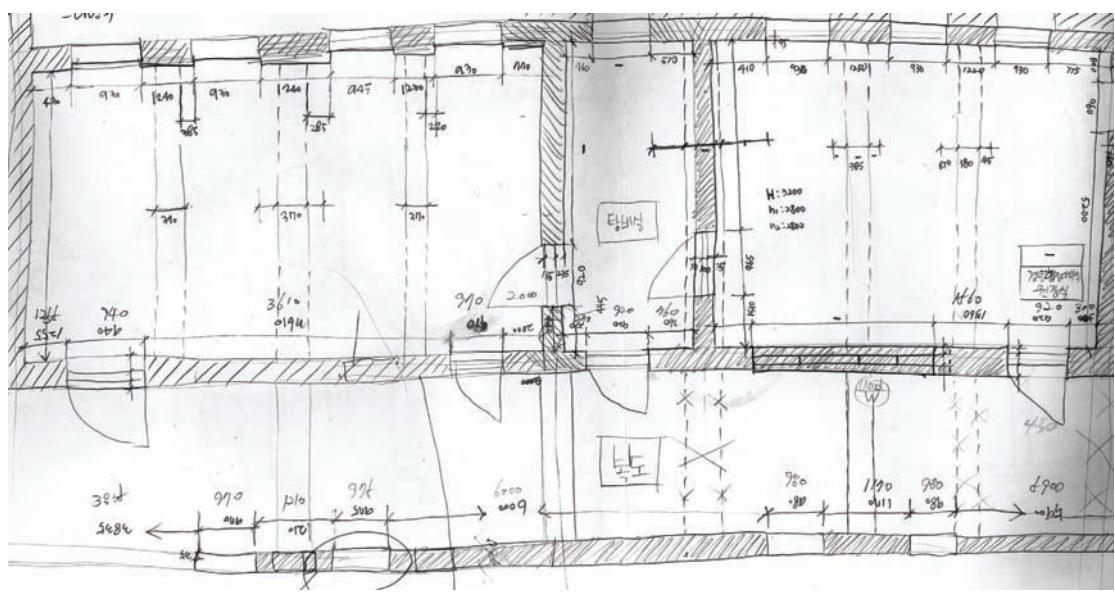
정면도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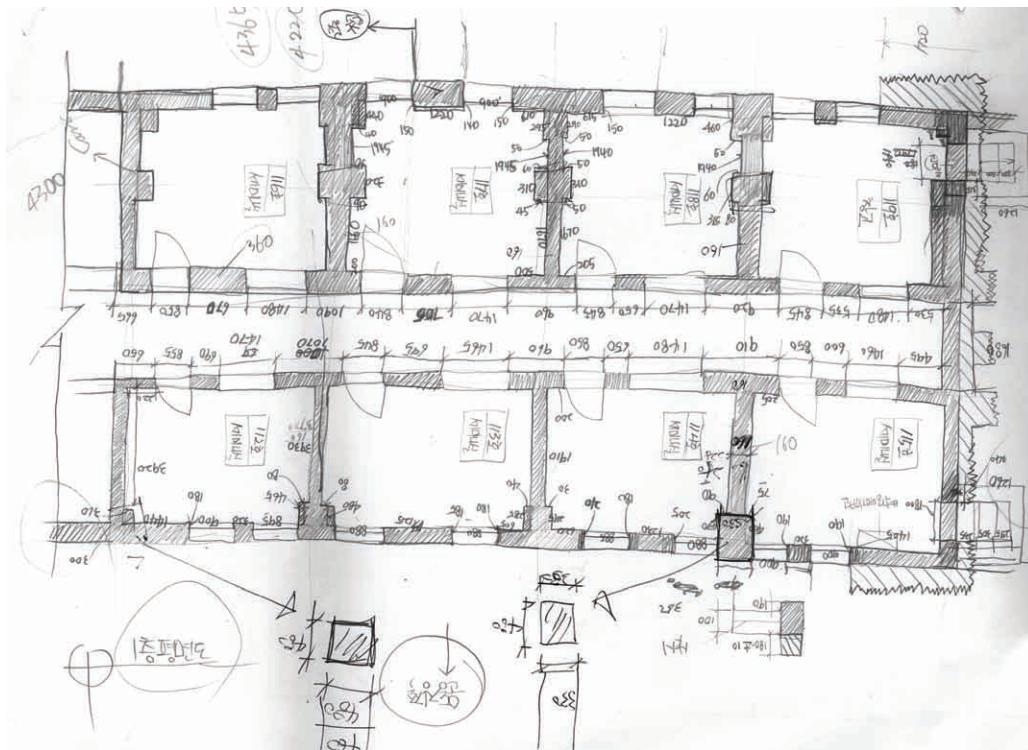
배면도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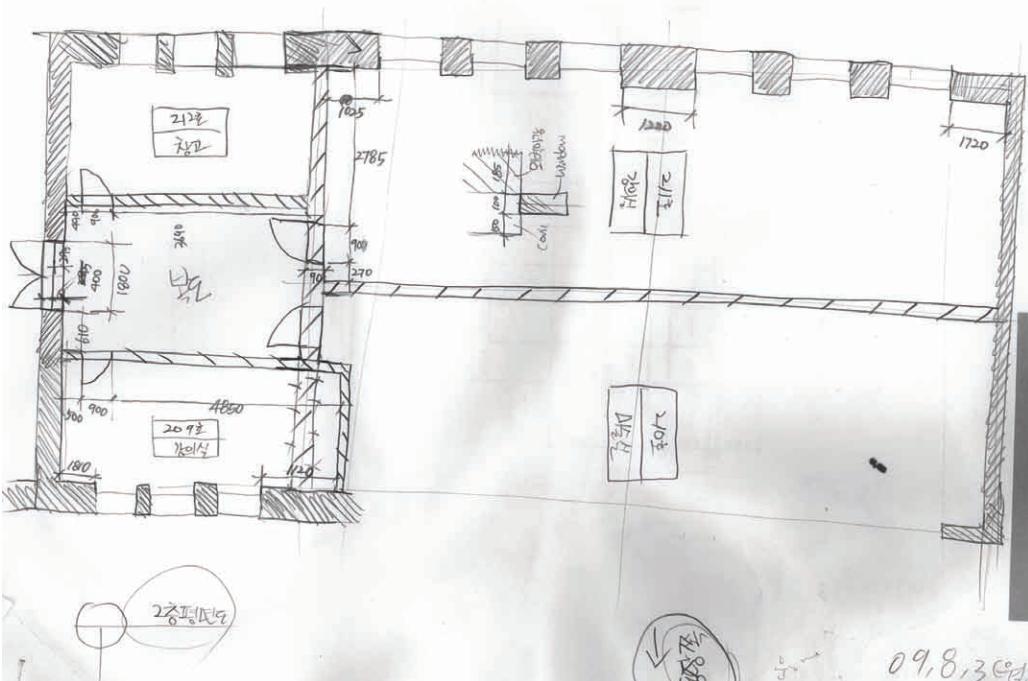
1층 평면도-1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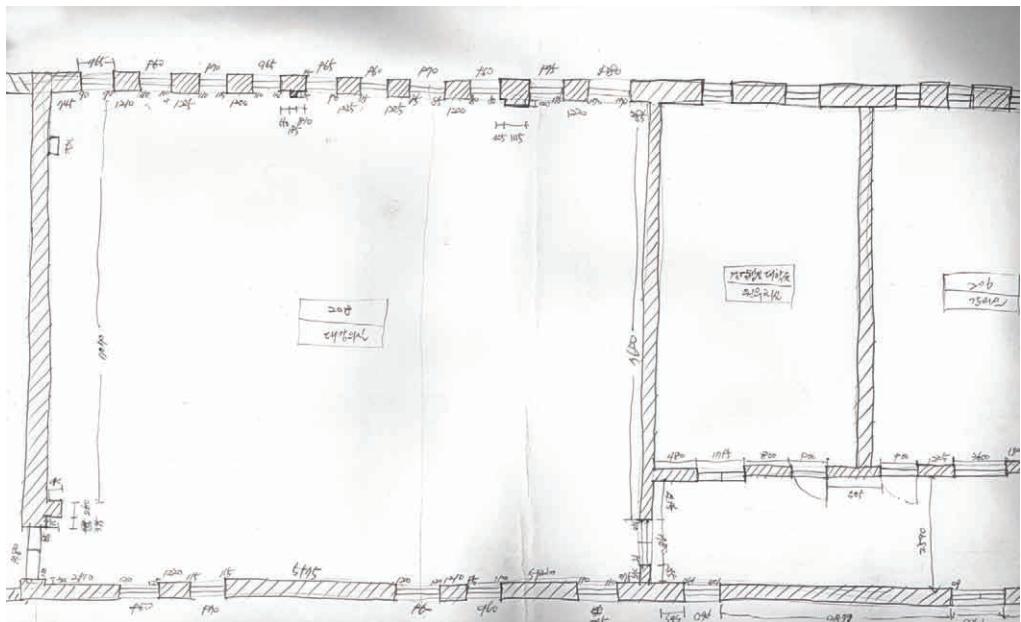
1층 평면도-2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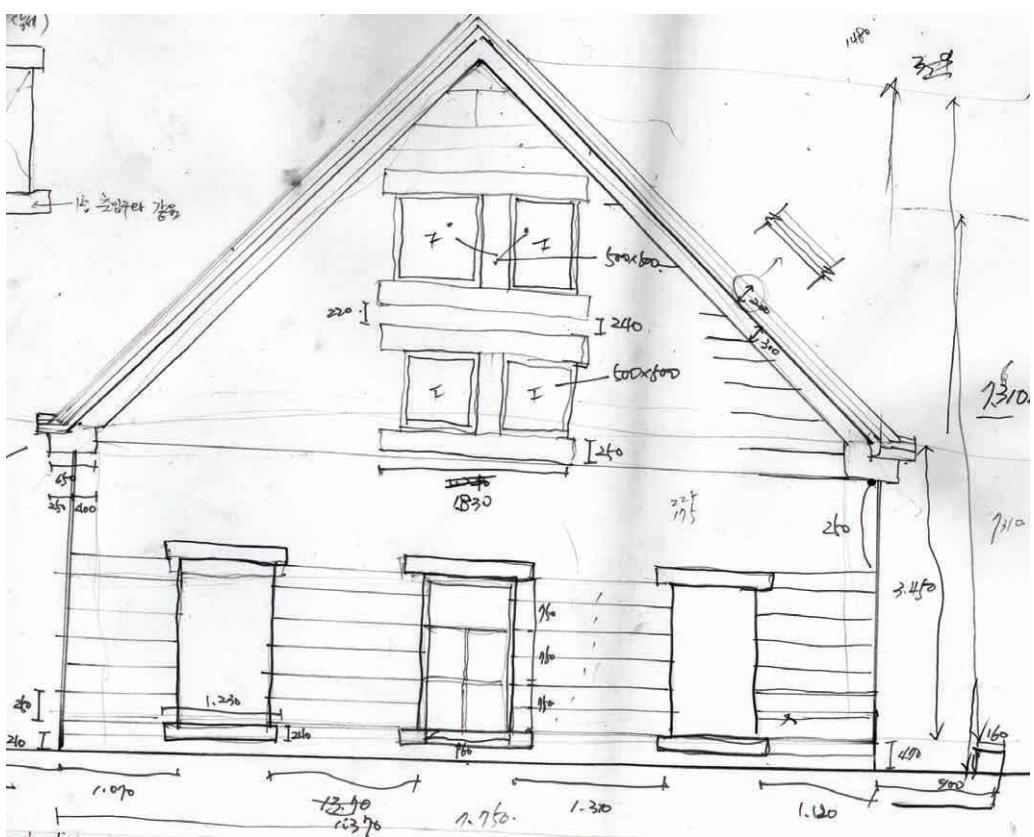
서측 증축부 1층 평면도(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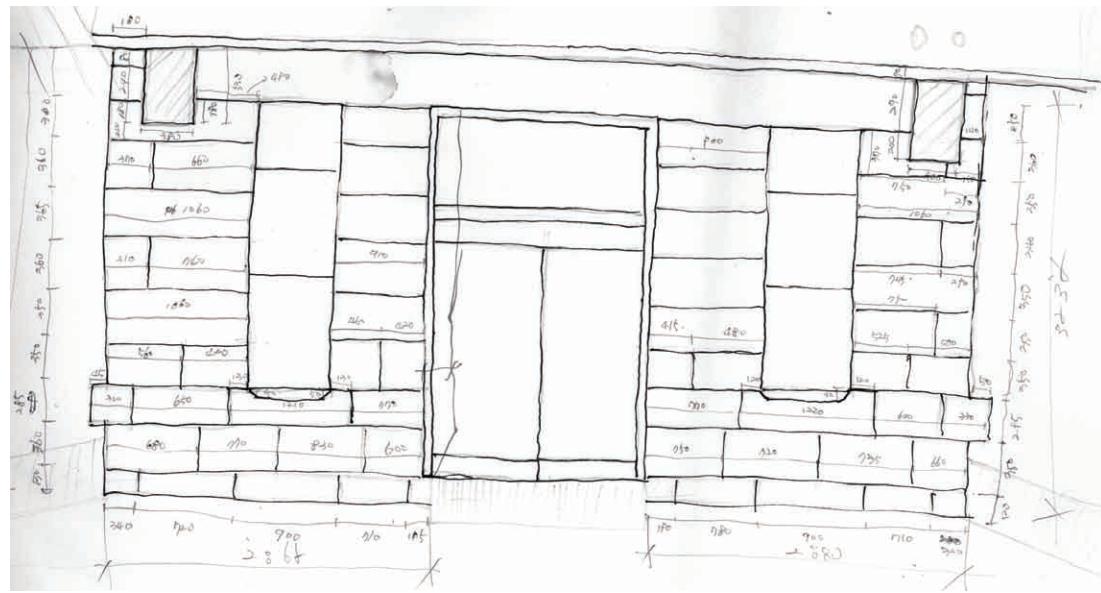
서측 증축부 2층 평면도(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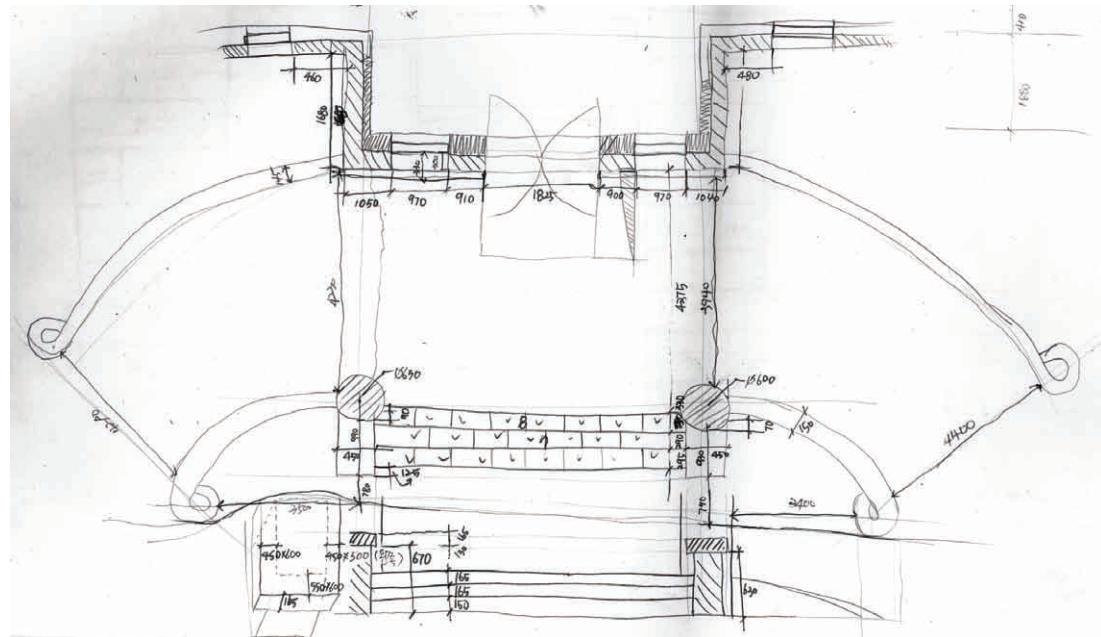
2층 평면도(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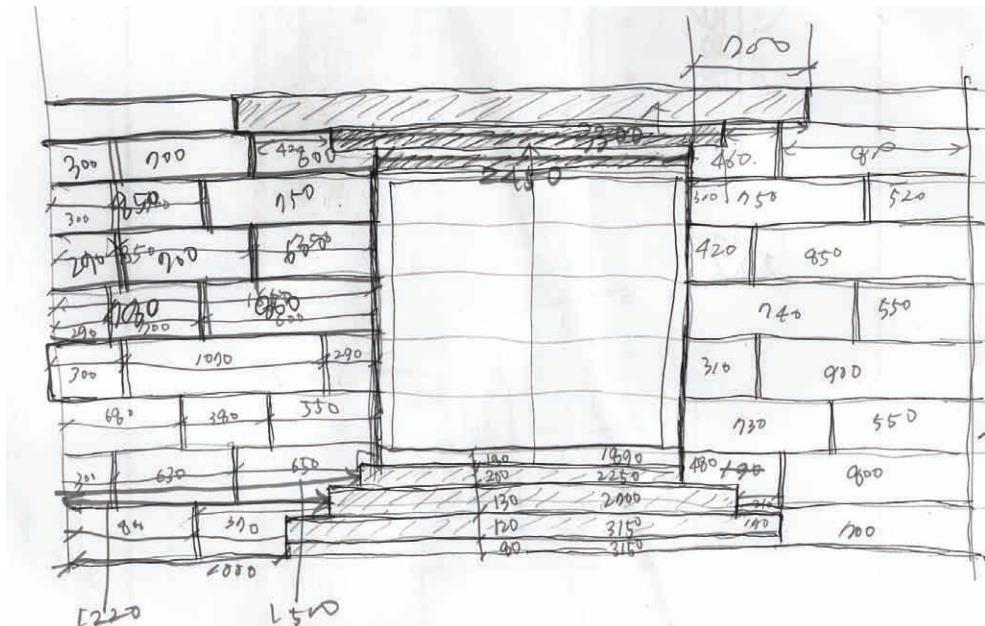
중앙 현관 출입구 박공부분 디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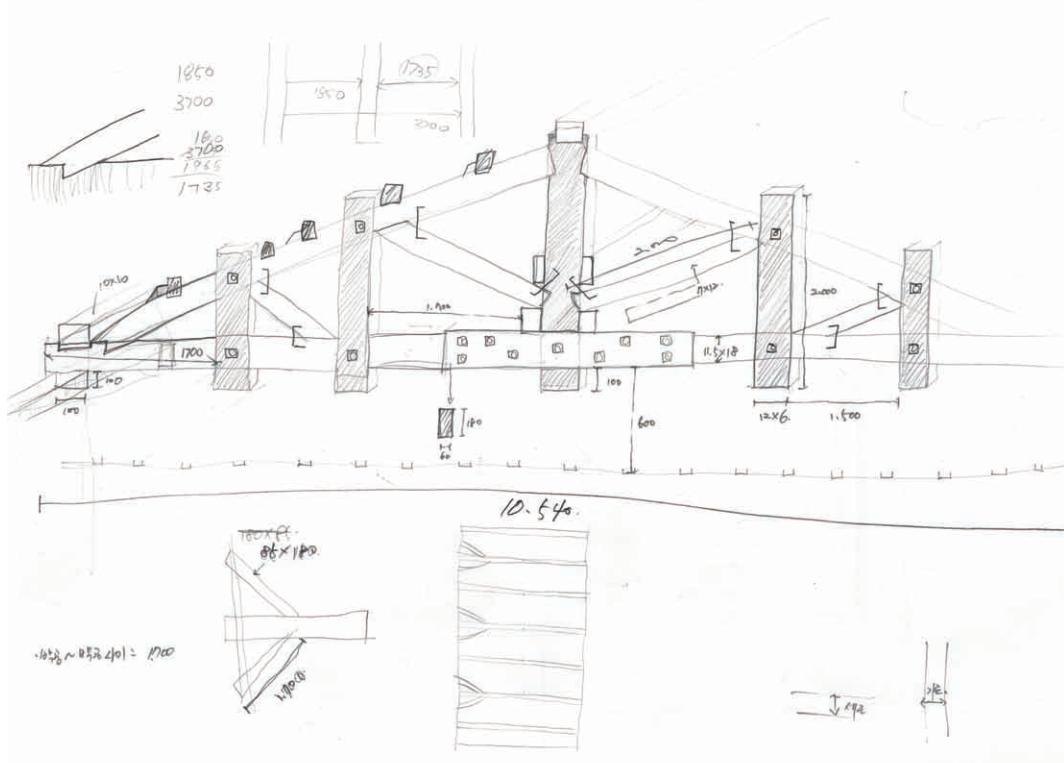
중앙 현관 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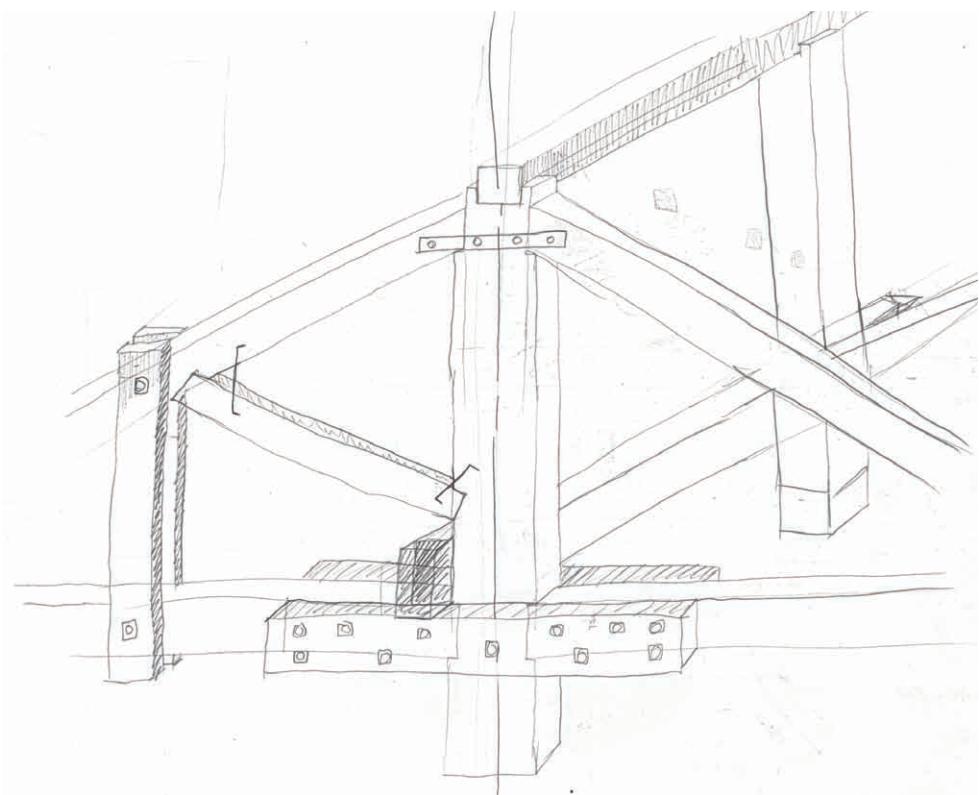
중앙 현관 출입구 디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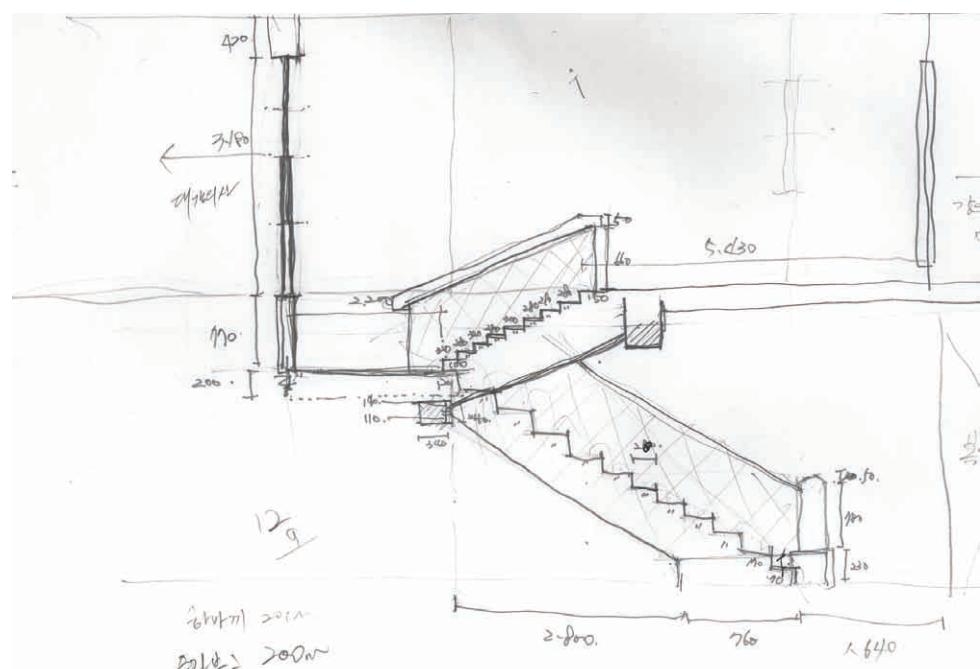
좌측(서측) 부출입구 부분 입면



왕대공 트러스 실측야장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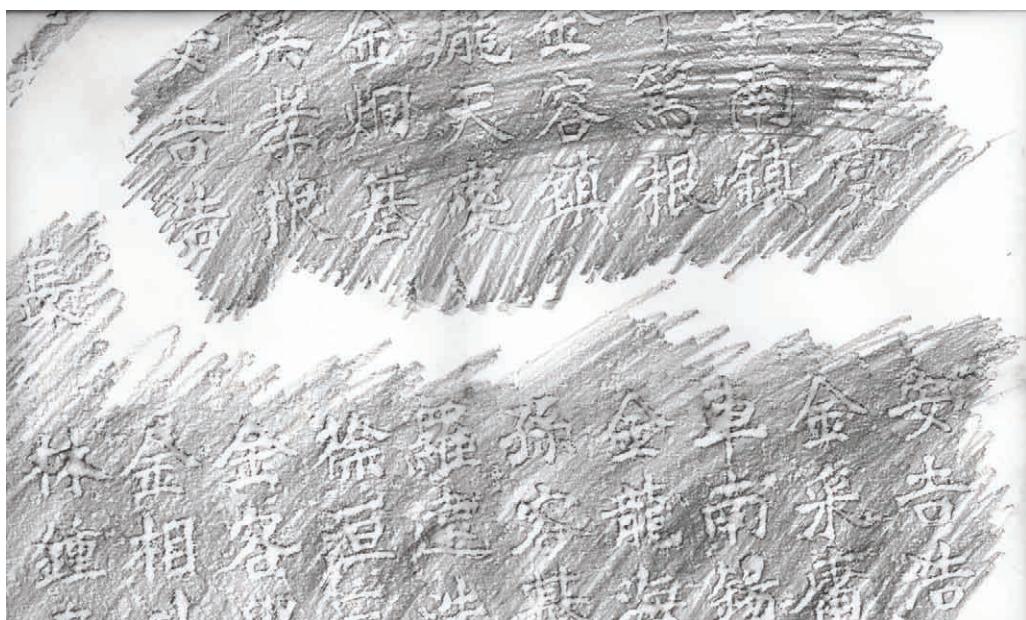
왕대공 트러스 실측야장2



우측(서측) 계단 단면 디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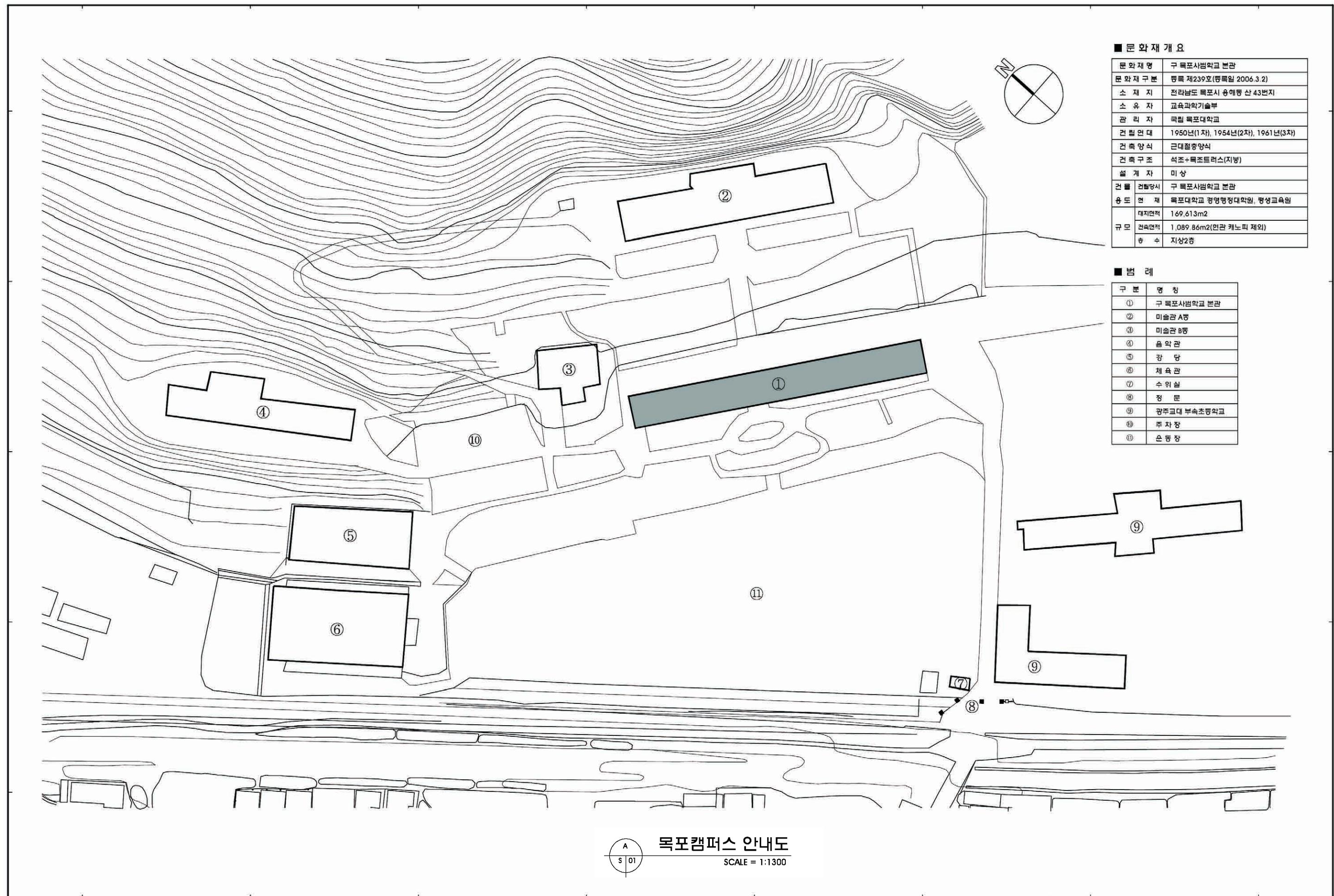
준공 머릿돌1 (위치 : 배면 중앙 외부계단 하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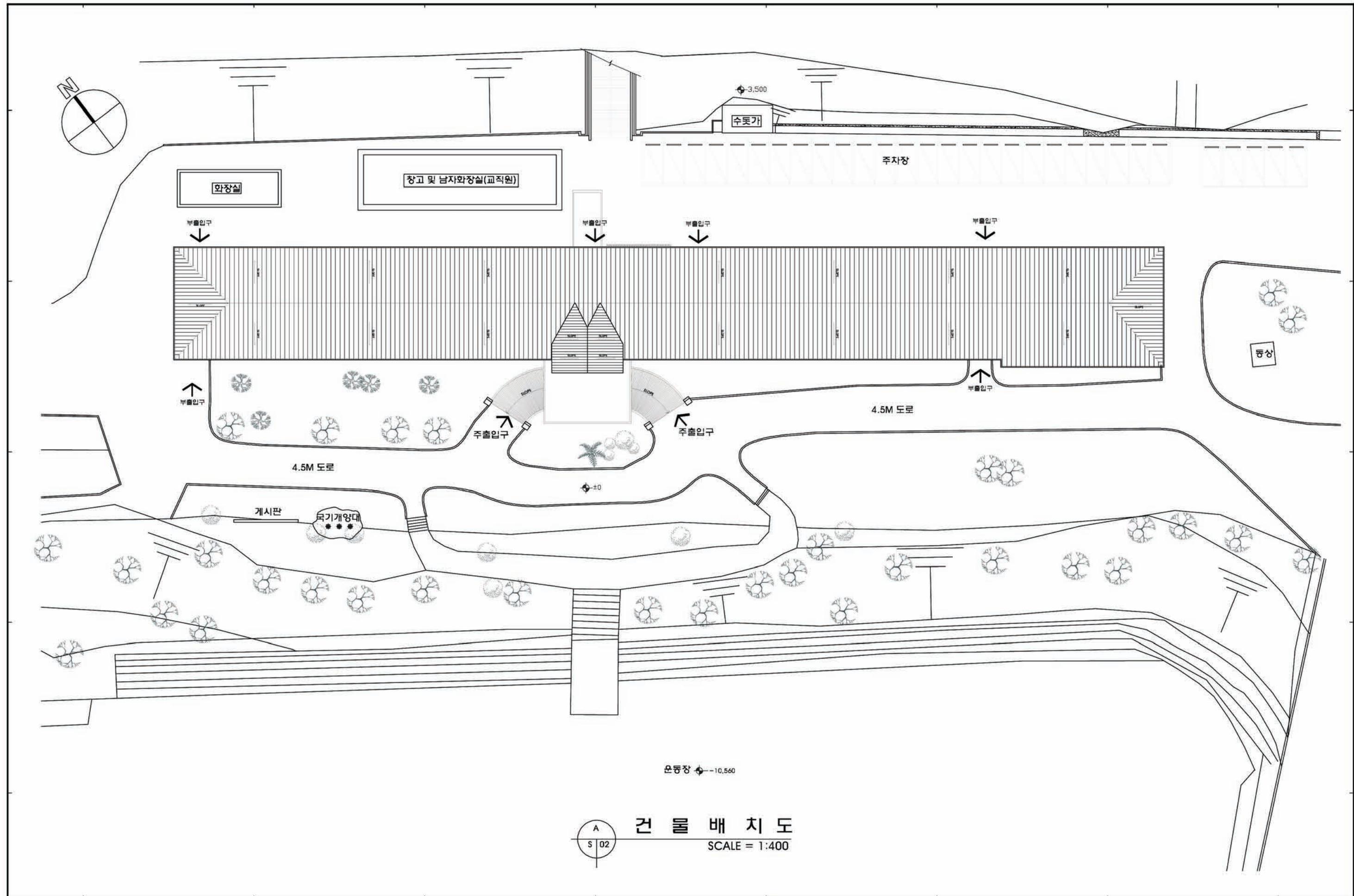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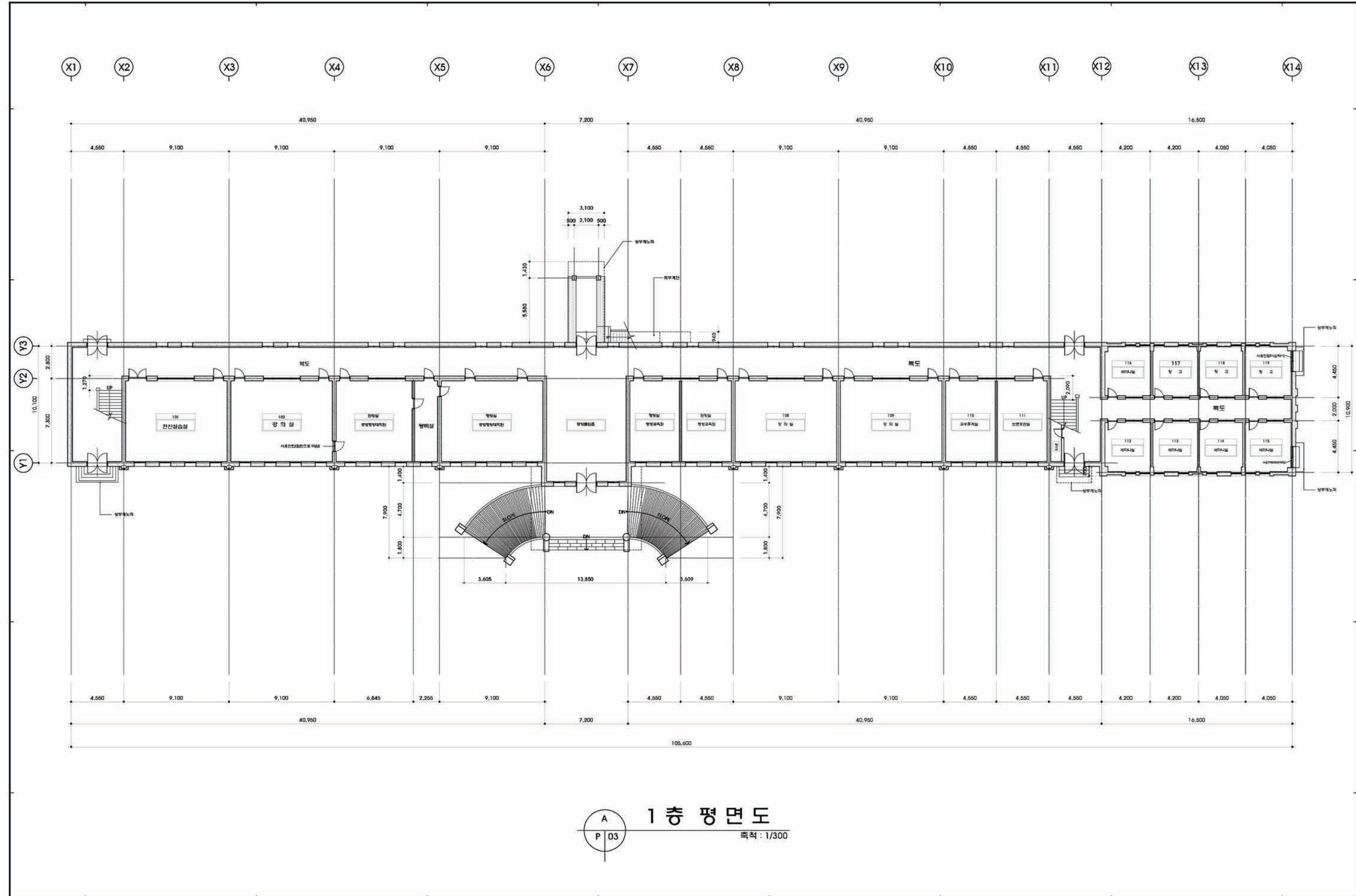
준공 머릿돌2 (위치 : 배면 중앙 외부계단 하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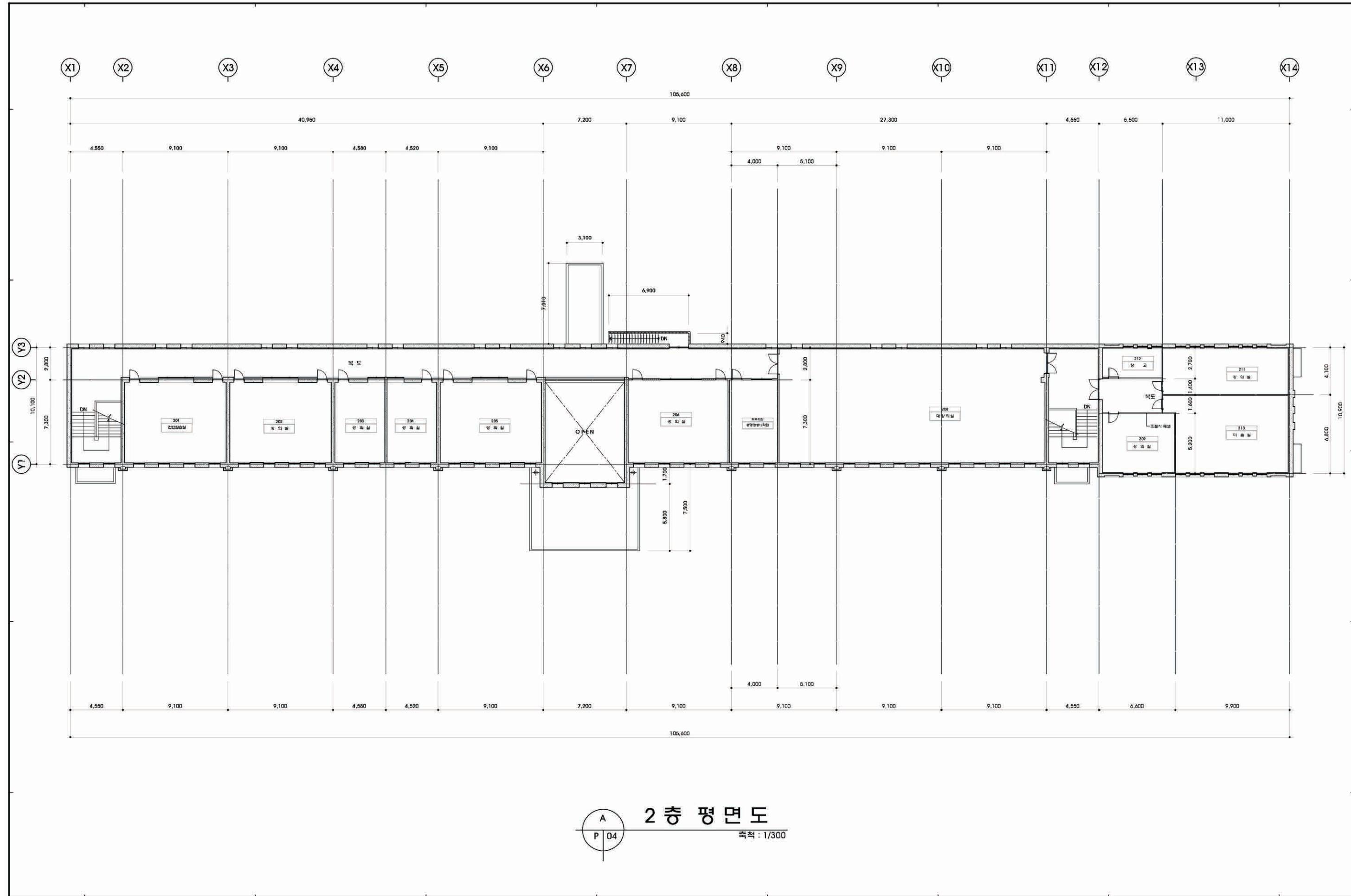
표1. 도면 목록

도면번호	도면명	페이지
000	목포대학교 목포캠퍼스 안내도	107
001	건물배치도	108
002	1층 평면도	109
003	2층 평면도	110
004	지붕 평면도	111
005	정면도 / 배면도	112
006	좌 / 우측면도	113
007	횡 / 종단면도	114
008	지붕틀 구조도	115
009	왕대공 지붕틀 상세도	116
010	정면 중앙 현관 출입부 상세도	117
011	배면 중앙 현관 출입부 상세도	118
012	배면 외부계단부 상세도	119
013	좌측(서측) 계단 출입구 상세도	120
014	우측(동측) 계단 출입구 상세도	121
015	창호 평면도	122
016	창호 일람표-1	123
017	창호 일람표-2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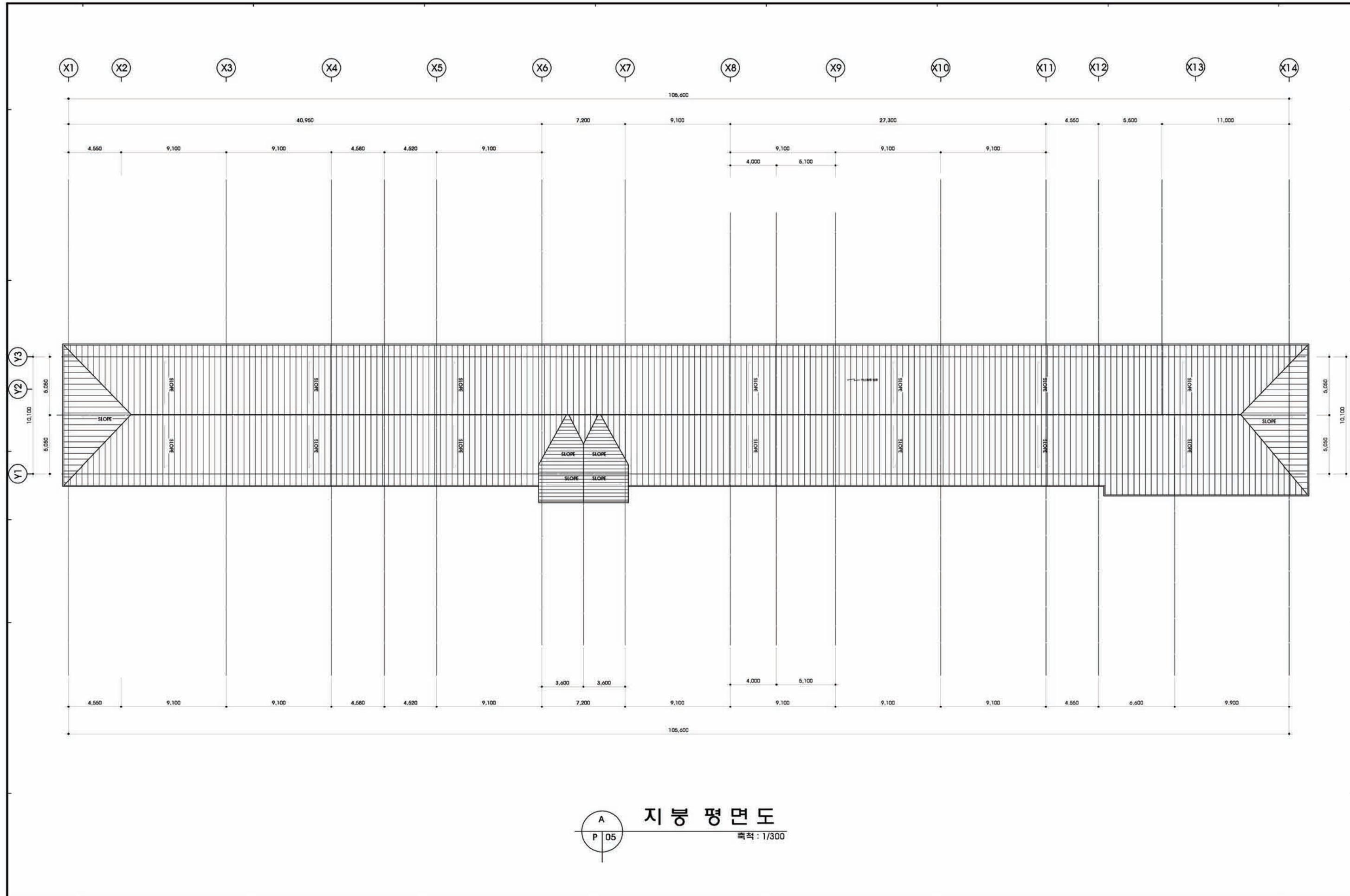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
P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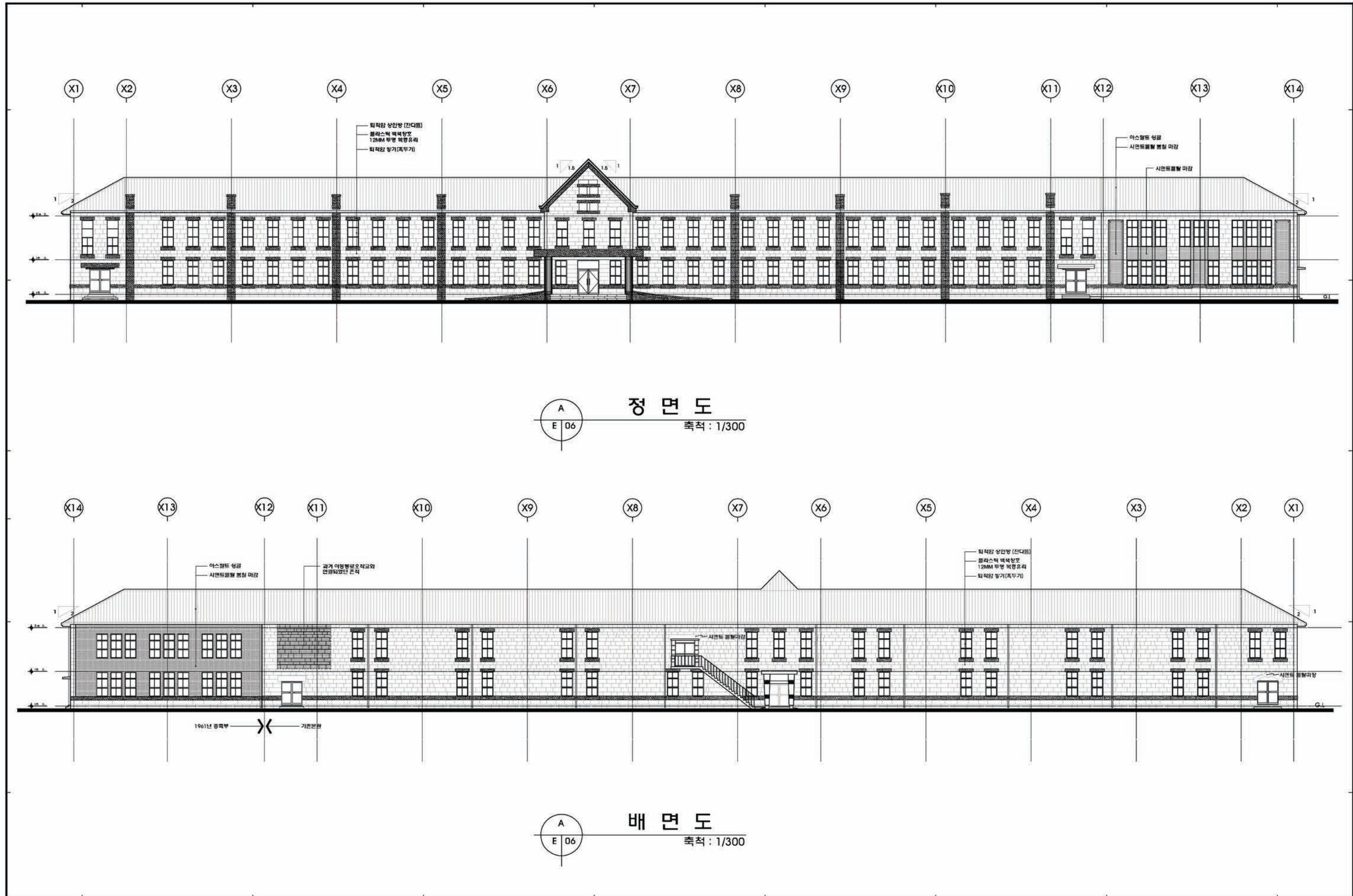
축척: 1/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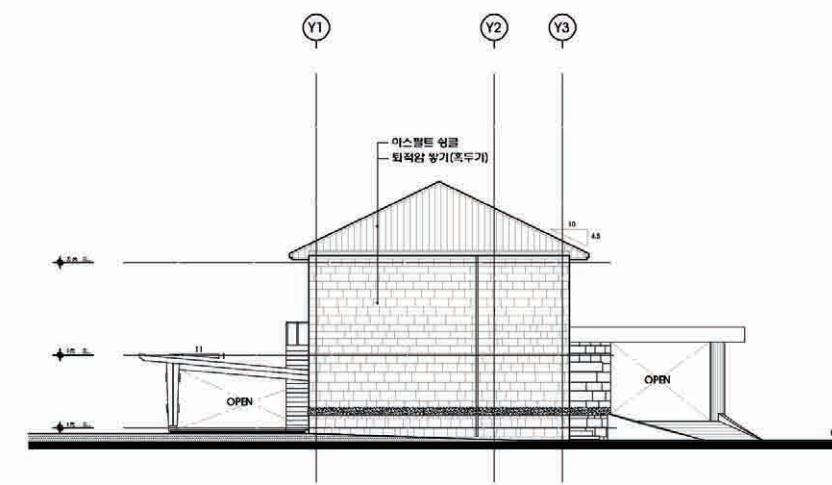


A
P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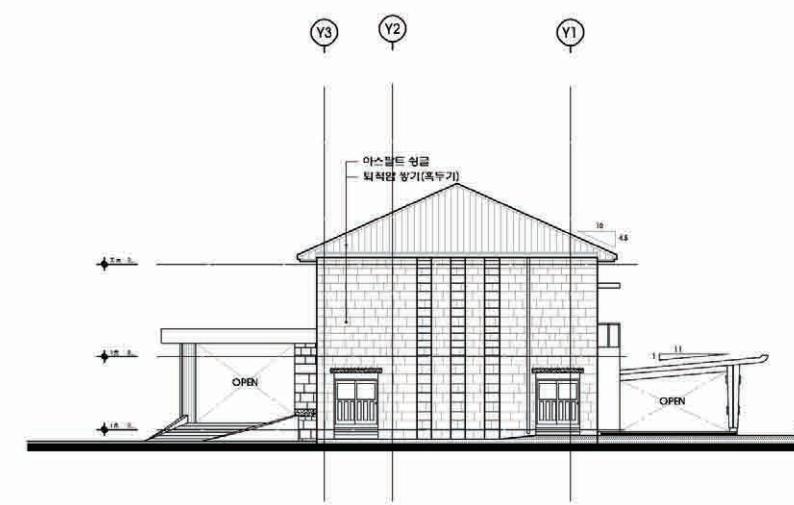
지침 평면도

축척: 1/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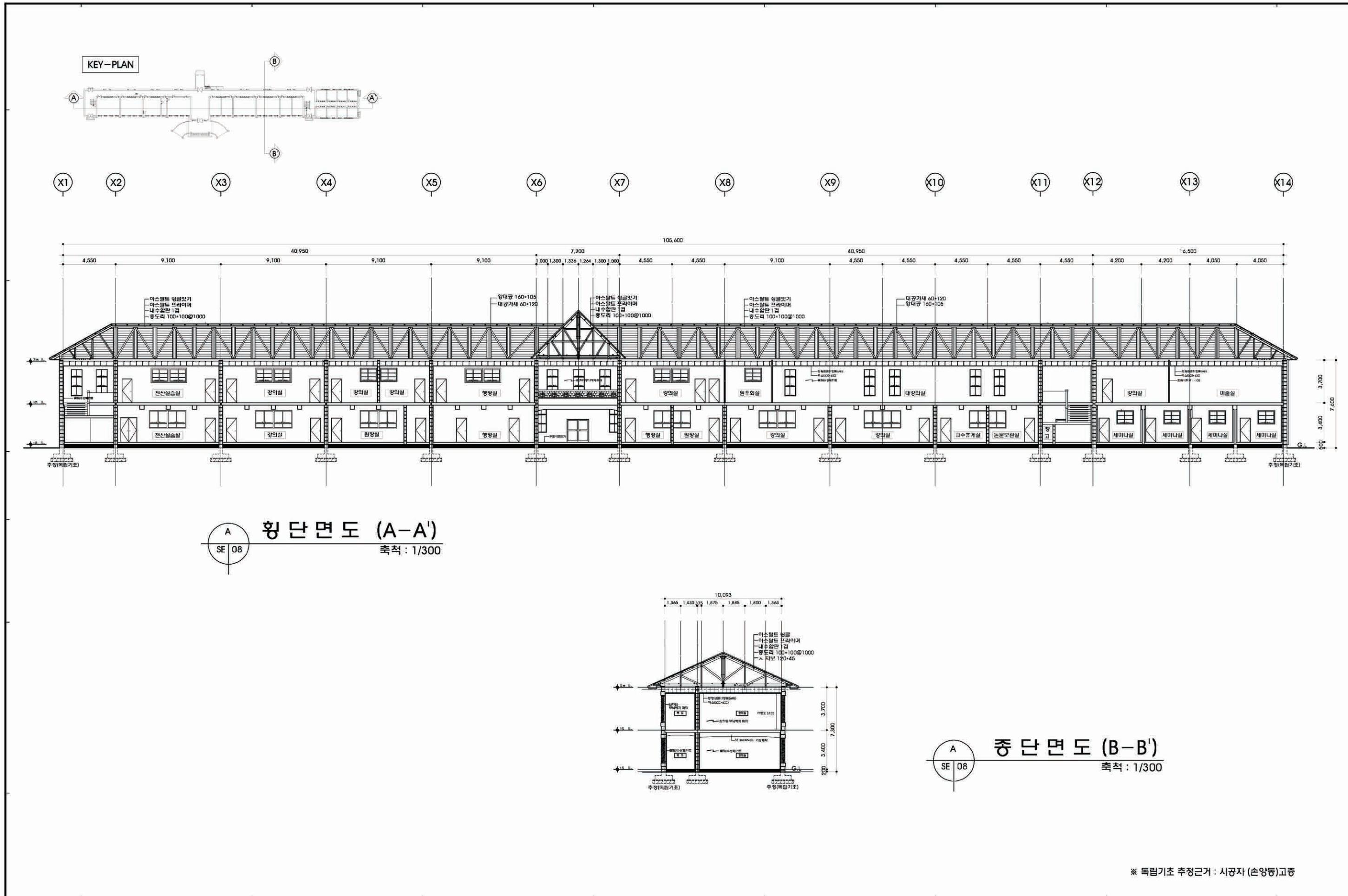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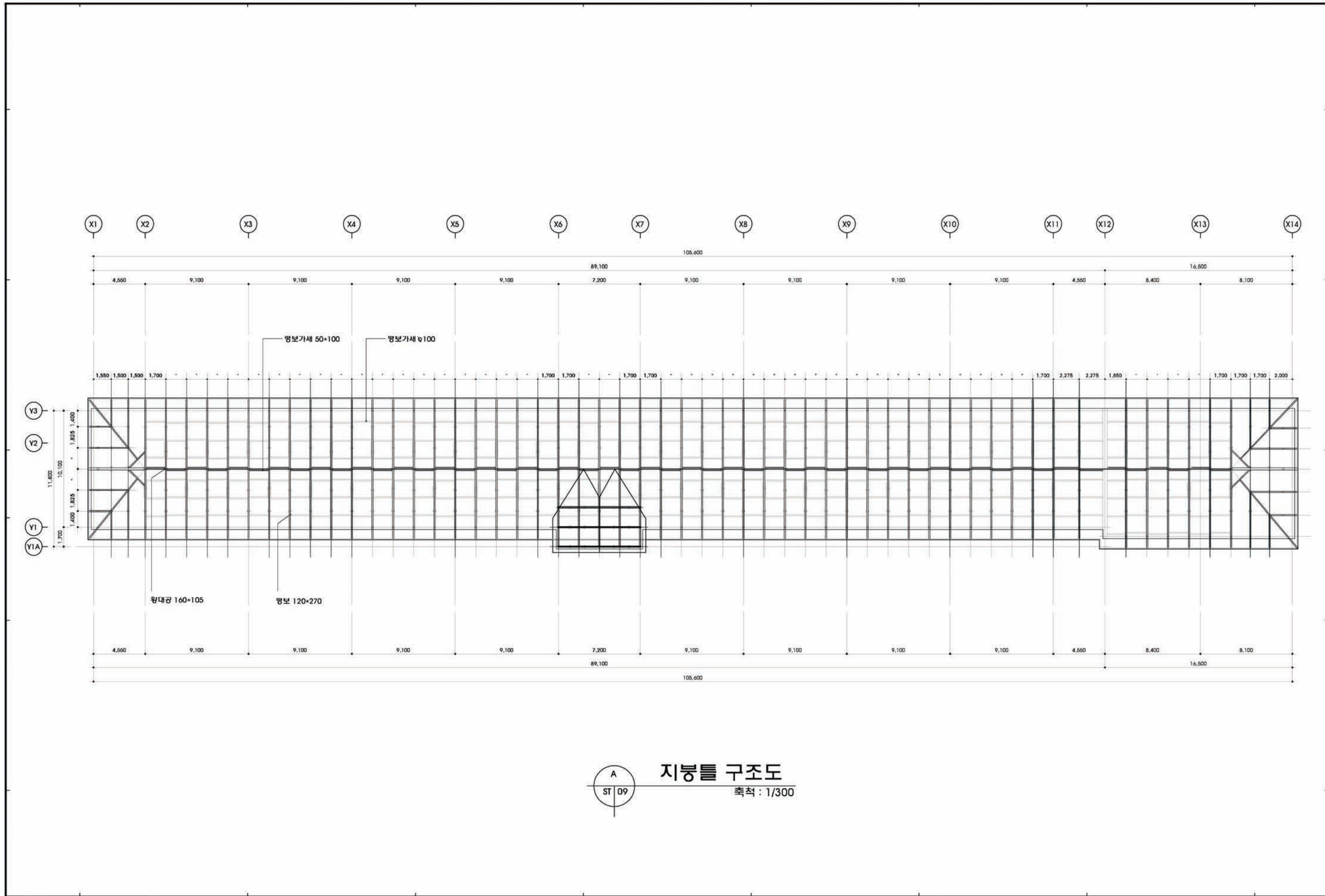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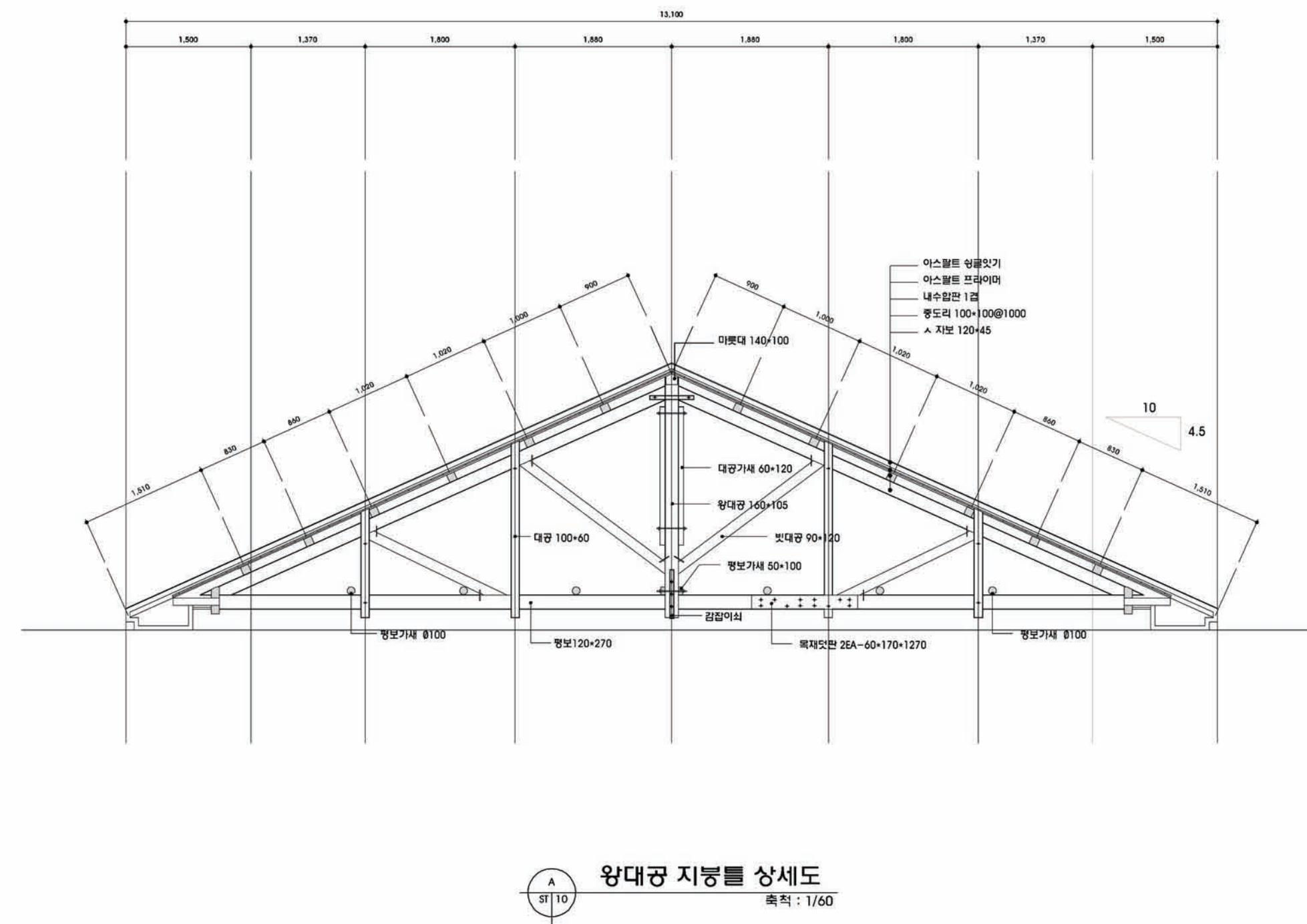
A
E 07
좌측면도
축척: 1/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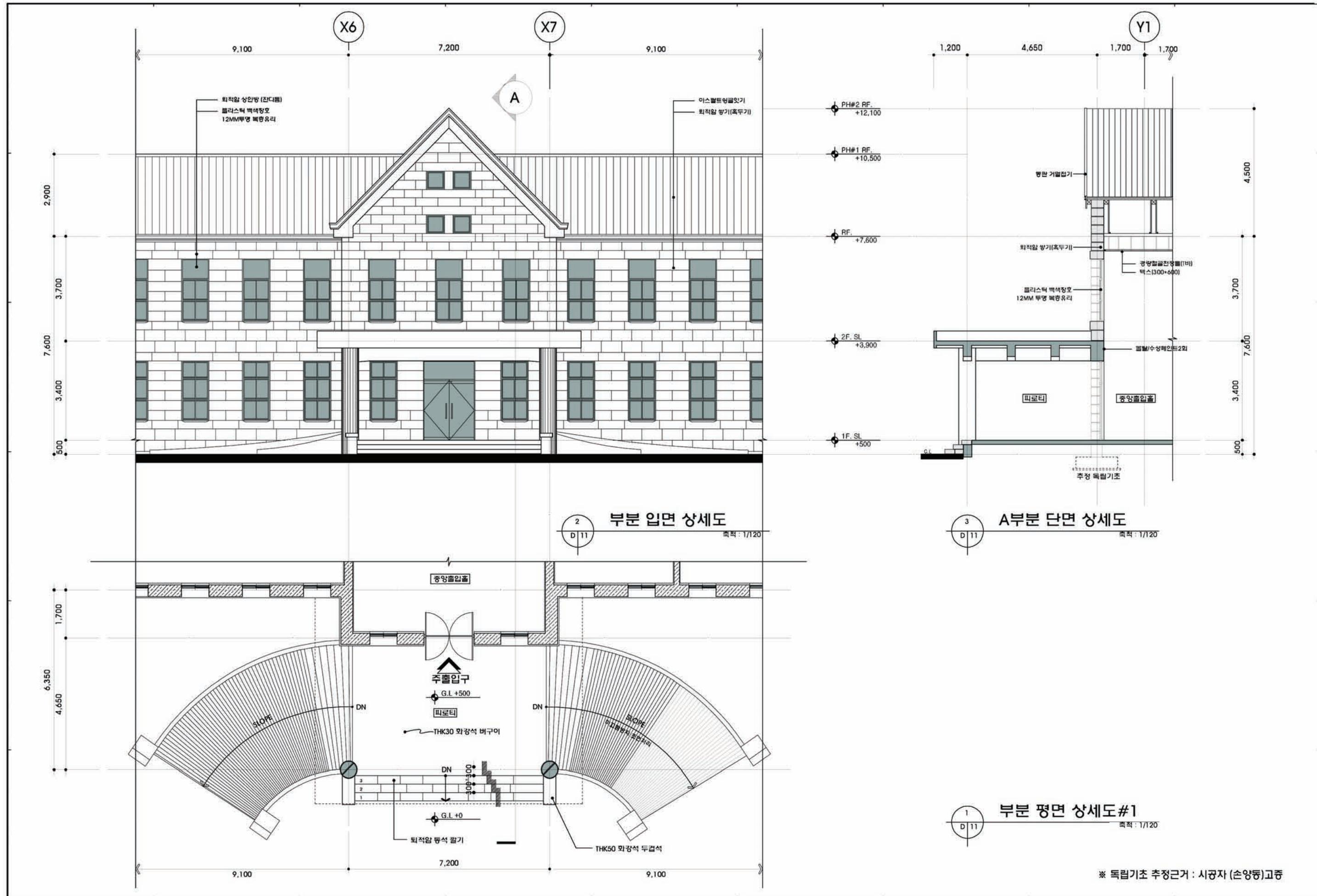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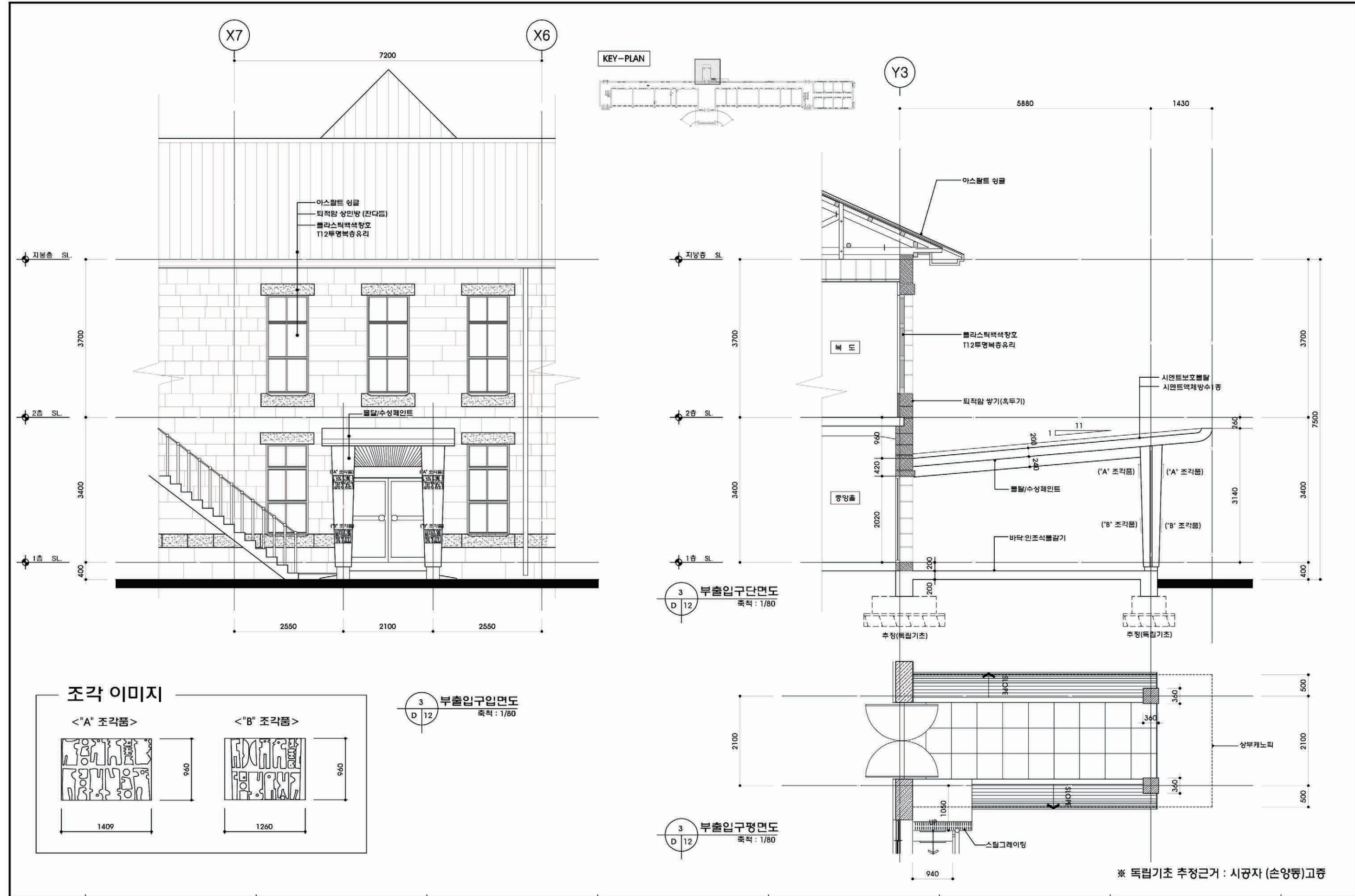
A
E 07
우측면도
축척: 1/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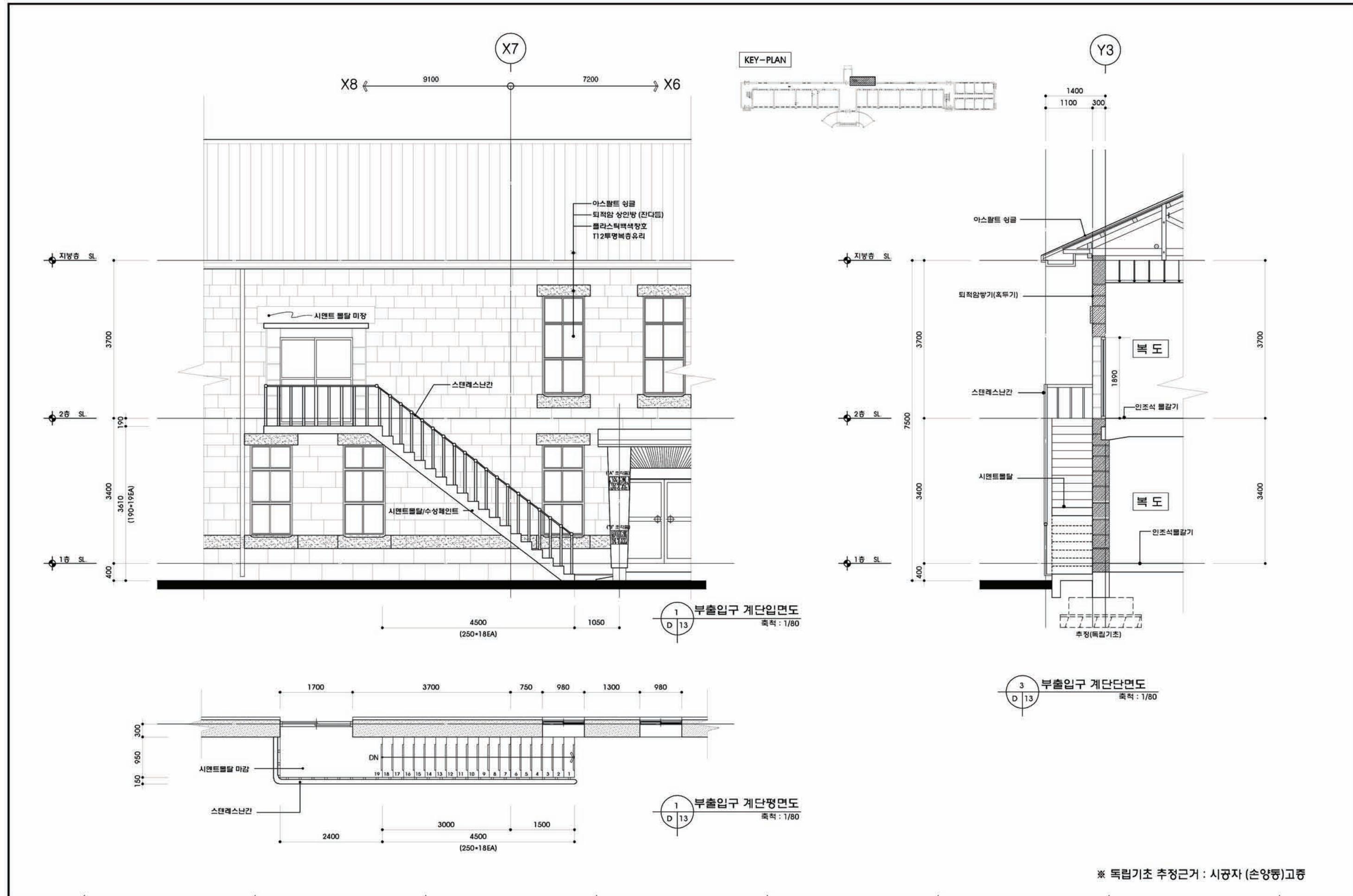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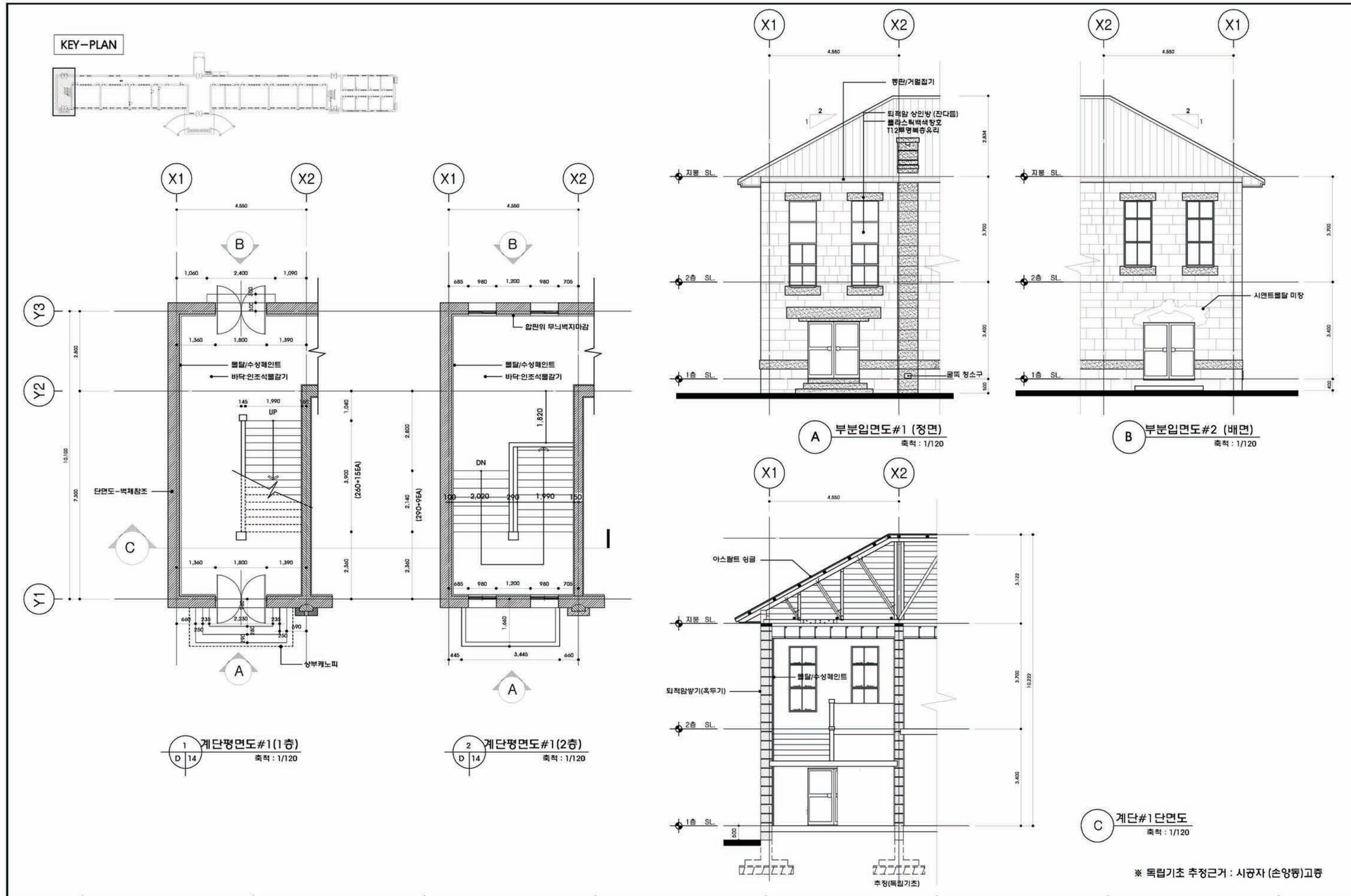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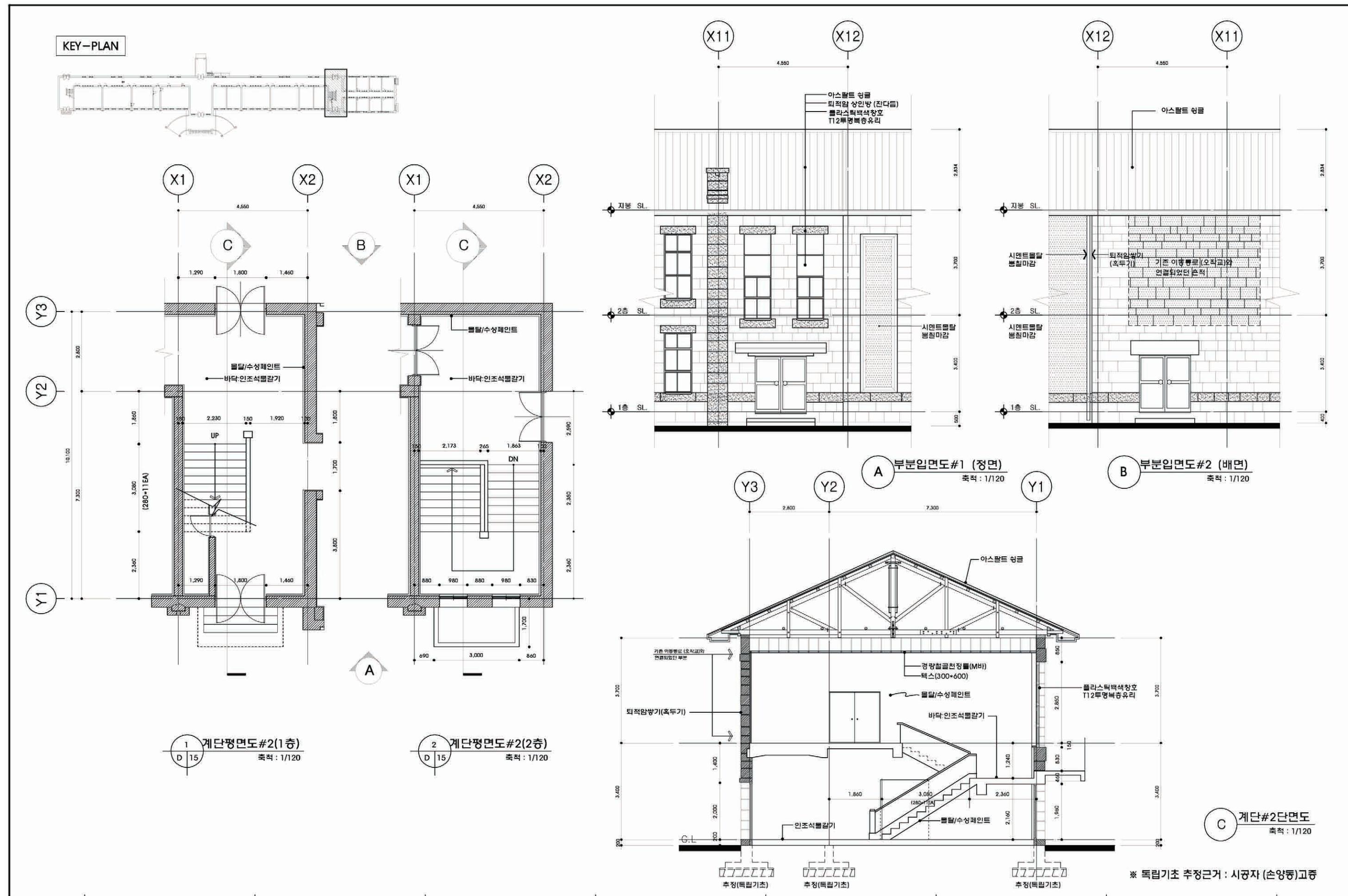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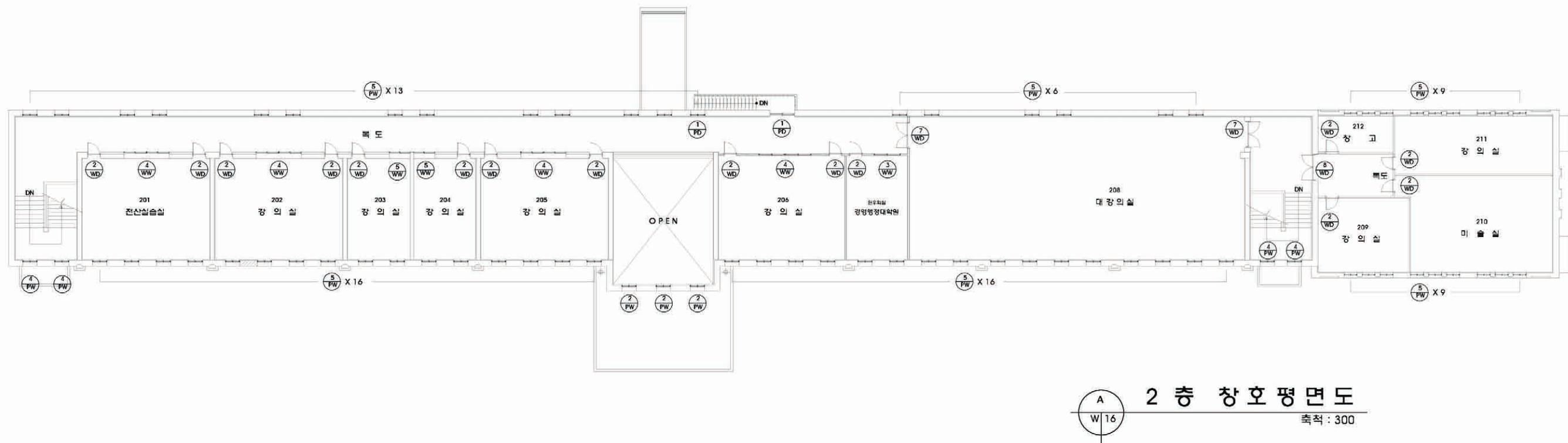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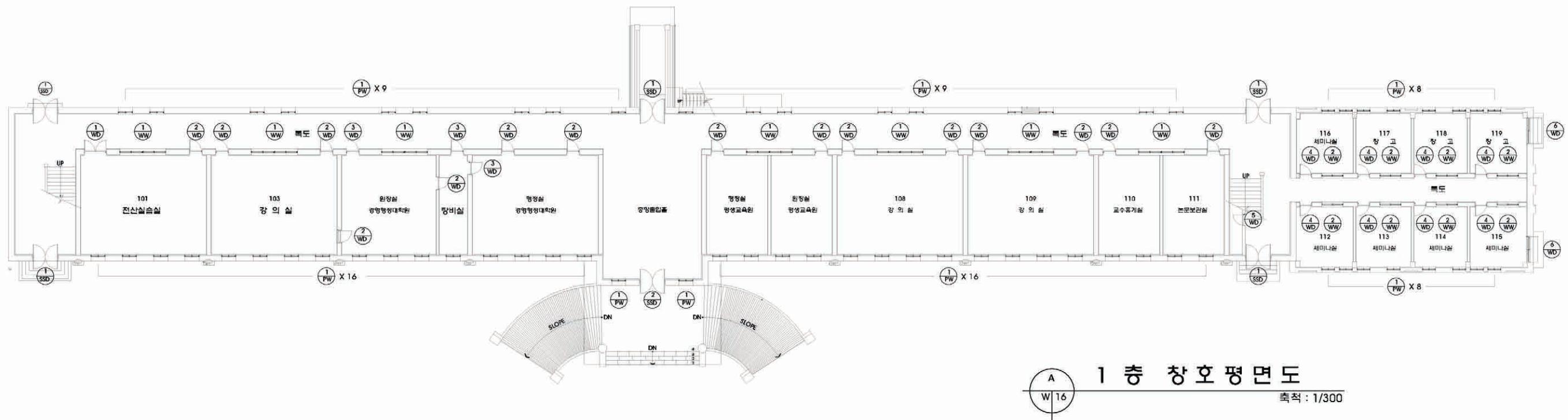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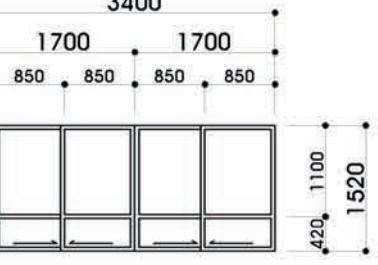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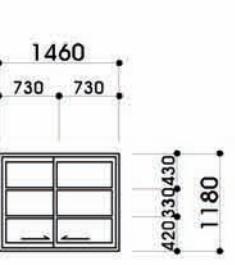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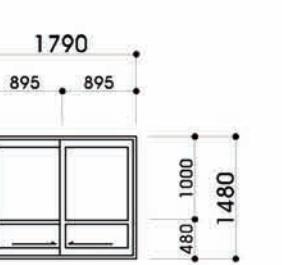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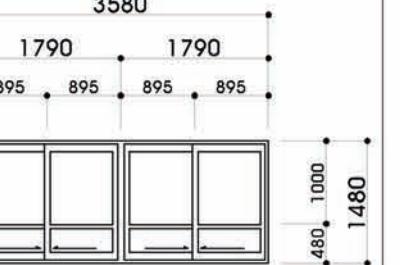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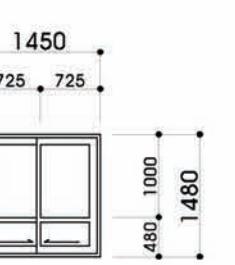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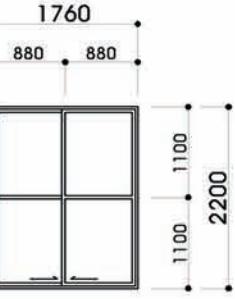








구분	1 WD	2 WD	3 WD	4 WD	5 WD
명칭	목재 DOOR	목재 DOOR	목재 DOOR	목재 DOOR & FIX	목재 DOOR
개수	1	31	2	8	1
유리					
마감	5.5무늬합판위 바니스 마감 라왕 2100*900 바니스 마감	5.5무늬합판위 바니스 마감 라왕 2100*900 바니스 마감	5.5무늬합판위 바니스 마감 라왕 2150*1000 바니스 마감	THK 6mm 일번유리 5.5무늬합판위 바니스 마감 라왕 1900*840 바니스 마감	5.5무늬합판위 바니스 마감 라왕 1600*840 바니스 마감
철물	도어록2조, 경첩6EA, 제작일식	도어록1조, 경첩3EA, 제작일식	도어록1조, 경첩3EA, 제작일식	도어록1조, 경첩3EA, 제작일식	도어록1조, 경첩2EA, 제작일식
구분	6 WD	7 WD	8 WD	1 SD	2 SD
명칭	목재 DOOR	목재 & WINDOW	목재 DOOR	스텐레스 스크바 DOOR	스텐레스 스크바 DOOR& FIX
개수	2	2	1	5	1
유리					
마감	라왕 2100*900 바니스 마감	에어라인마감문 THK12mm 100M/M COLOR BAR	5.5무늬합판위 바니스 마감 라왕 1800*900 바니스 마감	에어라인마감문 THK12mm 강화유리문(F:5M/M 강화유리)	에어라인마감문 THK12mm 강화유리문(F:5M/M 강화유리)
철물	도어록2조, 경첩6EA, 제작일식	2.3t ST PL 보강철들위 1.5t SSTL PL 100×45	도어록2조, 경첩6EA, 제작일식	2.3t ST PL 보강철들위 1.5t SSTL PL 120×45	2.3t ST PL 보강철들위 1.5t SSTL PL 120×45
구분	1 PW	2 PW	3 PW	4 PW	5 PW
명칭	플라스틱 미서기장	플라스틱 미서기장 FIX	플라스틱 FIX	플라스틱 미서기장 FIX	플라스틱 미서기장
개수	66	3	4	4	69
유리	3M/M 투명유리	3M/M 투명유리(F:5MM)	3M/M 투명유리	3M/M 투명유리(F:5MM)	3M/M 투명유리(F:5MM)
마감	80M/M 플라스틱 (백색)	80M/M 플라스틱 (백색)	80M/M 플라스틱 (백색)	80M/M 플라스틱 (백색)	80M/M 플라스틱 (백색)
철물	제작일식	제작일식	제작일식	제작일식	제작일식

구분	1 WW	2 WW	3 WW	4 WW	5 WW
					
명칭	목재WINDOW	목재WINDOW	목재WINDOW	목재WINDOW	목재WINDOW
개소	6	8	1	4	2
유리	THK12mm 블루명유리	THK12mm 블루명유리	THK12mm 블루명유리	THK12mm 블루명유리	THK12mm 블루명유리
마감	수성스테인조판위 바니스마감	수성스테인조판위 바니스마감	수성스테인조판위 바니스마감	수성스테인조판위 바니스마감	수성스테인조판위 바니스마감
철물	제작일식	제작일식	제작일식	제작일식	제작일식
구분	1 PD				
					
명칭	플라스틱DOOR				
개소	1				
유리	THK 6mm 투명유리				
마감	80M/M 플라스틱 (백색)				
철물	제작일식				



단색화보



정면 전경



정면 전경



정면 우측부1



정면 우측부2



우측(서측)면



정면 좌측부 하단부1



정면 좌측부 하단부2



좌측면 하단



중앙 출입구 캐노피



중앙 출입구 캐노피와 박공부분



중앙 출입구 박공부분





중앙 출입구 캐노피 좌측면



중앙 출입구 계단부 상세



정면 우측부 2층 창호



정면 우측부



정면 우측부 1층 출입구



증축부 배면



중앙 및 증축부 배면



증축부 배면 하단



별관과 연결부 자리



증축부 배면



증축부 배면



후면 중앙출입구 좌측벽



후면 중앙출입구 우측벽



후면 중앙출입구



후면 중앙출입구(캐노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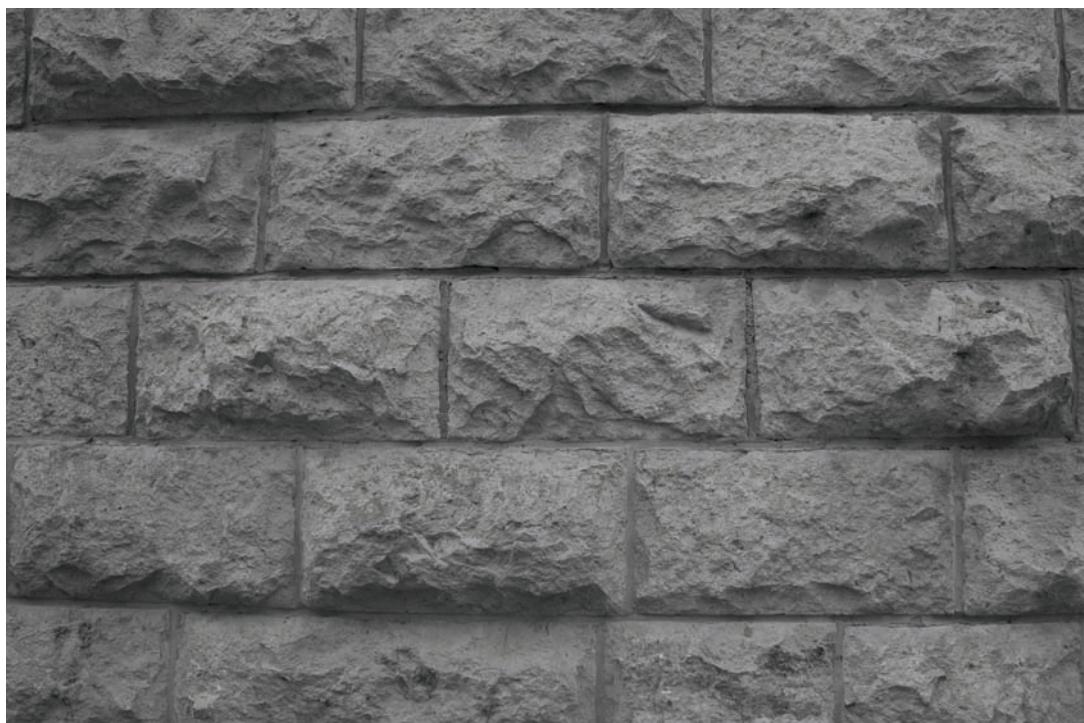
후면 중앙 출입구(입면)



외벽(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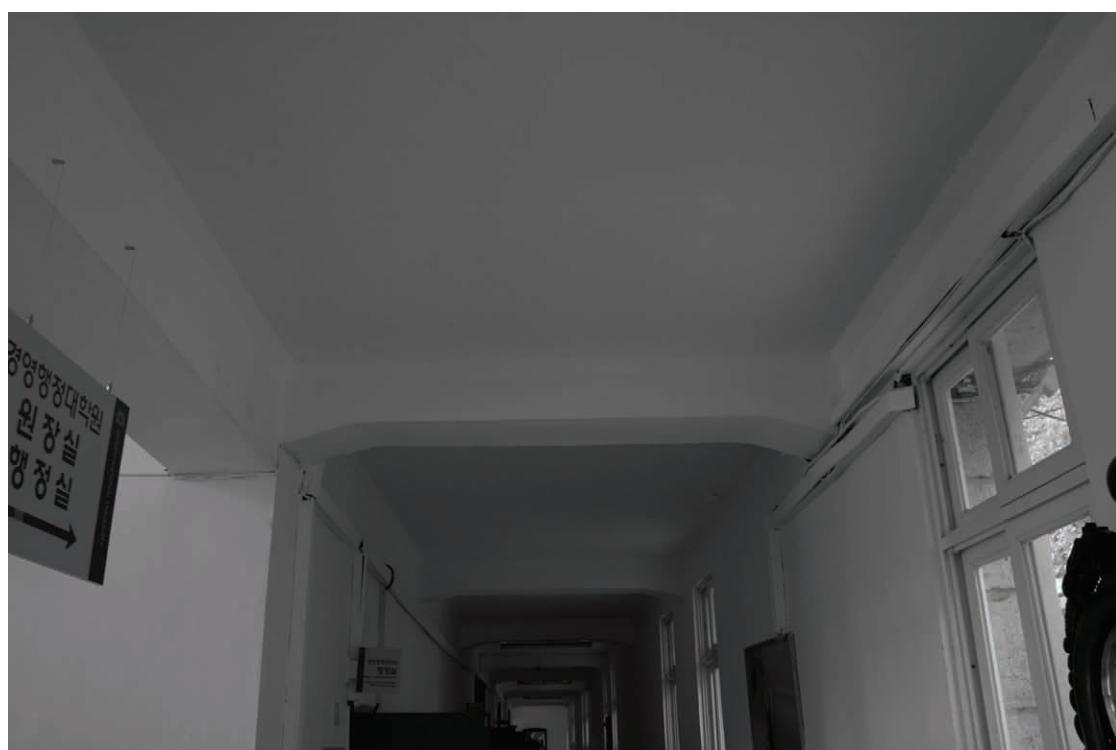
외벽(2층)



외벽 상세



창호 하인방



1층 복도 사이의 보(좌측방향)



1층 복도 사이의 보(우측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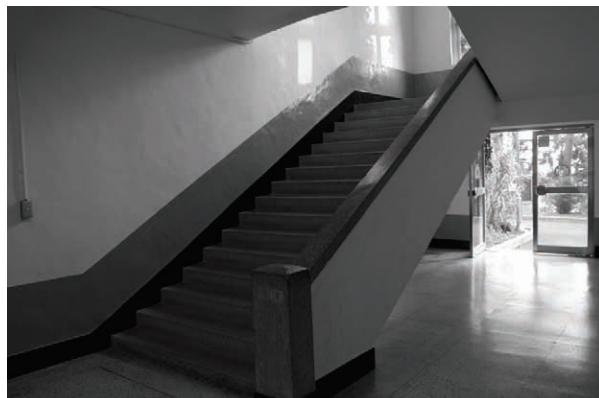
중앙 출입홀



좌측 계단실을 지나가는 보



우측 계단실을 지나가는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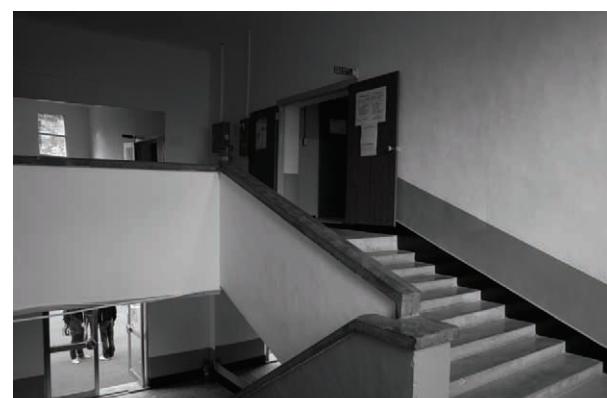
좌측 계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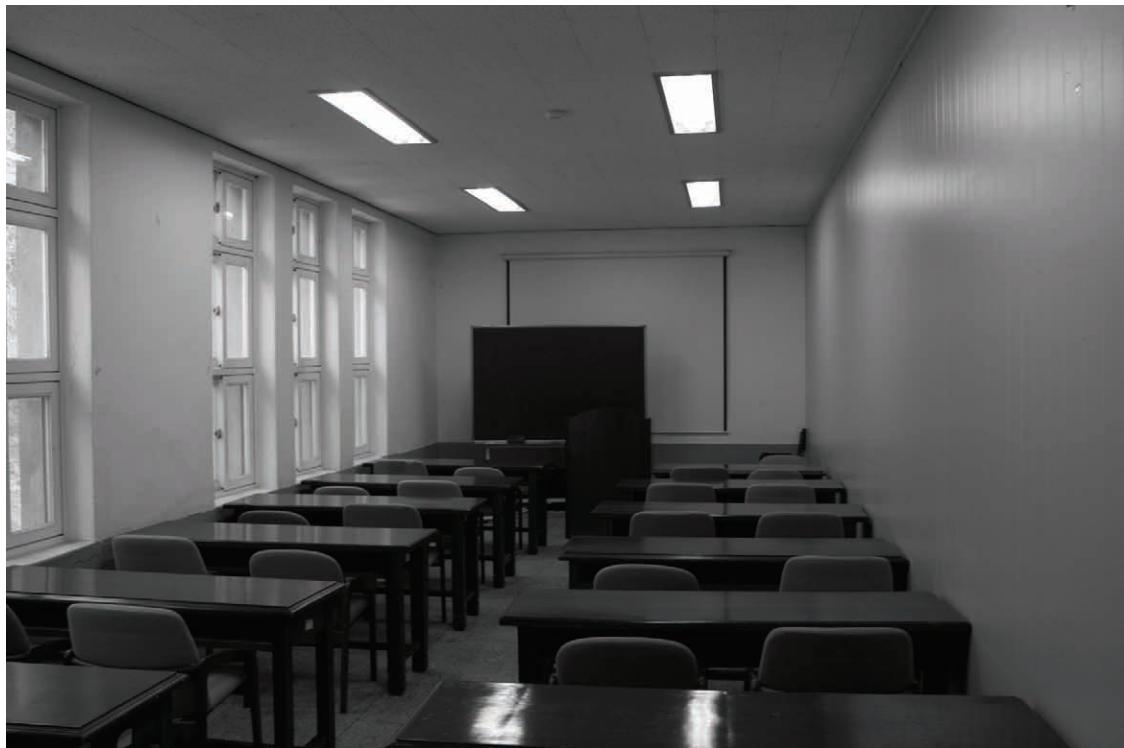
좌측 계단실



우측 계단실



우측 계단실



우측 증축부분 2층 미술실



본관 2층 강의실



지붕 트러스 구조 1



지붕 트러스 구조 2



지붕 트러스 구조 3



지붕 트러스 구조 4



지붕 트러스 구조 5



지붕 트러스 구조 6



지붕 트러스 구조 (왕대공가세)



지붕 트러스 구조 (왕대공1)



지붕 트러스 구조 (왕대공2)



지붕 트러스 (평보 덧판 1)



지붕 트러스 (평보 덧판2)



지붕 트러스 (반자틀)



지붕 트러스 (전기배선)



옥외 부속건물(창고 및 남자화장실)



옥외 부속건물(남/여 화장실)



부 록

1. 참고문헌
2. 요약문

1

참고문헌

1. 「목포사범학교 출업앨범」, 1962.
2. 김지민 외, 「목포시의 문화유적」, 목포대 박물관, 1995.
3. 목포시사 편찬위원회, 「목포시사」, 목포시, 1997.
4. 목포개항100년사 편찬위원회, 「목포개항 100년사」, 목포100년회, 1997.
5. 목포대학교 교사편찬위원회, 「목포대학교 50년사」, 목포대학교, 2000.
6. 김지민, 「목포의 근대건축」, 목포문화원, 2002.
7. 박찬승, 「목포 근현대 신문자료 집성」, 목포문화원, 2002.
8. 천득염 외, 「전남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 전라남도, 2003.
9. 김지민, 「구 호남은행 목포지점 기록화 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04
10. 김지민, 「목포 정명여자중학교 구 선교사 사택 기록화 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04
11. 고석규, 「근대도시 목포의 역사 공간 문화」, 서울대 출판부, 2004
12. 손창식, 김인창, 「해방초기 한국 석조건축의 특수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제25권 제1호, 2005
13. 최성락 외, 「목포 문화유적 분포지도」, 목포대학교 박물관, 2007
14. 김지민, 「건축으로 본 목포의 근대성」, 호남문화연구 제42집, 2008
15. 김태영, 「괴산중학교 구 본관 기록화 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08.
16. 한동수, 「구 일본우선주식회사 인천지점 기록화 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08.

2

요약문

- 문화재 명칭 :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
- 문화재명 : 등록문화재 제239호
- 소재지 :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산43
- 건립년도 : 1950년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은 1950년에 처음 건립이후 1954년과 1961년의 두차례 증축을 거쳐 현재의 모습으로 완성된 건물이다. 당시 이 건물은 목포사범학교 본관 및 교사로 사용되었다. 목포사범학교는 1946년 10월에 인가를 얻어 개교한 전남 서남권 초등교원 양성기관이었다. 이 건물은 현재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및 평생교육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건물은 지상2층의 석조건물이다. 평면형은 ‘一’자형의 긴 장방향으로 중앙의 홀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인해 건물이 균형감이 있고 아울러 석조건물다운 중후감도 갖고 있다. 홀 끝에서 좌·우로 편복도를 두고 남쪽으로 교실을 두었다. 복도의 폭은 2.3m정도로 최근에 짓는 학교의 중복도 정도로 매우 넓다.

중앙의 출입 홀 좌·우로는 각각 4Bay 구조를 적용하여 1층에는 8개의 실, 2층 좌측으로 4개실, 우측으로 1개실(크기 8.7 × 6.9m)과 3개실을 합쳐놓은 크기의 대강의실이 1개가 있다. 건물중앙에 있는 출입 홀(7×8m)은 2층부분까지 오픈시켰다.

건물의 구조는 내·외벽에 석재를 사용한 조적식 구조이다. 벽체두께는 외벽은 460mm, 내부벽(교실과 복도사이)은 360mm이다. 외부 돌쌓기는 총22켤레 되어있고 수직줄눈은 돌의 크기가 달라 일정치 않다. 2층 바닥은 철근콘크리트보를 걸고 콘크리트 슬라브로 처리하였다. 보 간격은 2.3m로 매우 좁으며 복도 쪽은 중간에 하나씩 줄여 4.6m간격으로 하였다. 보는 별도의 콘크리트 기둥없이 모두 돌 위에 올려져 있다.

지붕트러스는 1.7m 간격으로 총 59개를 설치하였다. 지붕틀은 육송을 사용한 왕대공 트러스구조로 되어 있다. 트러스 가로(평보) 길이는 10,900mm이며 왕대공 높이는 3,070mm이다.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은 해방이후 우리기술자에 의해 지어진 이지역 최초의 대형 공공 건물이었으며 아울러 목포 석조건축의 변천사를 엿 볼 수 있는 귀중한 유적이 되고 있다. 즉 목포는 1897년 개항과 더불어 외국인(미국, 일본)에 의해 석조건축(주택, 학교, 종교시설 등)이 유행하였고 이는 해방후에까지 이어졌다.

석조건축이 유행하게 된 이유는 가공하기가 쉬운 퇴적암이 유달산을 비롯해 인근 산에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본 건물에 사용한 석재는 목포 형무소 죄수들이 산정동 석산에서 채굴한 돌이다. 당시 목포에서는 건물 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의 축대와 담장에도 보편적으로 사용됐다.

Abstract

- Title of the Cultural Property: the Main Building of former Mokpo Teachers' College
- Cultural Property Registration No.: Registered Cultural Property No. 239
- Building Site: San-43 Yonghae-dong, Mokpo City, Jeollanam Province, South Korea
- Year of Construction: 1950

The main building of former Mokpo Teachers' College was first built in 1950 and underwent two times of additional structural work in 1954 and 1961 to become as it is now. At the time, the building served as the administration and classroom building of Mokpo Teachers' College. This college got its governmental accreditation in October 1946 and started educating students into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the southwestern part of the Jeollanam Province. Currently, the building houses the graduate schools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lifetime education center of Mokpo National University.

The 2-story building is built of stone. The floor plan of the building is rectangular in a '-' shape and is symmetrical with the central hall in the middle. As a result, it offers a sense of balance and also has a grandiose feeling which stone buildings usually provide. From end to end of the hall exists a one-sided corridor with the classrooms to the south. The width of the corridor is 2.3 m, which is wide enough to rival that of a modern school corridor.

A 4-bay structure is adopted on the left and right sides of the central entrance. On the first floor are 8 classrooms. There are 4 classrooms on the left and one classroom(8.7 by 6.9 m) on the right with one large classroom that is as spacious as 3 normal classrooms. The central entrance hall(7 by 8 m) in the building is open up to the 2nd floor.

The building is of a brick-layer style with stone panels attached to the interior and exterior of the walls. The exterior walls are 460 mm thick and the interior walls between classroom and corridor are 360 mm thick. The exterior stone laying has 22 layers and the vertical length are not even because of different stone sizes. The bottom of the second floor is framed with ferro-concrete beams and concrete slabs. The distance between beams is as narrow as 2.3 m with 4.6 m distance in the corridor. All the beams are placed on the stone base without any concrete columns.

There are 59 trusses with 1.7 m interval between them on the roof. The roof frame is of a big gable truss structure made of pine wood. The length of the truss measures 10,900 mm and the height of the big gable is 3,070 mm.

The main building of former Mokpo Teachers' College was the first large public structure built by local engineers after the end of the Japanese colonial rule and is a

precious relic that allows a glimpse into the history of the stone building structure in Mokpo. In other words, foreigners from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ad built stone buildings (residences, schools, churches, etc.) since the opening of the port in 1897 and the trend continued until after the liberation.

The reason why there abounds many stone building is that there are some mountains like Mt. Yoodal where plenty of easy-to-process sedimentary rock is available.

The stone used for this building was excavated by the inmates of the Mokpo prison from a quarry in Sanjeong-dong village. At the time, stone was widely used not only for buildings but also for the embankments and walls of ordinary houses.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 기록화 조사보고서

조사기관 |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1번지 목포대학교
<http://www.mokpo.ac.kr>

발행처 |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 / 정부대전청사 1동
<http://www.ch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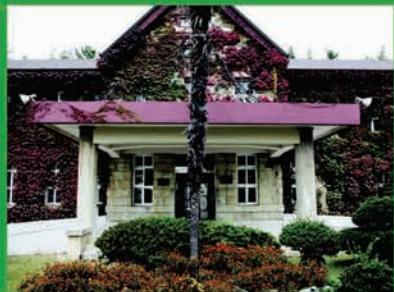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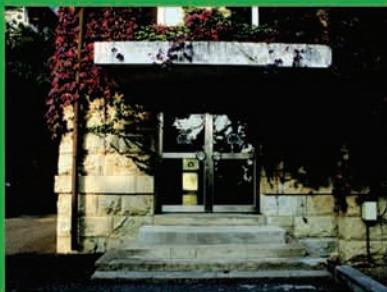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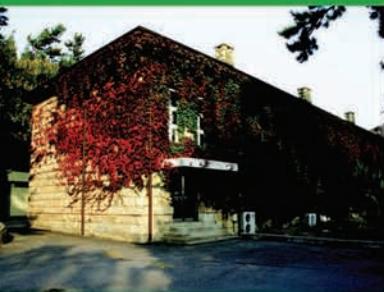
인쇄처 | 지성문화사 (062)227-0554

발행일 | 2009년 11월

I S B N | 978-89-6325-198-1(세트)
978-89-6325-204-9 94610

간행물등록번호 | 11-1550000-000188-01

※ 문화재청의 허락 없이 이 책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업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SBN 978-89-6325-198-1(세트)
978-89-6325-204-9 94610